

연구보고서 2018-05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 지원방안 연구

| 이 연 화  
| 진 영 찬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 지원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 연 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진 영 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발 간 사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이 핵가족에서 1인가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1인가구는 네 가구 중 한 가구이며 2025년이 되면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가 될 정도로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규모의 감소, 가족형성의 지연, 결혼과 가족에 대한 변화 요구 등 가족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노인 1인가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20·30대 미혼·비혼 독신가구의 증가, 40·50대 이혼·별거 단독가구 증가 등 1인가구들의 구성이 다양하며 각기 처한 상황도 다양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 1인가구들은 남성 1인가구들에 비해 빈곤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범죄예방정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이들의 형성배경, 결혼가치관, 가족관계, 경제적 특성, 경력단절, 사회관계, 주거상태, 안전상태, 건강상태, 여가상태, 노후준비, 정책욕구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고 연령별, 소득별 특성을 반영해 가족·사회·교육·주거·건강지원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응해주신 여성 1인가구 당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자문위원들과 관련 현장 전문가들, 관련 담당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주신 진영찬 박사님과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고한 이연화 연구위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앞으로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9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이 은 희



---

## 연구요약



## 연구 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이 4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바뀌고 있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시도편:2015~2045」(2017)자료에 의하면 2017년 네가구 중 한가구는 1인가구임. 2025년에는 세가구 중 한가구가 1인가구로 앞으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족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됨
- 1인가구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정보사회의 진전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심화<sup>1)</sup>, 청년세대의 결혼관 변화 및 초혼 연령 상승, 노동시장의 경쟁구조에 인한 대도시 중심의 취업 기회, 가족 재생산비용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독거가구 및 혼자 생활하는 기간의 증가,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존재함. 또한 1인가구 역시 독거노인가구뿐만 아니라 청년 1인가구, 비혼가구, 이혼·별거 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를 초래하며, 가구구조 변화과정에서 단절과 고립, 사회통합의 제약 등 기존과는 다른 사회적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 20·30대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40·50대 이혼·별거에 따른 단독가구 증가, 60대 이상 고령화에 따른 사별, 이혼의 증가 등(홍승아 외, 2017; 장진희 외, 2016, 이민홍 외, 2015) 1인가구들의 형성요인, 연령, 젠더, 계층 등에 따라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인가구 특성별 대응방안 및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홍승아 외, 2017; 문정희 외, 2017)
- 제주지역의 경우 2017년 1인가구의 수는 68,738가구로 전체가구의 27.8%임. 네가구 중 한가구는 1인가구이며 2025년에는 31.3%로 추계(통계청, 2017)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1인가구는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1) 가치관의 변화란 결혼해서 노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살아가다가 노년에 성인 자녀 부부 및 손자녀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을 유복한 삶이라 여겨왔던 전통적인 가치관에 균열이 생긴 것을 의미함(이여봉, 2017)

제주지역의 경우 1인가구 관련 연구가 없으며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여성 1인가구는 빈곤과 범죄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조사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

-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특성으로 노인여성 1인가구가 많아 세대별로 노인, 소득별로 저소득층에 집중된 경향이 많음. 최근 여성 청년실업 및 이혼·별거 등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증가, 또한 계층별 여성 1인가구의 욕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경제, 사회적 고립, 주거, 건강 등 생활실태와 정책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해 세대별, 소득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 1인가구의 일자리, 사회관계망, 건강, 주거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함

## 2. 용어의 정의 및 연구범위

- 본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를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1인가구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함
- 최근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이주'를 꿈꾸며 미리 한달살이, 6개월살이 등 장기체류 중인 1인가구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공간적 연구범위를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최소한 1년이상<sup>2)</sup> 거주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로 한정함

## 3. 연구내용과 방법

### 가. 연구내용

- 여성 1인가구와 관련한 기초현황과 관련 정책 분석
  - 통계 및 문헌, 국내·외 중앙정부 및 타시도·제주지역 관련정책 분석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및 분석
  - 여성 1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 연령별·소득별 경제활동, 결혼 및 가족관계, 가족돌봄부담, 사회적 관계, 주거실태,

---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연구범위를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로 한정하고 있음

건강과 여가상태, 노후대책, 정책지원욕구 등 조사 및 분석

- 세대별/소득별 특성을 반영한 여성 1인가구 지원방안 제안

##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여성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여성 1인가구 관련 통계자료,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현황 등 분석
- 관련 법,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현장 전문가 및 당사자 간담회

- 제주지역 가족·일자리·건강 관련기관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 여성 1인가구 등 의견수렴
- 내용 : 연구범위, 설문지(안) 검토, 조사결과 및 지원방안 논의
- 일시 : 간담회 회의 (2018. 6.7 & 9.19)

-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

- 내용 : 연구방향,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 자문, 조사결과 및 지원방안 자문
- 일시 : 자문회의 (2018. 4.25 & 9.18), 설문지(안) 의견수렴(2018. 6.1~6.17)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여성 1인가구(400명)
- 조사 내용 : 형성배경, 생활만족도,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 가족돌봄 및 관계, 경제적 특징 및 노후 준비, 주거환경 및 안전, 건강과 여가, 사회적 관계망, 정책 인지도 및 정책지원 욕구 등
- 조사기간 : 7.6 ~ 7.27

- 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여성 1인가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조사내용 : 혼자 거주하게 된 이유, 1인가구의 장·단점, 경제·주거·안전·건강·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향후 계획, 희망하는 사항, 서비스이용 경험 및 정책욕구 등
- 조사기간 : 4.17 ~ 7.17

#### 4. 선행연구 검토

- 국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최근 정책연구들을 살펴보면, 1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장진희 외, 2018; 홍승아 외, 2017; 문정희 외, 2017; 주혜진 외, 2014)와 1인가구의 세대별, 성별 특성에 주목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연구(장진희 외, 2016; 박건 외, 2016; 김영정 외, 2016)들이 있음
- 국내 1인가구 관련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주거문제(김행신 외, 1998; 김현진 외, 2000) 및 자기방임실태(영양실조, 위생, 청결, 약물남용, 자살생각 등)(정경희 외, 2012; 이민홍 외, 2015)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음
- 2000년대 이후로는 1인가구의 증가를 개인주의 가치관의 심화, 결혼관 변화, 만혼화, 저출산, 고령화 등에 의한 사회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보고 연구대상을 독거노인 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상으로 확대해 1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장진희 외(2018)의 연구는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사회구조의 변화로 보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경제상태, 주거상태, 안전상태, 건강상태, 여가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 종합적인 이해를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있음
- 또한 1인가구의 문제를 가족정책의 수요에 주목하면서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안한 연구도 있음. 홍승아 외(2017)의 연구는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1인가구의 결혼관, 가족가치관, 가족돌봄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경제, 가족,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해 1인가구의 지원 방향을 제안하고 있음
- 지자체별로도 해당지역의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음. 문정희 외(2017)는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인가구 생활실태를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세대별로 나누어 경제, 주거,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또한,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계획을 경제, 주거, 생활여건개선 등에서 제시하고 있음. 주혜진 외(2014)는 대전지역의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인구특성, 가족, 주거, 경제활동, 교육, 사회자본, 문화와 일상생활, 교통, 노인 및 노후생활로 나누어 기초자료를 구축했음
- 이렇게 1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 연구들은 1인가구가 보편적 가족유형으

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의 대응과 변화의 미흡함을 지적함. 그러나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열악한 거주환경, 정신건강 등 이들 가구의 종합적 조사의 필요성과 주요 정책이슈들을 발굴했지만 현재 1인가구 관련 정책은 노인정책 또는 기초수급자 지원정책에 포함되어 1인가구의 성별, 세대별, 소득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한편,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특성과 욕구에 주목한 연구가 있음. 여성 1인가구의 세대별 특성에 주목한 장진희 외(2016)의 연구는 청년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분석하면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고용불안정, 주거 및 안전지원방안마련을 제안하고 있음
- 박건 외(2016)는 중장년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상태 등으로 한정해 조사를 했으며 중장년여성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건강, 안전, 일자리, 주거, 사회적 네트워크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김영정 외(2016)는 60세 이상 노년여성 1인가구에 대한 생계유지, 노후준비, 관계망, 차별경험, 여가활동 실태를 분석해 주거환경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함
-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연구들은 1인가구의 증가를 사회구조적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파악하면서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음. 또한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가구의 젠더와 세대 특성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각기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 특성별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도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연구대상을 여성과 세대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최근 여성 청년실업 및 이혼, 별거 등 청년,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증가 등 청년 및 중장년층 여성 1인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여성 1인가구들은 남성 1인가구보다 빈곤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제주지역의 경우 노인층에 여성 1인가구가 많아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조사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 특히 여성 1인가구중 저소득층은 더욱 빈곤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에 주목하면서 세대별, 소득별 특성을 반영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문제와 욕구를 이해하고 각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제2장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 1. 성별·연령별 1인가구 현황

-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5년 27.2%로 급증하였으며, 2025년에는 31.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반대로 2000년 31.1%에 이르렀던 4인가구 비율은 2015년 18.8%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13.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제주도의 경우도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 16.9%, 2015년 26.6%, 2025년 3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반면 4인가구는 2000년 26.9%, 2015년 17.4%, 2025년 12.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7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2017)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7)에 나타난 제주도 1인가구의 성별구성비를 재구성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성별추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 1인가구는 23,764가구에서 33,517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남성 1인가구도 14,747가구에서 35,222가구로 증가함. 제주지역 남녀 1인가구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7)에 나타난 시도별 성별 연령별 1인가구수를 살펴보면, 70세 이상 고령자 가구 구성비는 전남이 34.2%로 가장 높고, 전북(26.9%), 경북(26.1%), 경남(23.2%), 강원(22.2%), 충남(21.6%), 충북(20.5%), 부산(19.7%), 대구(18.3%), 제주도(16.4%) 순으로 제주도는 중위권으로 나타남. 70세 이상 고령자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시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 여성 1인가구 현황

#### 가. 소득현황

- 여성가족부 「2017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살펴보면, 여성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유독 낮음. 2016년 기준 여성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 56.9%로, 남성 1인 가구의 100만원 미만의 비율(29.5%)보다 약 1.9배 높음
-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남성 1인 가구는 소득구간별로 비슷한 비율의 분포를 보여서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높음

- 2019년 제주도내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실태 생계비 조사 연구<sup>3)</sup>에서 제주지역의 생활임금수준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1인 가구가 한 달간 지출한 생계비를 분석한 결과 도내 1인 가구의 월 지출액은 214만4,000원, 비혼 1인 가구가 사용한 돈은 207만 4000원 수준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1인 가구는 한 달 간 225만 7000원을, 여성 1인가구는 185만원 8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제주일보, 2018.8.2.일자)
- 이는 시간당 8,900원, 한 달간 186만원 가량 지급되는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최대 40만원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행 생활임금 수준으로 1인가구의 소비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나. 주거 및 안전현황

- 2030 여성 1인 가구 생활실태를 연구한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2016)에서 청년여성 1인가구들은 연립/다세대(31.9%), 오피스텔(29.0%), 고시원/원룸(21.5%), 아파트(13.0%)순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이하 청년여성 1인가구의 42.1%는 고시원/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주거공간으로 인해 주거불안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과 주거환경 혹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특히, 강력범죄의 약 70%는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장진희 외, 2016) 이는 주거지 안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음
- 서울시 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여성 1인가구들은 주거환경(주거면적, 소음, 방음 등) 보다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교통 편리성, 저렴한 비용이 주거 선택 시 가장 우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장진희 외, 2016)
- 특히 주거 선택시 치안 및 안전은 여성 1인가구 내에서도 세대별 차이를 보였는데 청년여성 1인가구 14.2%, 중장년여성 1인가구 10.7%, 고령여성 1인 가구 6.2%로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보임
- 제주지역의 경우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제주지역 남녀1인가구 현황」(2015)에

3)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수행 중인 연구임

따르면 남녀모두 단독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관리 및 보안시스템이 취약해 여성 1인가구의 주거불안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 다. 건강 및 여가현황

- 1인 가구는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특성상 건강상에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하지경·이성림, 2017)
- 또한 가정 내에서 정서적으로 교류할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외로움 등의 정서적 결핍감을 감내하기 위해 1인가구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활동으로 음주나 흡연은 습관적 행위에 집중하여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Jo, H. j. & jun, S. H. 2010)
- 특히 남성의 경우 독신 여부는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여성의 건강행위는 독신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하지경·이성림, 2017) 여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 여성보다 과음주군이 될 확률이 높고 흡연율도 높게 나타남. 노인 1인 가구도 1인가구가 아닌 가구에 비해 만성질환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우울지수도 높게 나타남(Jung etc. 2011 ). 또한 노인 1인가구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10%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는 혼자 거주하는 특성으로 인해 모든 사회적 관계가 고립된 집단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들은 동호회, 친구만남, 지역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통해 관계망을 유지하기도 하며, 그 중 일부는 고립을 보이기도 함(장진희 외, 2018). 즉 1인가구는 모두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활발한 관계망을 지닌 집단과 고립된 집단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신건강지표는 식욕, 수면, 우울감, 무력감, 슬픔, 외로움, 허무감 등이 포함하고 있음. 그 중에서 1인가구의 특징과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외로움임. 자신의 생활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과 관련된 항목에서 1인 가구 응답자는 다인 가구 응답자에 비해 4배 이상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응답함(이영진·최유정·이상수 2014)
- 서울시 생활실태조사에 보면 1인가구 여가활동은 개인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 TV/비디오 시청(25.4%), 가사(20.1%), 친구만남 등 모임활동(17.5%), 운동(11.5%) 등

의 순으로 나타남(장진희 외, 2018)

- 그러나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나들이(38.4%)로 나타났으며(장진희 외, 2018), 성별/세대별 모든 집단에서 여행/나들이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현재 연가 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TV/비디어 시청을 희망하는 비중은 4.7%에 그쳐 1인가구는 희망여가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 1인가구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남성 1인가구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의 건강상태는 '보통(38.1%)'이 가장 높은 반면 남성 1인가구는 '좋은 편(36.1%)'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러나 건강이 나쁘다는 비율에서는 여성 1인가구가 36.8%로 남성의 25.9%보다 높게 나타남(이연화 외, 2015).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36.8%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해 건강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2.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

- 중앙 및 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및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중앙 및 각 지자체 1인가구 정책 현황〉

구분		비고
1) 중앙부처	1) 주거지원: 공공임대, 공공실버주택, 기존 주택 매입임대, 행복주택을 활용한 창업지원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령층용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청년임대리츠, 만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수선유지급여지급시 특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 버팀목 전세대금 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대출 등	. 저소득 1인가구 대상
	2) 돌봄지원: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 소득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65세 이상 노인 대상이며 독거노인 우선
	3) 사회관계망: 독거노인사회관계망활성화 지원	
2) 서울특별시	1) 고령1인가구: 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사랑의 안심폰 사업, 어르신 무료급식제공, 서울제가 관리사 사업,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 안전, 정신건강, 식사지원에 한정
	2) 사회관계망 지원: 1인가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이웃만들기지원사업, 우리마을지원사업-활동지원과 공간지원, 공동주택공간활성화 사업 등)	.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2-1) 자치구 커뮤니티활성화 사업: 금천구의 대대식당, 광진구의 꿈꾸는 싱글라이프, 서초구의 별별동아리와 싱글톡톡 등 2-2) 건강: 강남구의 청장년 고독사 예방지원, 금천구의 혼밥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대책, 성동구의 식사합시다, 송파구의 독거노인 텔레케어, 마포구의 골목형 시장육성	
	3) 여성안전정책: 여성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안심귀가스카우트, 서울지하철 보안관, 서울시 홈 방법 서비스,	.여성1인가구 대상
	4) 주거분야: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희망하우징,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0%이하 1인 무주택자를 위한 원룸형임대주택, 한지봉 세대공감사업	.주거취약 계층 대상
3)부산광역시	1) 쾌법동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안심골목길, 안심방향표시, 112안심벨, 범죄신고번호판, 불록거울 설치 등) 2) CCTV, 비상벨, 가마실 마을의 비명소리 감지 CCTV, 레이저방범, 112비상벨, 어머니폴리스, 아동안전지킴이집합대,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전 정책과 연계
4)인천광역시	1) 안전지원: 싱글여성호방서비스	
5)제주특별자치도	1) 장년층: 안부확인서비스로 건강음료지원사업,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2) 노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사는 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저소득 노인주거비 및 진료비 지원,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지원 2-1)제주시: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 장년층 1인가구 안부확인서비스 2-2)서귀포: 저소득재가노인복지증진(식사배달등), 장년층 1인가구 안부확인서비스	

자료: 문정희 외(2017), 하정화 외(2014),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8)에서 재구성

### 3. 요약 및 시사점

- 1인가구의 증가는 향후 보편적 가족형태가 될 1인가구에 대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열악한 주거환경, 건강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이에 발맞추어 각 지자체는 1인가구의 증가에 대비해 관련연구, 조례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음
- 그러나 1인가구의 개념규정이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혼자생활하는 가구로 정의됨에 따라 그 범주에 속한 집단이 동질적이기보다는 매우 이질적이며 청년 1인가구의 증가, 이혼·별거에 따른 1인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사별의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가구, 비혼가구 등 그 발생배경도 다양해 연령별, 성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 및 지원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 정책들은 저소득층과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음
- 특히, 1인가구 통계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그 수가 많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1인가구와 달리 저소득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으며, 치안과 안전 불안,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음. 또한 1인가구는 모두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활발하게 관계망을 지닌 집단과 고립된 집단이 혼재되어 있어 사회적 단절과 고립의 문제를 개선해야함

- 제주지역도 1인가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네 가구중 한가구는 1인가구이며 해마다 여성 1인가구의 수가 남성 1인가구의 수보다 많았지만 2017년 남성 1인가구의 수가 여성 1인가구의 수보다 더 많아졌음. 그러나 여성 1인가구들은 남성 1인가구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취약하며 빈곤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은 연령에 따라 계층에 따라 1인가구의 일부세대만 빈곤 정책, 청년정책, 노인정책의 틀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 중앙 및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없으며 타 지역 시도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도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연계해 폭력피해범죄에 더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만이 특화되어 있음. 따라서 여성 1인가구들의 빈곤, 건강, 여가, 사회적 고립 등 다른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재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후 제주지역의 보편적 가족형태가 될 1인가구 중 빈곤과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경제, 사회, 문화, 주거, 안전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지원이 필요함

### 제3장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실태조사 분석결과

#### 1. 조사개요

##### 가.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 1인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제주시/서귀포시)<sup>4)</sup>·연령별(20대/30대/40대/50대/60세이상)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추출 후 400명을 추출함
- 표집방법은 실태조사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연령별

4)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1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각 행정시의 인구를 고려해 표본을 할당함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 표집함. 표본 할당 대비 일부 표본이 변경된 경우 표본 할당 기준에 따라 사후 가중치를 적용함

- 조사방법은 전문리서치 기관의 전문면접원에 의한 가구방문 1:1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8년 7월6일 ~ 7월 27일임
- 유의수준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pm 4.9\%$ p임

## 나.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형성배경, 생활어려움,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 가족돌봄 및 관계, 경제적 특징 및 노후 준비, 주거환경 및 안전, 건강과 여가, 사회적 관계망, 정책 인지도 및 정책지원 욕구, 개인관련 사항 등 8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함

##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 체	400	100.0		전 체	400	100.0	
연령	20-29세	43	10.8	1인 거주 기간	1년~2년 미만	32	7.9
	30-39세	51	12.8		2년~5년 미만	79	19.8
	40-49세	62	15.5		5년~10년 미만	76	19.0
	50-59세	74	18.5		10년~20년미만	112	28.1
	60세 이상	170	42.5		20년 이상	101	25.2
학력	중졸 이하	115	28.7	월평균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34.5
	고졸	113	28.4		100만원 미만	52	13.0
	대졸	122	30.4		100~200만원 미만	103	25.8
	대학원 이상	9	2.2		200~300만원 미만	79	19.7
	기타(무학)	42	10.4		300만원 이상	28	7.1
혼인	기혼	18	4.6	직업	관리자	4	0.9
	미혼	124	31.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4	8.6
	이혼/별거	86	21.4		사무종사자	27	6.8
	사별	172	43.0		서비스 종사자	98	24.4
고향	제주	262	65.6		판매직 종사자	12	3.0
	타지역	138	34.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	0.5
거주 지역	제주시	292	73.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4	0.9
	서귀포시	108	27.0		단순노무 종사	34	8.6
경제적 상황	기초생활	57	14.3		자영업	37	9.2
	차상위가구	19	4.8		학생	5	1.3
	일반가구	324	80.9	일을 하고 있지 않음	143	35.7	

## 2. 분석결과

### 가. 여성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

- 조사결과 60세이상 1인가구가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인유형 또한 사별이 43.0%였음. 거주이유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이 55.5%로 많아 제주 지역은 60세이상 노인 여성 1인가구가 많으며 자발적인 여성 1인가구보다는 비자발적인 여성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근로 소득은 '근로소득 없음'(34.5%)과 100만원미만(13.0%)이 47.5%로 소득이 낮고 경제적 상황은 일반가구의 80.9%로 나타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거주기간은 평균 12.12년으로 10년 이상이 많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 근로소득도 평균 114만원으로 거주기간이 10년과 20년 이상에서 '근로소득 없음'이 각각 35.1%, 52.8%로 많아 거주기간 10년이후부터는 점차 월평균 근로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신체적 건강평가가 평균 2.2점으로 건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이 나빠 소득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도 나빠진다고 볼 수 있음.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중 일하지 않는 이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58.1%로 많아 여성 1인가구의 자립지원정책은 건강관리지원사업과 맞물려 추진되어야함을 알 수 있음

### 나. 주거환경 및 안전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자가소유가 33.2%로 청년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서울에 비해 자가점유비율이 높지만 주택유형이 아파트(30.8%)와 단독주택(30.6%)이 많아 주변환경에 대한 안전도는 평균 3.4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남. 그러나 연령별로 40대가 주변환경에 대한 안전도가 평균 3.2점으로 가장 낮으며 40대는 자가소유보다는 보증금 있는 월세(27.0%)가 가장 많으며 주택유형 또한 연립/다세대주택이 35.3%로 아파트보다는 연립/다세대주택이 안전에 취약하기때문으로 보임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주거비용 중 연세(22.9%)보다 월세(61.0%)가 더 많으며 지

출액은 연세 년 평균 492만원, 월세 월 평균 28만원으로 나타남. 문제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월 평균 15만원의 월세지출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무상지원의 경우 20대 17.3%, 30대 11.9%, 40대 7.0%, 50대 5.8%, 60세이상 27.6%로 4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는 주거지 선택 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남. 2030세대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59.2%, 4050세대인 경우 비용이 저렴해서 39.2%, 6080세대는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가 39.2%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주택 구입시에는 높은 보증금/월세의 어려움(61.2%), 좋은 집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부족(19.6%)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에 살 의향이 없음'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원룸과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는 친교 및 운동/여가를 위한 공동 공간 있는 주택'(26.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생활보다는 독립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자하는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주거지안전(주변지역 폭력·범죄, 소음, 보안·도둑침입)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 3.3점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별로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평균 3.0점으로 더 낮게 나타남. 여성 1인가구의 안전도에 대해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보다 79.0%로 더 많이 위협(매우위험함+약간위험함)하다고 생각함. 20대와 30대들이 주거지에 불안을 느낀다고 볼 수 있음. 범죄예방 및 대처교육에 대한 욕구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들이 교육욕구가 높게 나타남

#### 다. 가족관계 및 경제상태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중 19.6%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돌봄 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이 있으며 기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3.1%가 가족돌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돌봄대상자로는 부모가 54.6%로 가장 많으며 연령별로 20대는 부모, 30대는 부모와 자녀, 40대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50대는 부모, 자녀, 손자녀, 60대는 손자녀, 부모, 자녀순으로 나타남. 특히, 근로소득이 없어도 부모(40.0%)와 손자녀(30.0%)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의 가족부양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과반수 이상이 생활비 마련을 본인의 근로소득(58.7%)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20대도 본인이 70.5%, 부모의 도움 27.1%로 본인이 생활비를 더 많이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생활비는 월평균 103만원으로 나타남. 월평균 근로소득이 평균 114만원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음. 부채여부를 조사한 결과 없다가 72.9%로 많으며 부채가 있는 경우는 주택마련 26.2%, 생계비 25.2%, 사업자금 21.4%로 나타나 생계비도 부채의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직업을 보면 서비스직이 38.1%로 가장 많으며 평균 월근로소득도 114만원이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총 36.4시간으로 나타남. 나이가 많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과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라. 건강 및 여가 그리고 사회관계

- 건강상태의 경우 신체적 건강은 평균 2.9점, 정신건강은 평균 3.5점으로 신체적 건강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운동은 주1~2회(28.9%)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37%), '운동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34.0%)로 나타나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함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여가시간은 평균 평일 약 4시간, 주말 약 6시간이며 주로 친구나 이웃(61.2%)과 보내며 그 다음이 혼자(20.3%)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가 교육활동 참여가 83.2%가 없지만, 참여한 경우는 세대별 특징이 나타남. 2030세대는 학교 또는 부설평생교육기관, 학원사업장 부설 문화센터에서 교육참여가 높고, 40대와 50대, 60세 이상은 복지관련 기관, 종교시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 및 복지, 종교관련 기관의 프로그램에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여성 1인가구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취미 관련 교육'이며 60세 이상은 '건강, 보건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이웃을 사귀는 방법',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왕래할 수 있는 이웃', '서로 협동하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있어 나이가 들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20대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웃에 대한 세대 차이가 있음
- 활동하는 사회단체나 모임에 대한 조사결과 '없음'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단체나 모임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관계의 고립을 경험할 수 있음

#### 마. 노후전망 및 정책욕구

- 향후계획 또한 계속 혼자 생활 할 것 같다 65.5%로 많지만 연령별로 20대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22.9%)가 많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적어지고 계속 혼자 생활 할 것 같다는 30대를 전후로 40대이후 크게 많아졌음
- 자신의 노후생활 전망중 사회적 관계와 주거상황이 평균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상황 평균 3.1, 경제적 상황 평균 3.3, 건강상태 평균 3.4는 다소 어렵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공급정책(54.2%)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그 다음이 건강증진관련 정책 15.6%, 여성안전정책 13.8%, 경제적 여건 개선정책 13.5%, 여성 1인가구 인식개선 1.2%,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정책 1.0%, 가족내 관계망 지원 정책 0.7%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공급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 공급(45.7%)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그 다음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임대 주택 입주 조건완화와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23.6%), 1인 가구를 위한 공유형 공동주택 공급(12.2%), 1인 가구 지원서비스 시설 복합형 대규모 집합 주택 (6.5%)순으로 나타남. 경제상황별로 주택정책에 있어 기초생활가구는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과 공동주택 공급을 선호를, 차상위는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일반가구는 임대주택입주조건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여성안전 정책으로는 주택주변 환경 개선이 59.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위급상황시 사회적 보호장치 제공 19.0%, 주택내부 환경 개선 17.7%, 늦은 시간 귀갓길을 함께 동행해줄 수 있는 도우미 2.6%,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태배함 설치 1.5%순으로 나타남.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주변 환경 개선의 경우 20대가 67.2%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내부 환경 개선은 60대가 20.5%, 위급상황시 사회적 보호장치 제공도 60대가 22.8%로 가장 많음. 늦은 시간 귀갓길을 함께 동행해줄 수 있는 도우미와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태배함 설치

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정책으로는 사회보장 제도개선이 60.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구직 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 13.5%,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 9.7%,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 6.5%, 직업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제공 6.1%,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3.9%순으로 나타남. 세대별로 사회보장 제도 개선은 6080세대가, 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4050세대가,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은 2030세대가,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은 2030세대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지원 정책으로는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가 40.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강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 26.8%,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21.2%, 우울증 검진서비스 및 프로그램 11.9%순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들은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를 다른 정책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연령별로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는 40대가, 우울증 검진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20대가,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은 30대가, 건강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은 60대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지지체계 지원 정책으로는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이 38.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1인 가구 친목모임 지원 27.9%, 가족돌봄 및 개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18.3%,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12.0%순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20대·30대·40대·50대는 동호회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이 1인 가구 친목모임 지원을 가장 많이 선호함. 가족돌봄 및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에서 60세 이상이 다른 연령보다 더 많이 선호하며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은 50대에서 높게 나타남

## 바. 세대별 특징

- 2030세대는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이유가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였지만 4050세대는 ‘부모님을 돌봐야 해서’가 가장 많았음. 향후 결혼생각 또한 2030세대는 56.2%가 결혼생각이 있지만 20대 70.5%에서 30대가 되면 44.3%로 떨어졌음. 2030세

대는 7.8%는 '결혼, 임신, 양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050세대는 31.9%가 '결혼, 임신, 양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함. 직장이직 또한 2030세대는 평균 3.1번이며 4050세대는 평균 4.3회로 나이가 들수록 이직경험이 높게 나타났음

- 2030세대는 청년일자리정책 중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일자리정책에 대해 '취업성공패키지' 1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청년취업아카데미' 12.9%로 나타남
- 반면 4050세대는 구직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28.3%로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사업에 참여이유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50.8%로 가장 많았음. 그러나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도움정도(평균 2.9점), 근무강도(평균 2.8점), 근무시간(평균 2.9점), 근무기간의 만족도(평균 3.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중장년일자리 정책 중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해야할 일자리 정책으로 중장년 취업인턴 25.1%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그 다음이 창업지원 20.3%, 중장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15.1%, 직업훈련 10.4%,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9.7%, 사회적 경제관련 지원 9.6%, 고용서비스 7.0%, 해외취업지원 2.8%순으로 나타남. 4050세대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4050세대들이 필요한 건강 및 안전정책에 대해 주택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88.5%)와 여성의 갱년기 여성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해 89.6%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6080세대는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업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단순노무종사자 23.4%, 서비스종사자 17.0%, 가정주부 11.1%, 자영업 8.2%, 판매직종사자 4.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8%, 사무종사자 0.6 순으로 나타남. 현재 30.5%가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은퇴자 혹은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42.8%이며 일하고 싶지 않음 27.7%, 건강이 좋지 않아서 19.3%, 일자리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4.2%,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차지 못해서 2.5%,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 보수가 너무 낮아서 2.5% 순으로 나타남
- 6080세대는 의료보건기관이용 시 같이 갈 사람이 없어(21.0%)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참여활동시 어려움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59.6%)인 것으로 나타남.

타남. 노인여가시설 중 이용한 적이 없는 시설은 노인교실(91.2%), 노인대학(87.1%), 노인복지관(58.5%), 경로당(37.5%)으로 나타남. 60세 이상은 여가프로그램으로 '건강, 보건의료 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기 때문에 노인교실, 노인대학에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6080세대들은 주택개·보수와 가정방문등 사회복지서비스(각각 평균4.2점), 여성질환 건강용품(평균4.1점), 일자리개발 및 취업알선(평균3.9점), 정책의견수렴 통로 마련(평균3.8점)등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은 반면 문화관람기회확대(평균3.7점), 자원봉사·사회참여정보제공(평균3.7점), 젊은 세대와의 교류(평균3.6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4장 심층면접조사 결과

### 1. 심층면접 조사개요

- 심층면접대상자는 총 10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2명, 30대 1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명, 80대 1명으로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음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대상자	거주지역	연령대	혼인상태	기간	형성배경	직업	건강상태	주거유형	비고
사례1	제주시	30대	미혼	4~5년	직장	자영업	나쁜편	다세대 주택	공황장애
사례2	제주시	20대	미혼	4년	학업	대학생	양호	빌라	아르바이트
사례3	제주시	50대	미혼	3년	비혼	공무원	양호	단독주택	
사례4	제주시	50대	기혼	4년	이혼	자영업	보통	빌라	다세대주택 갱년기
사례5	제주시	80대	기혼	20년	사별	해녀	나쁜편	단독주택	다리수술
사례6	제주시	20대	미혼	1년	직장	가족관 실무자	양호	다세대 주택	
사례7	서귀포시	60대	기혼	30년	이혼	없음(신 용불량자)	나쁜편	임대 아파트	1인 가구 관리대상자
사례8	서귀포시	50대	기혼	7~8년	이혼	없음	나쁜편 (삼근경색)	다세대 주택	기초수급자
사례9	제주시	40대	동거	7년	별거	없음	나쁜편 (뇌전증)	다세대 주택	기초수급자
사례10	제주시	40대	동거	6년	이별	콜센터 직원	양호	쪽방	조건부 기초수급자

- 심층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접대상자로 하여금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했음. 질문영역은 1인가구 생활만족, 경제활동 및 노후대책, 건강 및 여가, 사회적 관계망, 주거환경 및 안전, 정책인지도, 정책욕구 등임

## 2. 면접조사 분석결과

### 가. 중첩된 어려움: 낮은 소득과 건강문제

- 심층면접 결과 여성으로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부모와 남편으로부터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이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부분에서는 큰 장점으로 나타남
- 그 외 1인가구로서의 어려움은 소득활동이 필요하지만 취업이 안 되거나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을 때이며 여성 1인가구의 소득이 낮은 이유로 구직의 실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학업, 고향이 제주가 아닌 경우 비자발적 1인가구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1인가구가 되어 더욱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증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들은 식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대체로 소득이 없어 또는 건강하지 못해 활동량이 없어 1끼 또는 2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아플 때는 옆에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병원을 가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40대 후반 이후부터 갱년기를 경험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서야 갱년기임을 인식하며 그 시기를 우울하고, 화나며, 아프며, 무력하며 더 나아가 자살충동까지 느낀다고 토로함
- 40대이상 여성 1인를 대상으로 한 갱년기치료 지원과 건강이 나쁜 1인가구는 집안일과 식사, 병원을 같이 갈 도우미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제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판로개척지원 및 사업아이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노인일자리 발굴이 필요함

## 나. 낮은 주거의 질과 안전문제

- 월세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여성 1인가는 친구, 형제 등 지인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높은 연세와 월세 때문에 주거의 질이 낮은 쪽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룸과 쪽방,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변 가로등이 어두우며, 출입구에 CCTV, 집에 방범창이 없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쪽방의 경우 협소한 방, 소음, 공동화장실사용 등 주거의 질과 안전의 질이 낮았음
- 또한 여성 1인가구들은 혼자 집안에 있기 때문에 현관, 집안에서도 범죄로 부터의 공포를 느끼며 안전을 위해 주변이웃에게 자신이 혼자인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의 취약은 여성 1인가구의 고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필요하며 주거질 개선을 위해 소음과 안전에 위협이 있는 경우 주거비를 지원해 낮은 주거의 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세어하우스의 경우 서로 부딪히고 조심해야하며 불편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지만 세대별 독립공간이 주어지면 세어하우스에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거지 및 주택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주거지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고 골목에 CCTV설치 및 다세대주택의 출입구에 CCTV설치 등 안전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집수리와 관련해 다세대나 단독주택의 경우 여성 혼자 공구질, 전등교환, 집수리 등이 어려워 집수리를 잘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집안에서의 외부의 침입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업체비용지원 및 비상벨방충망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 사회관계의 어려움과 인식개선

- 여성 1인가구는 이웃으로부터 혼자산다는 무시로 인해 상처의 경험이 있고 지인은 많지만 친구는 없어 마음을 위로받고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반려

동물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의 이웃관계개선과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해 동아리모임지원과 직장인 1인가구의 프로그램참석을 위해 교육이수시간과 연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여성 1인가구들 중 학업과 취업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는 원가족으로 복귀하길 원하며 복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혼을 하고 싶어함. 대체로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는 향후 2인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자발적 1인가구들은 비혼으로 살기를 원하며 이혼/별거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인가구로서의 생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발적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를 결혼을 못해 혼자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제5장 결론 및 정책지원방안

### 1. 종합적 논의 및 정책방향 도출

#### 가.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특징

- **여성1인가구의 증가:**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형성배경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이 55.5%로 가장 많지만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20.5%)도 많아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결정하는 건강문제:**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월평균근로 소득은 ‘근로소득 없음’(34.5%)과 100만원미만(13.0%)이 47.5%로 소득이 낮지만 경제적 상황은 일반가구가 80.9%로 나타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임. 문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신체적 건강평가가 평균 2.2점으로 건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이 나빠 소득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보임. 거주기간도 길어질수록 건강도 나빠졌음. 사회활동 또한 활동하는 사회단체나 모임에 대한 조사결과 없음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단체나 모임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 거주기간이 긴 여성 1인가구는 사회관계의 고립을 경험할 수

있음.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중 일하지 않는 이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58.1%로 많아 여성 1인가구의 자립지원정책은 건강관리지원사업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4050세대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조사결과 4050세대는 건강과 주거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31.9%는 가족부양과 가족돌봄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4050세대는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평균 3.1점이지만 건강하지 않음이 31.3%로 나타남. 특히,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는 상태는 평균 2.8이하로 저소득층의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40대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가 27.0%로 가장 많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로 연립/다세대주택 거주로 안전에 취약한(주거지안전도 평균 3.2점) 것으로 나타남. 2030세대와 65세이상 노인 대상 1인가구 지원정책은 발굴되어 있지만 4050세대들은 지원정책이 없어 이들이 사각지대로 나타남
- **취미 및 건강관련 프로그램 선호:**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취미 관련 교육'이며 60세 이상은 '건강, 보건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변지역 및 집안에서의 안전문제:**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주거지안전(주변지역 폭력·범죄, 소음, 보안·도둑침입)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평균 3.3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지만 세대별로 2030세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평균 3.0점으로 더 낮게 나타나 2030세대들이 주거지에 불안을 느낀다고 볼 수 있음. 심층면접결과 주거지 불안의 요소로는 주변지역 가로등의 밝기가 어두워 불안하며 원룸과 다세대, 쪽방 출입구에 CCTV가 없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어 안전에 위험을 느낌. 문제는 여성 1인가구는 집안에서도 외부의 범죄로부터 공포를 느껴 안전을 위해주변이웃에게도 자신이 혼자인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주택공급정책:**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책은 주택공급정책(54.2%)이었으며 그 다음이 건강증진관련 정책 15.6%, 여성안전정책 13.8%, 경제적 여건 개선정책 13.5%, 여성 1인가구 인식개선 1.2%, 지역사회관계망 지원정책 1.0%, 가족내 관계망 지원 정책 0.7%순이었음

## 나. 세대별 여성 1인가구 특징

- **2030세대:** 결혼에 대해 향후 56.2%가 결혼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대 (70.5%)에서 30대가 되면 44.3%로 떨어져 청년들의 일자리 및 주거문제, 육아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지역에서도 향후 2030대의 결혼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2030세대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책은 주택공급정책으로 나타났으며 2030세대들은 '1인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집합주택 공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에 거주할 2030세대들이 많을 것으로 보임
- **4050세대:** 제주지역 4050세대의 31.9%는 '결혼, 임신, 양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으며 가족돌봄이 여성 1인가구의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050세대 여성 1인가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050세대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책은 주택공급정책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집합주택 공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임대주택입주조건 개선의 필요로 정책으로 응답함. 장기적 관점에서 4050세대를 위한 주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6080세대:** 제주지역 여성 6080세대들은 현재 30.5%가 근로를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은퇴자 혹은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42.8%로 나타나 특히 고령 여성 인구가 많은 제주지역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및 고령자에 대한 여성 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안전정책으로는 주택주변 환경개선을 선호했으며 60세이상은 위급상황시 사회적 보호장치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한 응급상황시 보호장치제공을 60세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 계층별 여성 1인가구 특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형성배경은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이 많았으며 혼자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며 좋겠다고(평균 3.9점)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동주거에 대해서도 '주택을 소유한 어른신과 청/장년이 함께 사는 주택'(13.8%)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세대교류형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주택공급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 공급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형 공동주택 공급을 기초생활가구(46.8%, 22.5%)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차상위가구:** 차상위가구의 형성배경도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10.5%로 다른 계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공동주거에 대해서는 이들 가구는 ‘여성들만 거주하는 공동주택’(25.2%)을 다른 계층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가구는 주택공급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 공급(45.3%)을 가장 선호하지만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24.3%)도 다른 계층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원정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반가구:** 일반가구의 형성배경도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도 25.0%로 다른 계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일반가구는 공동주거에 대해 ‘원룸과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는 친교 및 운동/여가를 위한 공동 공간 있는 주택’(28.4%)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가구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임대 주택 입주 조건완화(24.2%)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라. 정책방향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주택관련 제도적 지원강화
- 40대이상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건강, 주거, 가족돌봄 지원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 취약계층과 6080세대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필요
-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

## 2. 정책방향에 따른 지원방안

- 정책지원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정책지원방안>**

구분	정책지원방안
1인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룸 및 연립/다세대주택 건축규제강화</li> <li>▶ 소형주택공급 확대</li> <li>▶ 여성 1인가구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범죄예방도시조성사업 간 연계</li> <li>▶ 가족돌보미사업 추진 및 1인가구 세액공제 고려</li> <li>▶ 중장년층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1인가구 조례 제정</li> </ul>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세대를 위한 여성폭력예방교육 실시</li> <li>▶ 가족·개인 돌봄 및 문화/예술/스포츠 등 취미 관련 교육</li> </ul>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건강관리지원 및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갱년기 여성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확대</li> <li>▶ 취약계층 및 6080세대 대상 이웃만들기사업 추진</li> </ul>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서비스 지원 및 여성안전도우미지원 사업 실시</li> <li>▶ 주택개보수 지원</li> </ul>

#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3
2. 용어의 정의 및 본 연구범위 .....	5
3. 연구내용과 방법 .....	6
4.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	8

## 제2장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1. 성별·연령별 1인가구 현황 .....	13
2. 여성 1인가구 현황 .....	18
가. 소득 현황 .....	18
나. 주거 및 안전현황 .....	19
다. 건강 및 여가현황 .....	22
3. 여성 1인 가구 관련 정책 .....	24
가. 중앙정부 및 타지역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 .....	24
나.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 .....	27
4. 요약 및 시사점 .....	28

## 제3장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실태(1):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조사개요 .....	33
가. 조사대상 및 방법 .....	33
나. 조사내용 .....	34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5
2. 분석결과 .....	37
가. 생활실태 .....	37
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	73
다. 노후 및 미래대책 .....	84

라. 정책욕구 .....	87
마. 세대별 특징 .....	94
3. 요약 및 시사점 .....	112

#### 제4장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실태(2):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1. 조사개요 .....	121
가. 면접대상자 선정 및 면접기간 .....	121
나. 면접내용 .....	122
2. 분석결과 .....	123
가. 1인가구로서의 생활 .....	123
나. 높은 주거비와 안전 불안 .....	126
다. 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 .....	130
라. 미래가족계획 .....	135
마. 필요한 지원 .....	137
3. 요약 및 시사점 .....	144

#### 제5장 결론 및 정책지원방안

1. 종합적 논의 및 정책방향 도출 .....	151
2. 정책방향에 따른 정책지원방안 .....	160

## 표 목 차

<표 2-1> 전국과 제주도 가구원 수 규모 추세 (2000-2025) .....	13
<표 2-2> 시도별 1인 가구의 변화 .....	14
<표 2-3> 전국 성별 1인 가구의 추이(2005-2035) .....	15
<표 2-4> 제주도 성별 1인가구 추이(2005-2017) .....	15
<표 2-5> 시도별 성별·연령별 1인가구수(2017) .....	16
<표 2-6> 1인가구 소득과 연령대별 성별 1인 가구 소득 .....	18
<표 2-7> 1인가구의 소득구조: 성별 비교 .....	19
<표 2-8> 성별 1인가구 주택유형 .....	20
<표 2-9>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주거선택 기준 .....	21
<표 2-10> 중앙 및 각 지자체 1인가구 정책 현황 .....	28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20세 이상 여성 1인가구 지역별·연령별 모집단 현황 .....	33
<표 3-2> 조사표본 .....	33
<표 3-3>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	34
<표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36
<표 3-5> 여성 1인가구 거주 기간 .....	38
<표 3-6> 여성 1인가구 거주 이유 .....	39
<표 3-7> 여성 1인 가구 주요한 관심사(1순위) .....	40
<표 3-8> 여성 1인가구의 어려운 점(1순위) .....	40
<표 3-9>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편견·무시·차별을 당한 경험(복수응답) .....	41
<표 3-10> 일을 하는 여부 .....	41
<표 3-11>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42
<표 3-12> 직업 .....	43
<표 3-13> 고용형태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	44
<표 3-14> 월평균 근로소득 .....	45
<표 3-15> 경력단절 경험 .....	46
<표 3-16> 월평균 생활비 .....	47
<표 3-17> 생활비 마련 방법 .....	48
<표 3-18> 부채여부 .....	49

<표 3-19> 부채이유 .....	50
<표 3-20> 경제적 상황 .....	51
<표 3-21> 주거 점유형태 .....	52
<표 3-22> 연세 또는 월세 비중 .....	53
<표 3-23> 연세 지출 .....	54
<표 3-24> 월세 지출 .....	55
<표 3-25> 1인 가구 주택유형 .....	56
<표 3-26> 주거지 선택 이유 .....	56
<표 3-27> 1인 여성가구 주택 구할 때 어려운 점 .....	57
<표 3-28> 희망 가구 형태 .....	58
<표 3-29> 주거지 안전도 .....	59
<표 3-30> 주택 및 주변환경 안전도 .....	61
<표 3-31> 1인 여성가구 공동주택 선호 유형 .....	62
<표 3-32> 여성 1인가구 대비 안전도에 대한 인식 .....	63
<표 3-33> 범죄예방 및 대처교육 경험 및 요구도 .....	64
<표 3-34> 건강상태 .....	65
<표 3-35> 정신건강상태 .....	66
<표 3-36> 운동정도 .....	67
<표 3-37> 운동하지 않는 이유 .....	68
<표 3-38> 여가를 같이 보내는 사람 .....	68
<표 3-39> 여가시간(평일) .....	69
<표 3-40> 여가시간(주말) .....	69
<표 3-41> 여가시간 충분성 .....	70
<표 3-42> 여가활동 부족 이유(1순위) .....	70
<표 3-43> 교육프로그램 참여 .....	71
<표 3-44> 교육받은 기관 .....	71
<표 3-45> 향후 원하는 참여교육 프로그램 (1순위) .....	72
<표 3-46> 편한 친구 유무 .....	73
<표 3-47> 편한 친구 규모 .....	74
<표 3-48> 고민상담 대상 .....	75

<표 3-49> 가족 돌봄 여부 .....	76
<표 3-50> 돌보는 가족 .....	77
<표 3-51> 가족을 돌보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수용도 .....	78
<표 3-52> 반려동물 키우고 싶은 이유 .....	78
<표 3-53> 이웃 중요도 .....	79
<표 3-54> 이웃을 사귀는 방법 .....	80
<표 3-55> 도움요청 이웃과 잦은 왕래 이웃 .....	81
<표 3-56> 협동이웃 .....	82
<표 3-57> 활동 사회단체/모임(중복응답) .....	83
<표 3-58> 향후 계획 .....	84
<표 3-59> 노후생활 전망(경제적 상황) .....	84
<표 3-60> 노후생활 전망(정서적 상황) .....	85
<표 3-61> 노후생활 전망(건강 상태) .....	85
<표 3-62> 노후생활 전망(사회적 관계) .....	86
<표 3-63> 노후생활 전망(주거 상황) .....	87
<표 3-64> 여성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1순위) .....	88
<표 3-65> 주택 공급 정책(1순위) .....	89
<표 3-66> 여성안전 정책(1순위) .....	90
<표 3-67> 경제적 지원정책(1순위) .....	91
<표 3-68> 건강지원 정책(1순위) .....	92
<표 3-69> 사회지지체계 지원 정책(1순위) .....	93
<표 3-70>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경험 .....	94
<표 3-71>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이유 .....	95
<표 3-72> 향후 결혼 생각 .....	95
<표 3-73>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이유로 직장 사직한 경험 .....	96
<표 3-74> 직장 이직횟수 .....	97
<표 3-75> 필요한 청년일자리 정책(1순위) .....	97
<표 3-76> 필요한 청년 주택정책(1순위) .....	98
<표 3-77> 4050세대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경험 .....	99
<표 3-78> 1인 여성가구 다시 함께 산 이유 .....	99

<표 3-79> 가족 부양 및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	100
<표 3-80> 직장 이직횟수 .....	100
<표 3-81> 구직시 어려움(1순위) .....	101
<표 3-82>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	101
<표 3-83> 일자리 사업 참여 이유 .....	102
<표 3-84>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도 .....	102
<표 3-85> 일자리 사업 미참여 이유(1순위) .....	103
<표 3-86> 중장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1순위) .....	103
<표 3-87>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건강음료지원사업 인지도 .....	104
<표 3-88> 필요한 건강 및 안전 정책 .....	104
<표 3-89> 오래 종사한 직업 .....	105
<표 3-90> 근로여부 .....	106
<표 3-91> 일하지 않은 이유 .....	106
<표 3-92> 의료보건기관 이용시 불편한 점(1순위) .....	107
<표 3-93> 사회참여 활동시 어려움(1순위) .....	108
<표 3-94> 노인여가시설 이용 .....	108
<표 3-95> 최근 1년 이내 노인관련 정책 이용 경험(중복응답) .....	109
<표 3-96> 정보/소식 취득 경로 .....	110
<표 3-97> 여성노인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 .....	111
<표 3-98> 노인관련 정책 인지도 .....	112
<표 4-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121
<표 4-2> 심층면접 질문내용 .....	122

##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절차 .....	7
<그림 2-1> 제주지역 남녀 1인가구 주택유형 .....	22
<그림 2-2> 제주지역 남녀 1인가구 건강상태 .....	24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2. 용어의 정의 및 본 연구범위
3. 연구내용과 방법
4. 선행연구검토 및 시사점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이 4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바뀌고 있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시도편:2015~2045」(2017)자료에 의하면 2017년 네가구 중 한가구는 1인가구이며 2025년에는 세가구 중 한가구가 1인가구로 앞으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족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됨
- 1인가구의 증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독일 등은 1인 가구가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32.4%), 한국(23.9%), 타이완(22.0%) 등 순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OECD, 2011)
- 1인가구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정보사회의 진전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심화, 청년 세대의 결혼관 변화 및 초혼 연령 상승, 노동시장의 경쟁구조에 인한 대도시 중심의 취업 기회, 가족 재생산비용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독거가구 및 혼자 생활하는 기간의 증가,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sup>5)</sup> 등의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존재함. 또한 1인가구 역시 독거노인가구뿐만 아니라 청년 1인가구, 비혼가구, 이혼·별거 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를 초래하며, 가구구조 변화과정에서 단절과 고립, 사회통합의 제약 등 기존과는 다른 사회적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 그동안 1인가구 급증에 대응하고자 중앙정부, 각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고 관련연구를 수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2018.1.16, 일부개정)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제15조)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기본조례」(2016.3.24)를 제정했으며 「서울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장진희 외, 2017)을 수행함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6.11.2.)를 제정했으며

5) 가치관 변화란 결혼해서 노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살아가다가 노년에 성인 자녀 부부 및 손자녀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을 유복한 삶이라 여겨왔던 전통적인 가치관에 균열이 생긴 것을 의미(이여봉, 2017)

-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문정희 외, 2017)를 수행함
- 세종특별시는 「세종특별자치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7.9.29.)를 제정함
  - 그 외 경기도<sup>6)</sup>, 인천광역시<sup>7)</sup>, 전라북도<sup>8)</sup>, 제주특별자치도<sup>9)</sup>는 1인가구 전반에 대한 조례보다는 행정시 또는 특정 연령층만 포함되는 노인·장년층 고독사예방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함
-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1인가구가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가족정책의 대응과 변화는 미흡함을 지적함
- 1인가구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열악한 거주환경, 정신건강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노출됨(문정희 외, 2017; 이민홍 외, 2015; 하정화 외, 2014; 대전발전연구원, 2014)
- 20·30대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40·50대 이혼·별거에 따른 단독가구 증가, 60대 이상 고령화에 따른 사별, 이혼의 증가 등(홍승아 외, 2017; 장진희 외, 2016, 이민홍 외, 2015) 1인가구들의 형성요인, 연령, 젠더, 계층 등에 따라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인가구 특성별 대응방안 및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홍승아 외, 2017; 문정희 외, 2017)
- 현재 1인가구의 구성비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남성 1인가구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 2015년 전국 1인가구 중 여성 1인가구는 50.2%, 남성 1인가구는 49.8%로 여성이 다소 많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여성 1인가구가 50.5%, 남성 1인가구는 49.5%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전국보다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2017년 1인가구의 수는 68,738가구로 전체가구의 27.8%임. 네가구 중 한가구는 1인가구이며 2025년에는 31.3%로 추계(통계청, 2017)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1인가구는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제

---

6) 「성남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2017.11.20.)

7)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2018.1.5.)

8)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2017.12.5.)

9)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2017.12.29.)

주지역의 경우 1인가구 관련 연구가 없으며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여성 1인가구는 빈곤과 범죄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조사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특성으로 노인여성 1인가구가 많아 세대별로 노인, 소득별로 저소득층에 집중된 경향이 많음. 최근 여성 청년실업 및 이혼, 별거 등 청년,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증가, 또한 계층별 여성 1인가구의 욕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경제, 사회적 고립, 주거, 건강 등 생활실태와 정책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해 세대별, 소득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 1인가구의 일자리, 사회관계망, 건강, 주거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함

## 2. 용어의 정의 및 본 연구범위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는 1인가구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에서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를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봄(통계청 홈페이지, 2018.9.5.)
- 따라서 1인가구를 말함에 있어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현재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이해할 수 있음(홍승아 외, 2017: 9). 그러나 이준우 외(2014: 30)는 1인가구를 정의할 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따로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해야함을 강조함
- 본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를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1인가구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함
- 최근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이주’를 꿈꾸며 한달살이, 6개월살이 등 장기체류 중인 1인가구가 많음.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공간적 연구범위를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최소한 1년이상<sup>10)</sup> 거주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로 한정함

10)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연구범위를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로 한정하고 있음

### 3. 연구내용과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가. 연구내용

- 여성 1인가구와 관련한 기초자료 및 관련 정책 분석
  - 통계 및 문헌, 국내·외 중앙정부 및 타시도·제주지역 관련정책 분석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및 분석
  - 여성 1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 연령별·소득별 경제활동, 결혼 및 가족관계, 가족돌봄부담, 사회적 관계, 주거실태, 건강과 여가상태, 노후대책, 정책지원욕구 등 조사 및 분석
- 세대별/소득별 여성 1인가구 지원방안 제안

####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여성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여성 1인가구 관련 통계자료,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현황 등 분석
  - 관련 법,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 분석
- 현장 전문가 및 당사자 간담회
  - 제주지역 가족·일자리·건강 관련기관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 여성 1인가구 등 의견수렴
  - 내용 : 연구범위, 설문지(안)검토, 조사결과 및 지원방안 논의
  - 일시 : 간담회 회의 (2018. 6.7 & 9.19)(2회)
-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
  - 내용 : 연구방향,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지(안) 자문, 조사결과 및 지원방안 자문
  - 일시 : 자문회의 (2018. 4.25 & 9.18)(2회), 설문지(안) 의견수렴(2018. 6.1~6.17)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여성 1인가구(400명)

- 조사 내용 : 형성배경, 생활만족도,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 가족돌봄 및 관계, 경제적 특징 및 노후 준비, 주거환경 및 안전, 건강과 여가, 사회적 관계망, 정책 인지도 및 정책지원 욕구 등

- 조사기간 : 7.6 ~ 7.27

○ 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조사내용 : 혼자 거주하게 된 이유, 1인가구의 장·단점, 경제·주거·안전·건강·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향후 계획, 희망하는 사항, 서비스이용 경험 및 정책욕구 등

- 조사기간 : 4.17 ~ 7.17

○ 본 연구의 연구절차를 제시하면<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절차

1단계	▷ 연구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자료수집 및 문헌검토		▷ 연구 착수 보고
	▷ 자문회의(1차) ▷ 1차 간담회		▷ 선행연구 검토 ▷ 중앙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 수집 검토 ▷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 연구방법 점검, 설문지(안) 논의 ▷ 현장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수렴(2018. 6.7)
2단계	▷ 설문지설계	↔	▷ 설문지 구성, 설문 내용, 문항 수 등 최종 설문지 작성
	▷ 설문지(안)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수렴(2018. 6.1~6.17) ▷ 담당부서 의견수렴(2018. 6.1~6.17) ▷ 사전조사 실시(2018. 5.25~5.31)
3단계	▷ 생활실태조사(설문 조사)	↔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조사 실시」 (2018. 7.6~7.27)
	▷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조사(당사자 인터뷰)		▷ 당사자 인터뷰(2018. 4.17~7.17)
4단계	▷ 자문회의(2차)	↔	▷ 전문가 의견 수렴(2018. 9.18)
	▷ 2차 간담회		▷ 현장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수렴(2018. 9.19)
	▷ 지원방안 마련		▷ 연구결과에 기초한 지원방안 자문

#### 4.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 국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최근 정책연구들을 살펴보면, 1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장진희 외, 2017; 홍승아 외, 2017; 문정희 외, 2017; 주혜진 외, 2014)와 1인가구의 세대별, 성별 특성에 주목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연구(장진희 외, 2016; 박건 외, 2016; 김영정 외, 2016)들이 있음
- 국내 1인가구 관련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주거문제(김행신 외, 1998; 김현진 외, 2000) 및 자기방임실태(영양실조, 위생, 청결, 약물남용, 자살생각 등)(정경희 외, 2012; 이민홍 외, 2015)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음
- 2000년대 이후로는 1인가구의 증가를 개인주의 가치관의 심화, 결혼관 변화, 만혼화, 저출산, 고령화 등에 의한 사회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보고 연구대상을 독거노인 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상으로 확대해 1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장진희 외(2017)의 연구는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사회구조의 변화로 보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경제상태, 주거상태, 안전상태, 건강상태, 여가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 종합적인 이해를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있음
- 또한 1인가구의 문제를 가족정책의 수요에 주목하면서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안한 연구도 있음. 홍승아 외(2017)의 연구는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1인가구의 결혼관, 가족가치관, 가족돌봄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경제, 가족,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해 1인가구의 지원 방향을 제안하고 있음
- 지자체별로도 해당지역의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음. 문정희 외(2017)는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인가구 생활실태를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세대별로 나누어 경제, 주거,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또한,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계획을 경제, 주거, 생활여건개선 등에서 제시하고 있음. 주혜진 외(2014)는 대전지역의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인구특성, 가족, 주거, 경제활동, 교육, 사회자본, 문화와 일상생활, 교통, 노인 및 노후생활로 나누어 기초자료를 구축했음
- 이렇게 1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 연구들은 1인가구가 보편적 가족유형으

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의 대응과 변화의 미흡함을 지적함. 그러나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열악한 거주환경, 정신건강 등 이들 가구의 종합적 조사의 필요성과 주요 정책이슈들을 발굴했지만 현재 1인가구 관련 정책은 노인정책 또는 기초수급자 지원정책에 포함되어 1인가구의 성별, 세대별, 소득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한편,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특성과 욕구에 주목한 연구가 있음. 여성 1인가구의 세대별 특성에 주목한 장진희 외(2016)의 연구는 청년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분석하면서 청년여성 1인가구의 고용불안정, 주거 및 안전지원방안마련을 제안하고 있음
- 박건 외(2016)는 중장년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상태 등으로 한정해 조사를 했으며 중장년여성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건강, 안전, 일자리, 주거, 사회적 네트워크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김영정 외(2016)는 60세 이상 노년여성 1인가구에 대한 생계유지, 노후준비, 관계망, 차별경험, 여가활동 실태를 분석해 주거환경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함
-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연구들은 1인가구의 증가를 사회구조적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파악하면서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음. 또한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가구의 젠더와 세대 특성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각기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 특성별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도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연구대상을 여성과 세대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최근 여성 청년실업 및 이혼, 별거 등 청년,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증가 등 청년 및 중장년층 여성 1인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여성 1인가구들은 남성 1인가구보다 빈곤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제주지역의 경우 노인층에 여성 1인가구가 많아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조사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 특히 여성 1인가구중 저소득층은 더욱 빈곤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에 주목하면서 세대별, 소득별 특성을 반영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문제와 욕구를 이해하고 각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제주지역 여성1인가구 현황 및 정책

1. 성별 · 연령별 1인가구 현황
2. 여성 1인가구 현황
3.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
4. 요약 및 시사점



## 1. 성별·연령별 1인가구 현황

-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5년 27.2%로 급증하였으며, 2025년에는 31.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반대로 2000년 31.1%에 이르렀던 4인가구 비율은 2015년 18.8%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13.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제주도의 경우도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 16.9%, 2015년 26.6%, 2025년 3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반면 4인가구는 2000년 26.9%, 2015년 17.4%, 2025년 12.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2-1>참조)
- 통계청 2017년 장래가구추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가구형태는 1~2인의 소규모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의 가구는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
  -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독일 등은 1인 가구가 전체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32.4%), 한국(23.9%), 타이완(22.0%) 등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OECD, 2011)
-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를 초래하며, 가구구조 변화과정에서 단절과 고립, 사회통합의 제약 등 기존과는 다른 사회적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 한국사회의 가족변동은 2015년 1인 또는 2인 소규모 가구가 53.3%에서 2025년 1~2인 소규모 가구는 62.4%로 나타나 앞으로도 1인 또는 2인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미래사회의 보편적 양상이 될 것임

<표 2-1> 전국과 제주도 가구원 수 규모 추세 (2000~2025)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전국	제주도										
전체	14,312 (100.0)	160 (100.0)	15,887 (100.0)	180 (100.0)	17,339 (100.0)	198 (100.0)	19,111 (100.0)	218 (100.0)	20,174 (100.0)	258 (100.0)	21,014 (100.0)	288 (100.0)
1인	2,224 (15.5)	27 (16.9)	3,171 (20.0)	38 (21.1)	4,142 (23.9)	47 (23.7)	5,203 (27.2)	58 (26.6)	6,068 (30.1)	76 (29.5)	6,701 (31.9)	90 (31.3)
2인	2,224 (15.5)	31 (19.4)	3,171 (20.0)	40 (22.2)	4,142 (23.9)	49 (24.7)	4,994 (26.1)	58 (26.6)	5,713 (28.3)	73 (28.3)	6,407 (30.5)	87 (30.2)

3인	2,987 (20.9)	31 (19.4)	3,325 (20.9)	35 (19.4)	3,696 (21.3)	38 (19.2)	4,101 (21.5)	43 (19.7)	4,282 (21.2)	51 (19.8)	4,414 (21.0)	57 (19.8)
4인	4,447 (31.1)	43 (26.9)	4,289 (27.0)	43 (23.9)	3,898 (22.5)	41 (20.7)	3,588 (18.8)	38 (17.4)	3,142 (15.6)	38 (14.7)	2,730 (13.0)	37 (12.8)
5인 이상	1,922 (13.4)	28 (17.5)	1,582 (10.0)	23 (12.8)	1,398 (8.1)	23 (11.6)	1,225 (6.4)	21 (9.6)	969 (4.8)	19 (7.4)	762 (3.6)	17 (5.9)

출처: 통계청 2017 장래가구추계(2000-2025)

-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시도편(2010-2030년)을 살펴보면, 2030년이 되면 제주도 1인 가구비율이 가장 높아질 전망이고, 2030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표2-2>참조)

<표 2-2> 시도별 1인 가구의 변화

(단위: %)

지역	1인가구 비중(%)				
	2010	2015	2020	2025	2030
전국	23.6	26.3	28.5	29.9	30.9
서울	23.5	25.1	26.3	26.7	26.6
부산	22.9	26.1	28.7	30.6	32.4
대구	21.5	24.1	26.3	27.8	29.1
인천	20.6	23.1	25.1	26.4	27.6
광주	22.5	25.5	28.1	30.0	31.6
대전	20.4	28.1	30.7	32.4	33.6
울산	19.6	21.3	22.6	23.3	23.7
경기	20.4	22.9	25.1	26.7	27.7
강원	28.1	31.5	34.3	35.7	36.7
충북	27.8	31.6	34.7	36.7	38.6
충남	27.4	30.9	33.9	35.9	37.5
전북	26.3	29.7	32.5	34.4	36.2
전남	28.7	32.4	35.6	38.1	40.5
경북	29.1	32.8	35.8	37.9	39.9
경남	25.1	28.1	30.7	32.6	34.3
제주	23.7	26.6	29.5	31.3	34.4

출처: 통계청, 2017,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0 ~ 2030

-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18)에 나타난 1인가구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2005년부터 2035년까지 여성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175만3천가구에서 388만 2천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남성 1인 가구도 141만8천가구에서 421만6천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성별구성비율은 2017년이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3〉 전국 성별 1인 가구 추이(2005~2035)

(단위: 천가구, %)

전국(년)	총 1인가구	여성	남성
2005	3,171	1,753(55.5%)	1,418(44.7%)
2010	4,142	2,218(53.5%)	1,924(46.5%)
2015	5,203	2,610(50.2%)	2,593(49.8%)
2016	5,398	2,722(50.4%)	2,676(49.6%)
2017	5,562	2,766(49.7%)	2,797(50.3%)
2018	5,739	2,843(49.5%)	2,896(50.5%)
2025	6,701	3,234(48.3%)	3,466(51.7%)
2035	7,635	3,650(47.8%)	3,985(52.2%)

출처: 통계청(2018)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7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2017)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7)에 나타난 제주도 1인가구의 성별구성비를 재구성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성별추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 1인가구는 23,764가구에서 33,517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남성 1인가구도 14,747가구에서 35,222가구로 증가함. 제주지역 남녀 1인가구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인가구 성별구성비를 살펴보면 2015년이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 제주도 성별 1인가구 추이(2005~2017)

(단위: 가구, %)

제주도(년)	총1인가구		여성		남성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2005	38,511	100.0	23,764	61.7	14,747	38.3
2010	44,996	100.0	26,202	58.2	18,794	41.8
2015	58,446	100.0	29,500	50.5	28,946	49.5
2016	62,841	100.0	31,303	49.8	31,538	50.2
2017	68,738	100.0	33,517	48.8	35,222	51.2

자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2017)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7)에서 재구성

- 한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7)에 나타난 시도별 성별 연령별 1인가구수를 살펴보면, 70세 이상 고령자 가구 구성비는 전남이 34.2%로 가장 높고, 전북(26.9%), 경북(26.1%), 경남(23.2%), 강원(22.2%), 충남(21.6%), 충북(20.5%), 부산(19.7%), 대구(18.3%), 제주도(16.4%) 순으로 제주도는 중위권으로 나타남. 70세 이상 고령자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시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 시도별 성별·연령별 1인 가구 수(2017)

(단위: 명, %)

지역	성별		연령별					
			29세 이하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전국	전체	5,618,677(100.0)	1,028,490(18.2)	968,461(17.2)	862,810(15.4)	947,726(16.9)	805,432(14.3)	1,011,399(18.0)
	남성	2,791,849(100.0)	546,572(19.6)	621,086(22.2)	545,148(19.5)	523,194(18.7)	332,096(11.9)	223,753(8.0)
	여성	2,826,828(100.0)	476,277(16.8)	347,375(12.3)	317,662(11.2)	424,532(15.0)	473,336(16.7)	787,646(27.9)
서울	전체	1,180,540(100.0)	297,209(25.2)	265,742(22.5)	175,037(14.8)	157,452(13.3)	137,437(11.6)	147,663(12.5)
	남성	561,524(100.0)	134,853(24.0)	149,423(26.6)	102,078(18.2)	85,941(15.3)	54,362(9.7)	34,867(6.2)
	여성	619,016(100.0)	162,356(26.2)	116,319(18.8)	72,959(11.8)	71,511(11.6)	83,075(13.4)	112,796(18.2)
부산	전체	388,899(100.0)	67,791(17.4)	53,097(13.7)	51,590(13.3)	67,674(17.4)	72,262(18.6)	76,485(19.7)
	남성	176,932(100.0)	33,926(19.2)	32,455(18.3)	30,912(17.5)	35,336(20.0)	27,438(15.5)	16,865(9.5)
	여성	211,967(100.0)	33,865(16.0)	20,642(9.7)	20,678(9.8)	32,338(15.3)	44,824(21.1)	59,620(28.1)
대구	전체	259,525(100.0)	43,172(16.6)	38,478(14.8)	39,988(15.4)	47,515(18.3)	42,797(16.5)	47,575(18.3)
	남성	119,917(100.0)	22,221(18.5)	24,199(20.2)	24,247(20.2)	24,151(20.1)	15,451(12.9)	9,648(8.0)
	여성	139,608(100.0)	20,951(15.0)	14,279(10.2)	15,741(11.3)	23,364(16.7)	27,346(19.6)	37,927(27.2)
인천	전체	266,434(100.0)	38,267(14.4)	47,065(17.7)	47,728(17.9)	51,934(19.5)	39,426(14.8)	42,014(15.8)
	남성	140,100(100.0)	21,728(15.5)	31,343(22.4)	31,138(22.2)	29,391(21.0)	16,739(11.9)	9,761(7.0)
	여성	126,334(100.0)	16,539(13.1)	15,722(12.4)	16,590(13.1)	22,543(17.8)	22,687(18.0)	32,253(25.5)
광주	전체	171,424(100.0)	35,401(20.7)	32,280(18.8)	28,350(16.5)	28,420(16.6)	21,670(12.6)	25,303(14.8)
	남성	86,237(100.0)	17,879(20.7)	20,739(13.5)	18,438(21.4)	15,076(17.5)	8,614(10.0)	5,491(6.4)
	여성	85,187(100.0)	17,522(20.6)	11,541(13.5)	9,912(11.6)	13,344(15.7)	13,056(15.3)	19,812(23.3)
대전	전체	188,136(100.0)	56,137(29.8)	32,310(17.2)	26,270(14.0)	27,657(14.7)	22,424(11.9)	23,338(12.4)
	남성	96,469(100.0)	30,605(31.7)	20,476(21.2)	16,218(16.8)	14,613(15.1)	8,981(9.3)	5,576(5.8)
	여성	91,667(100.0)	25,532(27.9)	11,834(12.9)	10,052(11.0)	13,044(14.2)	6,074(6.6)	17,762(19.4)
울산	전체	107,497(100.0)	15,082(14.0)	20,332(18.9)	19,852(18.5)	21,512(20.0)	16,673(15.5)	14,046(13.1)
	남성	60,245(100.0)	9,858(16.4)	14,937(24.8)	13,320(22.1)	11,939(19.8)	6,974(11.6)	3,217(5.3)
	여성	47,252(100.0)	5,224(11.1)	5,395(11.4)	6,532(13.8)	9,573(20.3)	9,699(20.5)	10,829(22.9)
경기	전체	1,124,541(100.0)	171,652(15.3)	222,343(19.8)	208,367(18.5)	206,872(18.4)	152,195(13.5)	163,112(14.5)
	남성	607,758(100.0)	98,825(16.3)	151,321(24.9)	135,075(22.2)	117,837(19.4)	64,529(10.6)	40,171(6.6)
	여성	516,783(100.0)	72,827(14.1)	71,022(13.7)	73,292(14.2)	89,035(17.2)	87,666(17.0)	122,941(23.8)
강원	전체	199,645(100.0)	36,720(18.4)	22,143(11.1)	25,927(13.0)	37,972(19.0)	32,507(16.3)	44,376(22.2)
	남성	100,677(100.0)	23,678(23.5)	14,368(14.3)	16,496(16.4)	21,185(21.0)	14,507(14.4)	10,443(10.4)
	여성	98,968(100.0)	13,042(13.2)	7,775(7.9)	9,431(9.5)	16,787(17.0)	18,000(18.2)	33,933(34.3)
충북	전체	195,186(100.0)	37,532(19.2)	27,894(14.3)	27,183(13.9)	34,356(17.6)	28,136(14.4)	40,085(20.5)
	남성	99,354(100.0)	22,662(22.8)	18,736(18.9)	17,428(17.5)	19,026(19.1)	12,188(12.3)	9,314(9.4)
	여성	95,832(100.0)	14,870(15.5)	9,158(9.6)	9,755(10.2)	15,330(16.0)	15,948(16.6)	30,771(32.1)
충남	전체	259,727(100.0)	48,088(18.5)	41,450(16.0)	35,642(13.7)	42,635(16.4)	35,769(13.8)	56,143(21.6)
	남성	134,104(100.0)	27,137(20.2)	29,923(22.3)	24,057(17.9)	24,516(18.3)	15,731(11.7)	12,740(9.5)
	여성	125,623(100.0)	20,951(16.7)	11,527(9.2)	11,585(9.2)	18,119(14.4)	20,038(16.0)	43,403(34.6)
전북	전체	227,600(100.0)	37,431(16.4)	26,631(11.7)	29,450(12.9)	37,307(16.4)	35,639(15.7)	61,142(26.9)
	남성	107,095(100.0)	21,731(20.3)	17,748(16.6)	19,354(18.1)	20,826(19.4)	15,187(14.2)	12,249(11.4)
	여성	120,505(100.0)	15,700(13.0)	8,883(7.4)	10,096(8.4)	16,481(13.7)	20,452(17.0)	48,893(40.6)
전남	전체	232,022(100.0)	22,584(9.7)	23,621(10.2)	28,514(12.3)	40,018(17.2)	37,858(16.3)	79,427(34.2)
	남성	104,116(100.0)	13,302(12.8)	16,328(15.7)	19,312(18.5)	23,225(22.3)	16,727(16.1)	15,222(14.6)
	여성	127,906(100.0)	9,282(7.3)	7,293(5.7)	9,202(7.2)	16,793(13.1)	21,131(16.5)	64,205(50.2)

지역	성별		연령별					
			29세 이하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경북	전체	346,998(100.0)	54,126(15.6)	43,858(12.6)	43,835(12.6)	58,594(16.9)	56,048(16.2)	90,537(26.1)
	남성	164,591(100.0)	32,360(19.7)	30,276(18.4)	28,402(17.3)	31,999(19.4)	23,262(14.1)	18,292(11.1)
	여성	182,407(100.0)	21,766(11.9)	13,582(7.4)	15,433(8.5)	26,595(14.6)	32,786(18.0)	72,245(39.6)
경남	전체	370,293(100.0)	41,899(11.3)	53,805(14.5)	57,007(15.4)	69,521(18.8)	62,169(16.8)	85,892(23.2)
	남성	180,776(100.0)	25,076(13.9)	37,958(21.0)	37,528(20.8)	37,777(20.9)	25,817(14.3)	16,620(9.2)
	여성	189,517(100.0)	16,823(8.9)	15,847(8.4)	19,479(10.3)	31,744(16.7)	36,352(19.2)	69,272(36.6)
세종	전체	31,472(100.0)	11,187(35.5)	6,374(20.3)	4,439(14.1)	3,889(12.4)	2,602(8.3)	2,981(9.5)
	남성	16,733(100.0)	6,194(37.0)	4,023(24.0)	2,616(15.6)	2,128(12.7)	1,095(6.5)	677(4.0)
	여성	14,739(100.0)	6,822(46.3)	2,351(16.0)	1,823(12.4)	1,761(11.9)	1,507(10.2)	2,304(15.6)
제주	전체	68,738(100.0)	8,571(12.5)	11,038(16.1)	13,631(19.8)	14,398(20.9)	9,820(14.3)	11,280(16.4)
	남성	35,221(100.0)	4,537(12.9)	6,833(19.4)	8,529(24.2)	8,228(23.4)	4,494(12.8)	2,600(7.4)
	여성	33,517(100.0)	4,034(12.0)	4,205(12.5)	5,102(15.2)	6,170(18.4)	5,326(15.9)	8,680(25.9)

출처: 통계청(2017)

-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이지만 우리의 각종 세제 혜택, 사회보장 혜택, 주거혜택, 소비시장 등 사회의 제반 시스템이 일반가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1인가구가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1인가구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 안전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큼
- 문제는 1인 가구에 대한 개념규정이 법적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혼자 생활하는 가구로 정의 되고 있어 그 범위에 속한 집단이 동질적이기 보다는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다는 것임
- 제주지역의 경우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장년층의 고독사가 올 한해만 서귀포시에서 4건이 발생하는 등 장년층의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제주신보, 2017.09.05일자). 노인인 경우 독거노인원스톱센터에서 매년 독거노인 실태조사, 주 1회방문, 주 2회 안부 전화, 생활교육,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기본적인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도 필요함

## 2. 여성 1인가구 현황

### 가. 소득현황

- 문제는 여성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유독 낮다는 점임. 2016년 기준 여성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 56.9%로, 남성 1인 가구의 100만원 미만의 비율 (29.5%)보다 약 1.9배 높음
-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남성 1인 가구는 소득구간별로 비슷한 비율의 분포를 보여서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높음

〈표 2-6〉 1인가구 소득과 연령대별 성별 1인 가구 소득

(단위: %)

월가구소득	2016년						
	여성 1인가구	남성 1인가구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00만원 미만	56.9%	29.5%	34.8%	11.7%	17.0%	36.0%	80.2%
100~200만원 미만	25.7%	25.7%	46.8	36.7%	41.6%	35.0%	15.9%
200~300만원 미만	9.5%	24.3%	14.7	29.5%	20.8%	11.7%	3.8%
300만원 이상	7.9%	20.5	3.7	23.1%	20.6%	17.3%	0.1%

출처: 여성가족부, 2017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여성 1인 가구 중에서 소득이 높지 않은 60세 이상의 경우 100만원 미만 소득이 80.2%를 차지하고 있음
- 1인가구는 다인가구 대비 더 높은 비율로 경제적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적자가구에 포함되며(신민경, 2014; 반정호, 2012; 김성숙, 2011) 특히 1인가구 중에서도 여성 1인가구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집단으로 나타남
- 통계청 「2006년 및 2016년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남성 1인가구의 경우 2006년과 2016년 모두 근로소득의 비율이 81%였으나, 여성 1인가구는 62~63% 수준에 불과함. 반면 여성 1인가구의 경우 2006년과 2016년 사업소득의 비중이 14.9~17.4%로 증가했으며 남성 1인가구는 2006년 9.0%에서 2016년 11.4%로 여성 1인가구보다 낮음을 알 수 있음. 성별 소득구조 비교를 통해 여성 1인가구들의 근로소득이 남성 1인가구보다 낮고 사업소득은 남성 1인가구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7〉 1인가구의 소득구조: 성별 비교

(단위: 천원 총소득 대비 %)

구분	2006년		2016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총소득	1,831(100.0)	1,287(100.0)	2,527(100.0)	2,338(100.0)
경상소득	1,791(97.8)	1,212(94.2)	2,486(98.4)	2,284(97.7)
사업소득	165(9.0)	192(14.9)	288(11.4)	407(17.4)
근로소득	1,488(81.3)	803(62.4)	2,046(81.0)	1,484(63.5)
이전소득	136(7.4)	212(16.5)	149(5.9)	377(16.1)
-공적이전소득	18(1.0)	15(1.2)	23(0.9)	46(2.0)
-사전이전소득	113(6.2)	187(14.5)	119(4.7)	317(13.6)
-기타이전소득	5(0.3)	9(0.7)	5(0.2)	14(0.6)

출처: 통계청, 2006년 및 2016년 가계동향조사

- 2019년 제주도내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실태 생계비 조사 연구<sup>11)</sup>에서 제주지역의 생활임금수준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1인 가구가 한 달간 지출한 생계비를 분석한 결과 도내 1인 가구의 월 지출액은 214만4,000원, 비혼 1인 가구가 사용한 돈은 207만 4000원 수준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1인 가구는 한 달 간 225만 7000원을, 여성 1인가구는 185만원 8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제주일보, 2018.8.2.일자)
- 이는 시간당 8,900원, 한 달간 186만원 가량 지급되는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최대 40만원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행 생활임금 수준으로 1인가구의 소비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나. 주거 및 안전현황

- 최근에는 여성 1인 가구의 주거문제가 주거복지정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
- 주거관련하여 1인가구는 높은 주거비용, 소형주택의 공급부족, 불안정한 주거(배은경, 2010) 등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은 여성 1인가구들은 주거환경이나 안전의 문제를 우선 고려하기 전에 주거비 부담으로 고시원 등 저렴한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안전 위협에 노출됨. 현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국민주택기금, 보금자리 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30

11)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수행 중인 연구임

대 여성은 우선순위와 자격조건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며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도 35세 연령 제한으로 인해 배제되고 있음<sup>12)</sup>

- 홍승아 외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2017)에서는 1인 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유형이 원룸(다세대주택) 42.2%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아파트(27.5%), 단독주택(17.9%), 오피스텔(11.0%)순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오피스텔이 남성 1인가구보다 많으며, 남성 1인가구는 원룸, 일반아파트, 단독주택, 고시원이 여성 1인가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8〉 성별 1인가구 주택유형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원룸	일반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전체	2,000	42.2	27.5	17.9	11.0	0.9	0.6
남성	1,256	43.2	27.8	18.0	9.2	1.3	0.6
여성	744	40.5	26.9	17.7	14.0	0.3	0.7

출처: 홍승아 외 (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재인용

- 2030 여성 1인 가구 생활실태를 연구한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2016)에서 청년여성 1인가구들은 연립/다세대(31.9%), 오피스텔(29.0%), 고시원/원룸(21.5%), 아파트(13.0%)순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이하 청년여성 1인 가구의 42.1%는 고시원/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주거공간으로 인해 주거불안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과 주거환경 혹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특히, 강력범죄의 약 70%는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장진희 외, 2016) 이는 주거지 안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음
- 서울시 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여성 1인가구들은 주거환경(주거면적, 소음, 방음 등) 보다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교통 편리성, 저렴한 비용이 주거 선택 시 가장 우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장진희 외, 2016)

12) 결혼예정이나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만 35세 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조건이 주어짐

- 여성과 남성 1인가구 모두 전반적으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그러나 치안과 안전성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주거지 선택시 치안 및 안전성을 고려하는 남성 1인구는 1.8%이었으나, 여성 1인가구는 이보다 9.1% 높은 10.9%로 나타남. 혼자 사는 어려움에 있어서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안전에 대한 민간도가 높았는데, 주거지 선택에서 다시 번 여성 1인가구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보여줌
- 특히 주거 선택시 치안 및 안전은 여성 1인가구 내에서도 세대별 차이를 보였는데 청년여성 1인가구 14.2%, 중장년여성 1인가구 10.7%, 고령여성 1인 가구 6.2%로 나타남(<표 2-10>참조)

〈표 2-9〉 여성 1인가구 세대별 주거선택 기준

(단위: 명, %)

구분	거주경험이 있는 지역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부모, 자녀, 친지와의 거리	여가 및 교육시설과의 거리	교통 편리성	경제성 (비용)	치안 <sup>13)</sup>	주거면적 <sup>14)</sup>	기타
전체	177 (11.6%)	424 (27.7%)	147 (9.6%)	41 (2.7%)	271 (17.7%)	224 (14.6%)	167 (10.9%)	68 (4.4%)	12 (0.8%)
청년	33 (4.9%)	276 (40.5%)	19 (2.8%)	22 (3.2%)	104 (15.3%)	103 (15.1%)	97 (14.2%)	26 (3.8%)	1 (0.2%)
중장년	52 (13.5%)	105 (27.3%)	35 (9.1%)	5 (1.3%)	85 (22.1%)	42 (10.9%)	41 (10.7%)	19 (5%)	0 (0%)
고령	92 (19.7%)	43 (9.2%)	93 (20%)	14 (3%)	82 (17.6%)	79 (17%)	29 (6.2%)	23 (4.9%)	11 (2.4%)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서울시 거주1인 가구 실태 기본계획 수립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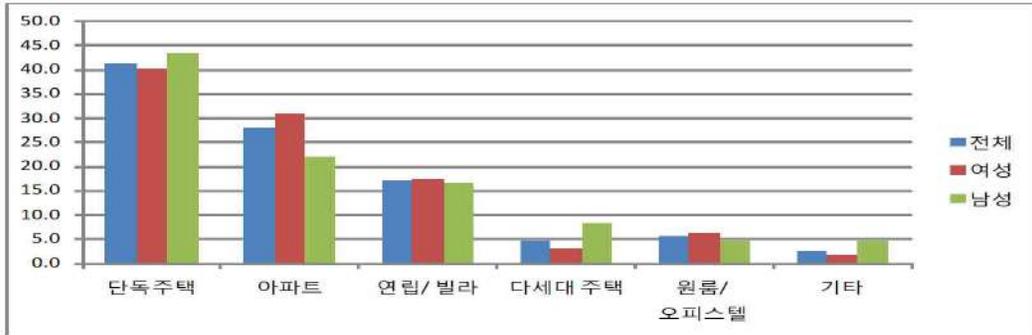
- 제주지역의 경우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제주지역 남녀1인가구 현황」(2015)에 따르면 남녀모두 단독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관리 및 보안시스템이 취약해 여성 1인가구의 주거불안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13) CCTV, 방범창, 도어락, 파출소와의 거리 등 및 안전성(외진 곳, 위험한 골목 등)

14) 방의 크기, 개수 및 주거환경(냉난방, 소음, 방음, 거주 층수)

〈그림 2-1〉 제주지역 남녀 1인가구 주택유형

(단위: %)



자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2014)

#### 다. 건강 및 여가현황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1948년 세계보건헌장에서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라고 정의함
- 즉, 현대사회에서 건강의 개념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건강’ 이라 하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 개념과 더불어 주관적 건강평가 및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자료로서 이해되고 있음
- 1인 가구는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특성상 건강상에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하지경·이성림, 2017)
- 또한 가정 내에서 정서적으로 교류할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외로움 등의 정서적 결핍감을 감내하기 위해 1인가구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활동으로 음주나 흡연은 습관적 행위에 집중하여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Jo, H. j. & jun, S. H. 2010)
- 특히 남성의 경우 독신 여부는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여성의 건강행위는 독신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하지경·이성림, 2017) 여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 여성보다 과음주군이 될 확률이 높고 흡연율도 높게 나타남. 노인 1인가구도 1인가구가 아닌 가구에 비해 만성질환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우울지수도 높게 나타남(Jung etc. 2011 ). 또한 노인 1인가구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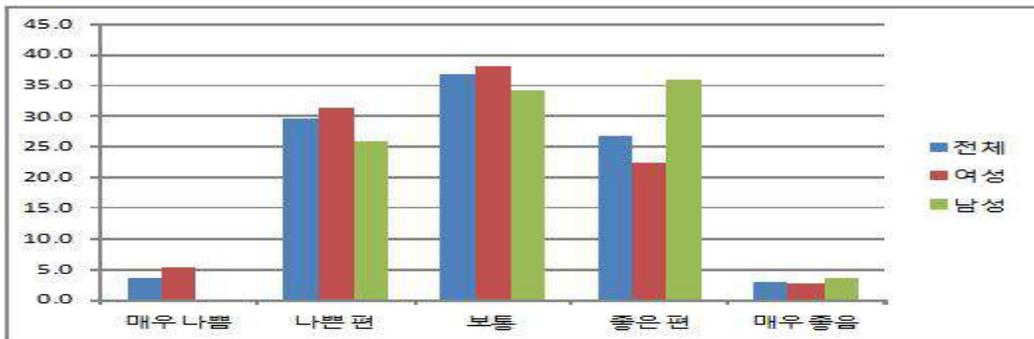
는 비율이 10%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 경우 서울시 고령여성 1인가 생활실태(Moon, E. Y. & Kwon, Y. H 2013)를 살펴보면, 고령 1인가구의 질병보유와 관련하여 7개의 질병(골다공증, 갑상선질환, 요통, 관절염, 빈혈, 백내장, 골절) 항목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질병보유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특히 관절염의 경우, 남성노인이 24.7%에 비해 여성노인은 51.5%로 나타남. 노인여성 1인가구의 경우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에서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심리·정서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음
- 신체활동이란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는 골격근에 의해 생성된 신체운동으로 직무 활동, 가사 뿐만 아니라 여행하거나 여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모두 포함(WHO, 2017) 신체활동의 정도는 가구형태와 관련이 있는데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사는 것은 식사나 운동과 같은 건강한 생활방식을 서로 모니터링하고 장려하는 등 건강상의 이점이 있음(Park, J. Y. 2010)
- 다인가구와 1인 가구의 신체활동 차이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1인 가구로 생활하는 경우 비슷한 연령대의 다인가구 대상자에 비해 건강관련 행위가 부정적이며 신체활동 수준도 낮았음(하지경·이성림 2017) 노인 1인 가구 또한 다인가구 노인에 비해 낮은 신체활동을 보임
- 1인가구는 혼자 거주하는 특성으로 인해 모든 사회적 관계가 고립된 집단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들은 동호회, 친구만남, 지역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통해 관계망을 유지하기도 하며, 그 중 일부는 고립을 보이고도 함(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즉 1인구는 모두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활발한 관계망을 지닌 집단과 고립된 집단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신건강지표는 식욕, 수면, 우울감, 무력감, 슬픔, 외로움, 허무감 등이 포함하고 있음. 그 중에서 1인가구의 특징과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외로움임. 자신의 생활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과 관련된 항목에서 1인 가구 응답자는 다인 가구 응답자에 비해 4배 이상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응답함(이영진·최유정·이상수 2014)
- 서울시 생활실태조사에 보면 1인가구 여가활동은 개인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으로 TV/비디오 시청(25.4%), 가사(20.1%), 친구만남 등 모임활동(17.5%), 운동(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 그러나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나들이(38.4%)로 나타났으며(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성별/세대별 모든 집단에서 여행/나들이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현재 연가 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TV/비디어 시청을 희망하는 비중은 4.7%에 그쳐 1인가구는 희망여가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 1인가구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남성 1인가구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의 건강상태는 ‘보통(38.1%)’이 가장 높은 반면 남성 1인가구는 ‘좋은 편(36.1%)’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러나 건강이 나쁘다는 비율에서는 여성 1인가구가 36.8%로 남성의 25.9%보다 높게 나타남(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5).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36.8%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해 건강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2〉 제주지역 남녀 1인가구 건강상태

(단위: %)



자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2014)

### 3.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

#### 가. 중앙정부 및 타지역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

- 중앙 및 타 지역 시도에서 1인가구가 최근에 증가함에 따라 정책지원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1인가구만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음. 그러나 연령에 따라, 계층에 따라 1인가구의 일부세대만 빈곤정책, 청년정책, 노인정책의 틀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

- 이 절에서는 중앙 및 타 지역 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1인가구 및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함

## 1) 중앙정부의 1인가구 관련 정책

- 중앙정부의 1인가구 관련 정책은 저소득 1인가구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복지차원에서의 사업 등이 있음
  -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으로는 공공임대, 공공실버주택, 기존 주택 매입임대, 행복주택을 활용한 창업지원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령층용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청년임대리츠, 만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수선유지 급여지급시 특택편의시설 설치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 버팀목 전세대금 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이 있음
  - 65세 노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지원사업으로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이 있음
  - 65세 독거노인을 위한 독거노인사회관계망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음
- 주거지원사업과 돌봄지원이 저소득과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적임. 주거지원의 경우 1인가구는 유자녀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해 우선순위에 제외되며, 세제혜택 또한 배제됨. 돌봄지원 역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음. 또한 여성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없음

## 2) 타 지역의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

- 타 지역 시도 중 1인가구 관련 조례가 있으며 여성 1인가구 지원 사업이 있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살펴보려고 함
- 먼저 서울특별시 여성 1인가구 관련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음
  - 고령1인가구에 대한 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사랑의 안심폰 사업, 어르신 무료급식제공, 서울재가 관리자 사업,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음
  -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사업으로는 1인가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이

웃만들기지원사업, 우리마을지원사업-활동지원과 공간지원, 공동주택공간활성화 사업 등), 자치구 커뮤니티활성화 사업(금천구의 대대식당, 광진구의 꿈꾸는 싱글라이프, 서초구의 별별동아리와 싱글톡톡 등)이 있음

- 1인가구 건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강남구의 청장년 고독사 예방지원, 금천구의 혼밥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대책, 성동구의 식사합시다, 송파구의 독거노인 텔레케어, 마포구의 골목형 시장육성 등이 있음
- 1인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희망하우징,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0%이하 1인 무주택자를 위한 원룸형임대주택, 한지붕세대공감사업 등이 있음
-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여성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울지하철보안관, 서울시 홈 방범 서비스 등이 있음

○ 부산광역시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은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한 여성안전정책으로 쾌범동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안심 골목길, 안심방향표시, 112안심벨, 범죄신고번호판, 불룩거울 설치 등), CCTV, 비상벨, 가마실 마을의 비명소리 감지 CCTV, 레이저방범, 112비상벨, 어머니폴리스, 아동안전지킴이 집 확대,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 있음

○ 인천광역시 여성 1인가구 관련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음

-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사업으로 싱글여성홈방범서비스 사업이 있음

○ 타 지역 시도 여성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폭력피해범죄에 더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여성 1인가구들은 빈곤, 건강 등 다른 사회적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함

## 나.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1인가구 관련 정책과 연계해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5세 노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지원사업, 노인후원결연사업, 혼자사는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사업,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사는 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저소득 노인 주거비지원 사업 및 진료비지원 사업,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 등
  - 제주시: 65세이상 노인건강진단, 장년층 1인가구 안부확인서비스
  - 서귀포시: 저소득제가 노인복지증진(식사배달 등), 장년층 1인가구 안부확인서비스
-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2017)에 근거해 장년층(50세 이상~60세 미만)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장년층 1인가구 안부확인서비스로 건강음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 저소득층, 장년 1인가구 관련 지원사업은 있지만 노인인 경우 독거노인원스톱센터에서 매년 독거노인 실태조사, 주 1회방문, 주 2회 안부 전화, 생활교육,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기본적인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없음. 따라서 장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현황조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등 정책지원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없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살펴본 중앙 및 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및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0〉 중앙 및 각 지자체 1인가구 정책 현황

구분		비고
1) 중앙부처	1) 주거지원: 공공임대, 공공실버주택, 기존 주택 매입임대, 행복주택을 활용한 창업지원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령층용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청년임대리츠, 만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수선유지급여지급시 특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 버팀목 전세대금 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 저소득 1인가구 대상
	2) 돌봄지원: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 소득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65세 이상 노인 대상이며 독거노인 우선
	3) 사회관계망: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지원	
2) 서울특별시	1) 고령1인가구: 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사랑의 안심폰 사업, 어르신 무료급식제공, 서울재가 관리자 사업,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 안전, 정신건강, 식사지원에 한정
	2) 사회관계망 지원: 1인가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이웃만들기지원사업, 우리마을지원사업-활동지원과 공간지원, 공동주택공간활성화 사업 등) 2-1) 자치구 커뮤니티활성화 사업: 금천구의 대대식당, 광진구의 꿈꾸는 싱글라이프, 서초구의 별별동아리와 싱글톡톡 등 2-2) 건강: 강남구의 청장년 고독사 예방지원, 금천구의 혼밥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대책, 성동구의 식사합시다, 송파구의 독거노인 텔레케어, 마포구의 골목형 시장육성	.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3) 여성안전정책: 여성안심택배, 안심키잡이집, 안심귀가스카우트, 서울지하철 보안관, 서울시 홈 방법 서비스,	. 여성1인가구 대상
	4) 주거분야: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희망하우징,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0%이하 1인 무주택자를 위한 원룸형임대주택, 한지봉 세대공감사업	. 주거취약 계층 대상
3) 부산광역시	1) 쾌법동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안심골목길, 안심방향표시, 112안심벨, 범죄신고번호판, 불록거울 설치 등) 2) CCTV, 비상벨, 가마실 마을의 비명소리 감지 CCTV, 레이저방범, 112비상벨, 어머니폴리스, 아동안전지킴이집합대,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전 정책과 연계
4) 인천광역시	1) 안전지원: 싱글여성홈방범서비스	
5) 제주특별자치도	1) 장년층: 안부확인서비스로 건강음료지원사업,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2) 노인장수복지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사는 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저소득 노인주거비 및 진료비 지원,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지원 2-1) 제주시: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 장년층 1인가구 안부확인서비스 2-2) 서귀포: 저소득재가노인복지증진(식사배달등), 장년층 1인가구 안부확인서비스	

자료: 문정희 외(2017), 하정화 외(2014),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8)에서 재구성

#### 4. 요약 및 시사점

- 1인가구의 증가는 향후 보편적 가족형태가 될 1인가구에 대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열악한 주거환경, 건강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이에 발맞추어 각 지자체는 1인가구의 증가에 대비해 관련연구, 조례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음
- 그러나 1인가구의 개념규정이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혼자생활하는 가구로 정의됨에 따라 그 범주에 속한 집단이 동질적이기보다는 매우 이질적이며 청년 1인가구의 증가, 이혼/별거에 따른 1인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사별의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가구, 비혼가구 등 그 발생배경도 다양해 연령별, 성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 및 지원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 정책들은 저소득층과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음
- 특히, 1인가구 통계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그 수가 많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1인가구와 달리 저소득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으며, 치안과 안전 불안,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음. 또한 1인가구는 모두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활발하게 관계망을 지닌 집단과 고립된 집단이 혼재되어 있어 사회적 단절과 고립의 문제를 개선해야함
- 제주지역도 1인가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네 가구중 한가구는 1인가구이며 해마다 여성 1인가구의 수가 남성 1인가구의 수보다 많았지만 2017년 남성 1인가구의 수가 여성 1인가구의 수보다 더 많아졌음. 그러나 여성 1인가구들은 남성 1인가구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취약하며 빈곤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은 연령에 따라, 계층에 따라 1인가구의 일부세대만 빈곤정책, 청년정책, 노인정책의 틀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 중앙 및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없으며 타 지역 시도 여성 1인가구 관련 정책도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연계해 폭력피해범죄에 더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만이 특화되어 있음. 따라서 여성 1인가구들의 빈곤, 건강, 여가, 사회적 고립 등 다른 사회적 위협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재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후 제주지역의 보편적 가족형태가 될 1인가구 중 빈곤과 범죄에 취약한 여성 1가구의 경제, 사회, 문화, 주거, 안전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지원이 필요함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실태(1):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조사개요
2. 분석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 1. 조사개요

### 가. 조사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해 여성 1인가구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자립생활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이에 본 장에서는 여성 1인가구로서의 어려움, 경제상태, 주거환경 및 안전, 건강 및 여가, 가족관계·사회관계 및 노후대책, 정책욕구에 대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 1인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제주시/서귀포시)·연령별(20대/30대/40대/50대/60세이상)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추출 후 400명을 추출함
- 모집단은 2017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 1인가구의 수입(<표3-1>참조)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20세 이상 여성 1인가구 지역별·연령별 모집단 현황

(단위: 명)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제주시	3,290	3,274	3,816	4,274	9,464	24,118
서귀포시	744	931	1,286	1,896	4,542	9,399
합계	4,034	4,205	5,102	6,170	14,006	33,517

- 표집방법은 실태조사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sup>15)</sup>, 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 표집함. 표본 할당 대비 일부 표본이 변경된 경우 표본 할당 기준에 따라 사후 가중치를 적용함
- 최종 할당된 조사표본은 <표 3-2>와 같음

〈표 3-2〉 조사표본

(단위: 명)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제주시	35	42	47	52	115	291
서귀포시	7	11	14	22	55	109
합계	42	53	61	74	170	400

주: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도면, 추자면 제외함

15)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1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각 행정시의 인구를 고려해 표본을 할당함

- 조사방법은 전문리서치 기관의 전문면접원에 의한 가구방문 1:1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8년 7월6일 ~ 7월 27일임
- 유의수준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pm 4.9\%$ p임

## 나. 조사내용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인가구로서의 거주기간, 어려움, 경제상태, 주거환경 및 안전, 건강 및 여가, 가족관계·사회관계 및 노후대책, 정책욕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설문내용을 구성함
- 이후 설문내용에 제주지역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심층면접을 실시 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2차 설문내용을 구성함
-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토대로 구성된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자문 위원들, 1인가구 관련 부서 및 기관전문가, 여성 1인가구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함. 예비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문항 유무, 표현의 명확성, 문항 수, 질문의 순서효과 등을 확인하여 최종설문지를 완성함
- 조사내용은 형성배경, 생활어려움, 결혼 및 가족관련 가치관, 가족돌봄 및 관계, 경제적 특징 및 노후 준비, 주거환경 및 안전, 건강과 여가, 사회적 관계망, 정책인지도 및 정책지원 욕구, 개인관련 사항 등 8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함.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은 <표 3-3>과 같음

<표 3-3>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조사영역	중분류 조사 내용	세부 조사 내용
1인가구의 형성 배경과 경제상태	- 일반적 사항 - 생활의 어려움 - 경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거주기간, 이유, 관심사, 차별경험</li> <li>• 1인가구 생활의 어려운 점</li> <li>• 경제활동여부, 일하지 않는 이유, 근로상태</li> <li>• 일과 삶의 균형여부, 소득, 지출, 부채, 기초수급여부</li> </ul>
주거환경 및 안전	- 주거현황 - 주거만족 - 주거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유형태와, 주택유형, 주택구입 시 어려움</li> <li>• 주거선택이유, 원하는 가구형태, 주거지 만족도</li> <li>• 주거지 안전, 선호하는 공동주택유형, 범죄예방 교육 희망여부</li> </ul>
건강 및 여가	- 신체적·정신적 건강 - 식생활 - 여가생활 - 교육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정신 건강상태, 운동 빈도 및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li> <li>• 평소 식생활에 관한 의견</li> <li>• 여가시간 및 어려움</li> <li>• 교육참여 경험 및 욕구</li> </ul>

조사영역	중분류 조사 내용	세부 조사 내용
관계망 및 노후 대책	- 가족 및 친구와 소통 - 가족돌봄 - 이웃관계 - 사회활동 - 노후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민상담 수 및 상담 대상자</li> <li>가족, 친구와의 소통 및 접촉빈도</li> <li>가족돌봄여부 및 대상, 관련정책욕구</li> <li>반려동물키우는 이유와 이웃관계에 대한 생각</li> <li>참여하고 있는 단체</li> <li>혼자 생활 여부 및 노후생활전망</li> </ul>
정책수요	- 정책의 중요도 -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필요한 지원정책</li> <li>여성 1인가구 주택정책에 대한 욕구</li> <li>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에 대한 욕구</li> <li>여성 1인가구 일자리정책에 대한 욕구</li> <li>여성 1인가구 건강정책에 대한 욕구</li> <li>여성 1인가구 사회지지체계에 대한 욕구</li> </ul>
2030세대	- 원가족 복귀여부 - 결혼의사 - 경력단절경험 - 이직경험 - 정책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가족 복귀 여부 및 이유</li> <li>결혼에 대한 생각</li> <li>경력단절로 직장을 그만둔 이유</li> <li>이직했수</li> <li>청년일자리 정책 및 주택정책에 대한 욕구</li> </ul>
4050세대	- 원가족 복귀여부 - 경력단절경험 - 이직경험 - 구직경험 - 정책경험 - 정책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가족 복귀 여부 및 이유</li> <li>경력단절로 직장을 그만둔 이유</li> <li>이직했수</li> <li>구직시 어려움</li> <li>일자리참여경험 및 이유, 참여만족도, 주택 및 건강음료 이용경험</li> <li>중장년일자리 정책 및 주택·건강 정책욕구</li> </ul>
6080세대	- 직업경험 - 일하지 않는 이유 - 정책경험 - 정보습득경험 - 정책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업 및 일하지 않는 이유</li> <li>의료·보건기관 이용시 불편한 점</li> <li>사회활동참여의 어려운점</li> <li>노인여가시설 및 노인지원사업 이용경험</li> <li>일자리·주택개보수·건강용품·문화관람·자원봉사·지역사회의 견제시, 가정방문서비스관련 욕구</li> </ul>

##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4>와 같음
- 연령별로 60세 이상 42.5%, 50대(50~59세) 18.5%, 40대(40~49세) 15.5%, 30대(30~39세) 12.8%, 20대(20~29세)가 10.8%로 제주지역 연령별 여성 1인가구의 수를 고려함
- 학력별로는 대졸이 30.4%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하 28.7%, 고졸 28.4%, 기타(무학) 10.4%, 대학원 이상 2.2%순으로 나타남.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고졸이상 학력이 61.0%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혼인유형을 살펴보면 사별 43.0%로 가장 많으며, 미혼 31.0%, 이혼/별거 21.4%, 기혼 4.6%순으로 나타남.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사별

도 많은 것으로 보임

- 고향이 제주인 경우는 65.6%이며 고향이 제주가 아닌 경우는 34.4%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제주시 73.0%, 서귀포시 27.0%로 지역별 여성 1인가구 수를 고려해 표집됨
- 경제상황은 일반가구 80.9%, 기초생활 14.3%, 차상위가구 4.8%로 일반가구가 많음
- 1인가구 거주기간은 10년이상~20년미만 28.1%로 가장 많으며, 20년이상 25.2%, 2년 이상~5년미만 19.8%, 5년이상~10년미만 19.0%, 1년이상~2년미만 7.9%로 나타남.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10년이상으로 나타남
- 월평균근로소득별로는 근로소득없음 34.5%로 가장 많으며,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5.8%,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9.7%, 100만원미만 13.0%, 300만원이상 7.1%로 나타남.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많아 근로소득이 없음과 100만원미만이 47.5%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정도가 저소득으로 나타남
- 직업을 살펴본 결과 '일하고 있지 않음' 35.7%로 가장 많으며, 서비스 종사자 24.4%, 자영업자 9.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각각 8.6%, 사무종사자 6.8%, 판매직 종사자 3.0%, 학생 1.3%, 관리자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0.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5%순으로 나타남. 조사대상자의 근로소득이 낮은 이유는 '일하고 있지 않음'을 제외하면 서비스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제주지역의 산업 특징인 서비스직이 많기 때문임

〈표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 체	400	100.0		전 체	400	100.0	
연령	20-29세	43	10.8	1인 거주 기간	1년~2년 미만	32	7.9
	30-39세	51	12.8		2년~5년 미만	79	19.8
	40-49세	62	15.5		5년~10년 미만	76	19.0
	50-59세	74	18.5		10년~20년미만	112	28.1
	60세 이상	170	42.5		20년 이상	101	25.2
중졸 이하	115	28.7	월평균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34.5
학력	고졸	113	28.4	100만원 미만	52	13.0	
	대졸	122	30.4	100~200만원 미만	103	25.8	
	대학원 이상	9	2.2	200~300만원 미만	79	19.7	
	기타(무학)	42	10.4	300만원 이상	28	7.1	
혼인	기혼	18	4.6	직업	관리자	4	0.9
	미혼	124	31.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4	8.6
	이혼/별거	86	21.4		사무종사자	27	6.8
고향	사별	172	43.0		서비스 종사자	98	24.4
	제주	262	65.6		판매직 종사자	12	3.0
거주 지역	타지역	138	34.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	0.5
	제주시	292	73.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4	0.9
경제 상황	서귀포시	108	27.0		단순노무 종사	34	8.6
	기초생활	57	14.3		자영업	37	9.2
	차상위가구	19	4.8		학생	5	1.3
	일반가구	324	80.9		일을 하고 있지 않음	143	35.7

## 2. 분석결과

### 가. 생활실태

#### 1) 형성배경 및 어려움

##### 가) 거주기간

- 거주기간을 조사한 결과 '10년이상~20년미만'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년이상' 25.2%, '2년이상~5년미만' 19.8%, '5년이상~10년미만' 19.0%, '1년이상~2년미만' 7.9%순으로 나타남. 조사대상자들의 거주기간 평균은 12.12년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9세는 '2년이상~5년미만'(53.3%)이 가장 많으며, 30~40세는 '10년이상~20년미만'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40세~49세는 '2년이상~5년미만' 28.1%로 가장 많음. 50~59세는 '10년이상~20년미만' 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은 '20년이상'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평균을 살펴보면 20대는 평균 3.07년, 30대는 평균 6.93년, 40대는 평균 8.33년, 50대는 평균 12.83년, 60대 이상은 17.04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월평균 근로소득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없음'은 20년이상(38.6%), '100만원 미만'도 20년이상(40.0%), '100~200만원 미만'은 10년이상~20년미만(32.6%), '200~300만원 미만'은 5년이상~10년미만(30.3%), '300만원 이상'은 5년이상~10년미만(24.8%)로 나타남
- 월평균 근로소득별 평균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없음'은 평균 15.64년, '100만원 미만'은 평균 15.74년, '100~200만원 미만'은 평균 9.76년, '200~300만원 미만'은 평균 8.21년, '300만원 이상'은 평균 7.87년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표 3-5〉 여성 1인가구 거주 기간

(단위: 명, %, 년)

구분		사례수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 이상	평균
전 체		400	32(7.9)	79(19.8)	76(19.0)	112(28.1)	101(25.2)	12.12
연령	20-29세	43	11(26.2)	23(53.3)	8(18.0)	1(2.5)	0(0.0)	3.07
	30-39세	51	6(11.5)	10(20.5)	15(28.9)	20(39.1)	0(0.0)	6.93
	40-49세	62	9(14.2)	17(28.1)	12(18.8)	17(27.7)	7(11.2)	8.33
	50-59세	74	4(5.2)	9(12.8)	14(18.8)	25(33.1)	22(30.2)	12.83
	60세 이상	170	2(1.2)	19(11.1)	28(16.4)	50(29.2)	72(42.1)	17.04
월평균 근로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3(2.2)	20(14.6)	22(16.0)	39(28.6)	53(38.6)	15.64
	100만원 미만	52	9(18.0)	4(7.9)	5(9.2)	13(24.7)	21(40.0)	15.74
	100~200만원 미만	103	8(7.7)	29(27.7)	18(17.5)	34(32.6)	15(14.5)	9.76
	200~300만원 미만	79	6(7.2)	20(25.7)	24(30.3)	21(26.4)	8(10.3)	8.21
	300만원 이상	28	6(20.4)	6(21.3)	7(24.8)	6(20.1)	4(13.5)	7.87

## 나) 거주 이유

- 조사결과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이 55.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순으로는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20.5%,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서 9.9%, '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민,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7.4%, '결혼을 하지 않아서 4.9%순으로 나타남. 1인 거주 이유로는 40세 이상에서 전부 배우자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등 자발적 1인가구는 14.8%로 나타남
- 연령별로 거주이유를 조사한 결과 20-29세인 경우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72.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서'(22.9%)순으로 나타남. 30-40세인 경우도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59.6%)가 가장 많았으며, 40대·50대·60대이상은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각각 44.6%, 63.9%, 85.4%로 가장 많았음. 조사결과 20대는 학교, 30대는 직장, 40대이상은 이혼·별거·사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거주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43.3%)가 가장 많았음
- 경제적 상황별로는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기초생활수급자 86.1%, 차상위가구 78.9%, 일반가구

48.7%),

○ 연령, 학력, 경제적 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여성 1인가구 거주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 례 수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배우자 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부모 또는 형제자 매의 사망 때문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의 이민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개인적 자유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아서	통계량 ( $\chi^2/P$ )
전 체	400	82(20.5)	222(55.5)	2(0.5)	6(1.5)	29(7.4)	39(9.9)	19(4.9)	-
연령	20-29세	43	31(72.2)	0(0)	0(0)	1(2.5)	1(2.5)	10(22.9)	0(0)
	30-39세	51	30(59.6)	2(3.8)	0(0)	2(3.8)	3(5.7)	10(20.5)	3(6.5)
	40-49세	62	9(14.2)	28(44.6)	0(0)	1(1.6)	7(10.6)	8(13.2)	10(15.8)
	50-59세	74	10(13.0)	47(63.9)	2(2.5)	0(0)	6(8.1)	3(4.1)	6(8.5)
	60세 이상	170	2(1.2)	145(85.4)	0(0)	2(1.2)	13(7.6)	8(4.7)	0(0)
학력	중졸 이하	115	1(0.9)	99(86.1)	0(0)	2(1.7)	7(6.1)	6(5.2)	0(0)
	고졸	113	25(22.2)	58(50.9)	2(1.6)	1(0.9)	9(7.8)	15(13.5)	4(3.2)
	대졸	122	53(43.3)	23(19.0)	0(0)	3(2.4)	9(7.3)	18(15.0)	16(13.0)
	대학원 이상	9	3(34.8)	3(32.5)	0(0)	0(0)	3(32.7)	0(0)	0(0)
	기타(무학)	42	0(0)	40(95.2)	0(0)	0(0)	2(4.8)	0(0)	0(0)
경제적 상황	기초생활	57	1(1.7)	49(86.1)	1(1.7)	1(1.7)	2(3.5)	3(5.2)	0(0)
	차상위가구	19	0(0)	15(78.9)	0(0)	2(10.5)	1(5.2)	0(0)	1(5.4)
	일반가구	324	81(25.0)	158(48.7)	1(0.3)	3(0.9)	26(8.2)	36(11.3)	18(5.7)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 다) 중요한 관심사 / 어려운 점 / 편견·무시·차별 경험

○ 조사결과 여성 1인가구의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52.6%)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업/창업(13.1%), 직장생활(11.0%), 가족/친구 등 인간관계(6.2%), 여가생활(4.4%)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는 취업/창업(43.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직장생활(16.4%)로 나타남. 30대는 취업/창업과 직장생활이 각각 24.3%로 가장 많았으며 40·50·60대 이상은 건강이 각각 28.1%, 62.2%, 79.5로 가장 많아 주요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0대는 건강 다음으로는 취업/창업(20.5%), 50대는 직장생활(11.2%)순으로 나타나 세대별 주요관심사가 다름을 알 수 있음

〈표 3-7〉 여성 1인 가구 주요한 관심사(1순위)

(단위: 명, %)

구분	취업, 창업	직장 생활	학업/진학	건강	가족/친구 등 인가관계	이성친구의제	여가 생활	연애, 결혼	재테크	내 집 마련	금전	종교
전체	52 (13.1)	44 (11.0)	5 (1.3)	210 (52.6)	25 (6.2)	2 (0.5)	18 (4.4)	2 (0.5)	9 (2.2)	27 (6.8)	3 (0.7)	3 (0.7)
20-29	19 (43.5)	7 (16.4)	3 (7.4)	3 (7.4)	5 (11.5)	0 (0.0)	0 (0.0)	0 (0.0)	0 (0.0)	1 (2.5)	1 (2.5)	0 (0.0)
30-39	12 (24.3)	12 (24.3)	0 (0.0)	9 (16.7)	2 (3.8)	1 (1.9)	1 (1.9)	0 (0.0)	5 (9.6)	9 (16.7)	0 (0.0)	1 (1.9)
40-49	13 (20.5)	8 (12.9)	0 (0.0)	17 (28.1)	8 (13.2)	0 (0.0)	4 (6.6)	1 (1.6)	2 (3.3)	7 (11.2)	1 (1.3)	1 (1.3)
50-59	6 (7.6)	8 (11.2)	0 (0.0)	46 (62.2)	3 (3.8)	0 (0.0)	3 (3.8)	0 (0.0)	2 (2.5)	7 (9.0)	0 (0.0)	0 (0.0)
60세 이상	3 (1.7)	9 (5.3)	2 (1.2)	135 (79.5)	7 (4.1)	1 (0.6)	6 (3.5)	1 (0.6)	0 (0.0)	4 (2.3)	1 (0.6)	1 (0.6)

○ 여성 1인가구의 생활에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불안감(41.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6.4%)’, ‘안전에 대한 불안감(22.0%)’, ‘주택관리의 어려움(20.0%)’순으로 나타남

〈표 3-8〉 여성 1인가구의 어려운 점(1순위)

(단위: 명, %)

구분	경제적 불안감	외로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시선	안전에 대한 불안감	임종에 대한 불안감	반려동물 키우기의 어려움	주택 관리의 어려움	없다
전체	164 (41.0)	32 (7.9)	146 (36.4)	2.1 (8)	5.4 (22)	-	1.2 (5)	4.9 (20)	1.2 (5)

○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편견·무시·차별을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없음’이 75.4%로 가장 많았음. 편견·무시·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친구 등 주변사람’ (12.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이웃주민(8.0%)으로 나타남. 모르는 사람(4.1%)의 경우는 1인가구에 대한 차별보다는 여성으로서의 편견·무시·차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3-9〉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편견·무시·차별을 당한 경험(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가족	이웃주민	관공서 공무원, 공공기관, 시설직원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	친구 등 주변사람	없음
전체	16(3.9)	32(8.0)	2(0.5)	9(2.2)	16(4.1)	50(12.4)	301(75.4)

## 2) 경제상태

### 가) 직업 및 일하지 않은 이유

- 여성 1인가구의 직업을 조사하기 전에 ‘일을 하는 경우’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일을 하는 경우’는 64.3%,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이 35.7%로 나타남

〈표 3-10〉 일을 하는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있음
전체	400	257(64.3)	143(35.7)

- 여성 1인 가구가 일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이 좋지 않아서’(58.1%)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27.8%),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아서’(3.5%),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업 교육을 받느라고’(2.9%)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특히 50세이상은 ‘건강 좋지 않아서’ 일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대는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업 교육을 받느라고, 30대는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40대는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공 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 가 없어서	원하는 임금 수준/근 로 조건에 맞는 일이 없어서	근처에 일자리 가 없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구직 결과를 기다리 는 중이 어 서	학업 이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업 교육을 받느라 고	경력 단절로 인해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아서	
전 체	143	1(0.7)	3(2.0)	4(2.8)	40(27.8)	83(58.1)	1(0.7)	4(2.9)	2(1.4)	5(3.5)	
연령	20-29세	5	1(20.0)	0(0.0)	1(20.0)	0(0.0)	0(0.0)	0(0.0)	2(40.0)	1(20.0)	0(0.0)
	30-39세	3	0(0.0)	1(33.3)	0(0.0)	0(0.0)	1(33.3)	0(0.0)	1(33.3)	0(0.0)	0(0.0)
	40-49세	5	0(0.0)	0(0.0)	0(0.0)	0(0.0)	2(40.0)	0(0.0)	0(0.0)	0(0.0)	3(60.0)
	50-59세	13	0(0.0)	1(6.1)	0(0.0)	0(0.0)	12(93.9)	0(0.0)	0(0.0)	0(0.0)	0(0.0)
	60세 이상	116	0(0.0)	1(0.9)	3(2.6)	40(34.2)	67(58.1)	1(0.9)	1(0.9)	1(0.9)	2(1.7)

나) 일을 하는 경우

(1) 직업

- 일을 하는 경우 여성 1인가구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는 서비스종사자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14.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3.2%), 단순노무종사(13.2%), 사무종사자(10.5%), 판매직종사자(4.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20대, 40대, 50대, 60대는 서비스 종사자가 각각 36.8%, 45.6%, 39.3%, 35.2%로 가장 많이 나타남. 30대는 서비스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각각 2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많아질수록 서비스종사자가 되는 경향이 있음
- 거주지역별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서비스 종사자가 각각 38.6%, 3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지역의 산업별 특징이 서비스직 70%로 이러한 산업별 특징이 여성 1인가구의 직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표 3-12〉 직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 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농림/어 수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무 사 종사	자영업	학생	
전체	257 (100.0)	4(1.6)	34(13.2)	27(10.5)	98(38.1)	12(4.7)	2(0.8)	4(1.6)	34(13.2)	37(14.4)	5(1.9)	
연령	20-29세	38	2(5.3)	10(26.3)	2(5.3)	14(36.8)	2(5.3)	0(0.0)	1(2.6)	1(2.6)	0(0.0)	5(13.2)
	30-39세	48	0(0.0)	14(29.2)	12(25)	14(29.2)	2(4.2)	0(0.0)	0(0.0)	0(0.0)	6(12.5)	0(0.0)
	40-49세	57	1(1.8)	6(10.5)	8(14.0)	26(45.6)	5(8.8)	0(0.0)	0(0.0)	3(5.3)	8(14.0)	0(0.0)
	50-59세	61	1(1.6)	3(4.9)	5(8.1)	24(39.3)	2(3.3)	0(0.0)	2(3.3)	7(11.5)	17(29.9)	0(0.0)
	60세 이상	54	0(0.0)	2(3.7)	0(0.0)	19(35.2)	1(1.9)	2(3.7)	1(1.9)	23(42.6)	6(11.1)	0(0.0)
거주지역	제주시	176	2(1.1)	18(10.2)	22(12.5)	68(38.6)	10(5.7)	2(1.1)	1(1.6)	17(9.7)	31(17.6)	5(1.8)
	서귀포시	81	2(2.5)	16(19.8)	5(6.2)	30(37.0)	2(2.5)	0(0.0)	3(3.7)	17(21.0)	6(7.4)	0(0.0)

## (2) 고용형태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여성 1인 가구의 고용형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근로자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시근로자(20.1%), 일용근로자(17.4%), 고용원 없는 자영업(13.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사업주(5.1%)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30대·40대·50대는 상용근로자 각각 44.8%, 66.7%, 47.1%, 39.8%로 가장 많았으며 50대는 고용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23.8%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60세 이상에서는 임시근로자 3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40시간이상~50시간미만이 46.1%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20시간이상~40시간미만(18.9%), 20시간미만(17.4%)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총 36.4시간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30대·40대·50대는 40시간이상~50시간미만이 각각 38.3%, 64.6%, 52.9%, 54.3%로 가장 많았으며 60대는 20시간미만이 5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고용형태와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3〉 고용형태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사업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응답	통계량 ( $\chi^2/P$ )	
전 체	257	105(40.8)	45(17.4)	52(20.1)	2(0.8)	13(5.1)	36(13.8)	5(2.1)	-	
연령	20-29세	38	17(44.8)	5(14.0)	10(27.1)	0(0.0)	0(0.0)	0(0.0)	5(14.0)	97.40***
	30-39세	48	32(66.7)	4(8.1)	6(13.0)	0(0.0)	3(6.1)	3(6.1)	0(0.0)	
	40-49세	57	27(47.1)	9(16.6)	6(10.1)	1(1.8)	4(6.5)	10(18.0)	0(0.0)	
	50-59세	61	24(39.8)	8(13.6)	8(13.9)	0(0.0)	5(9.0)	14(23.8)	0(0.0)	
	60세 이상	54	5(9.3)	18(33.4)	21(38.9)	1(1.8)	1(1.9)	8(14.8)	0(0.0)	
구분	사례수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무응답	평균	통계량 ( $\chi^2/P$ )	
[전 체]	257	45(17.4)	49(18.9)	119(46.1)	19(7.3)	21(8.1)	5(2.1)	36.4	-	
연령	20-29세	38	6(14.9)	6(16.8)	14(38.3)	4(11.2)	2(4.6)	5(14.0)	34.8	113.50***
	30-39세	48	2(4.1)	8(15.7)	31(64.6)	4(8.1)	4(7.5)	0(0.0)	42.1	
	40-49세	57	4(6.5)	12(20.8)	30(52.9)	6(10.8)	5(9.0)	0(0.0)	40.4	
	50-59세	61	4(6.0)	10(16.6)	33(54.3)	5(7.6)	9(15.5)	0(0.0)	43.5	
	60세 이상	54	30(55.6)	13(24.0)	10(18.6)	0(0.0)	1(1.9)	0(0.0)	20.3	

$\chi^2$ 는 카이제곱 값, \*\*\*p<.001

다) 월 평균 근로 소득

- 조사결과 월근로소득은 평균 114만원으로 나타남. 근로소득 ‘없음’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25.8%),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19.7%), 100만원미만(13.0%), 300만원이상(7.1%)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30대·40대·50대는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이 각각 42.9%, 45.2%, 30.9%로 가장 많았음. 60대 이상은 66.0%가 근로소득이 ‘없음’ 것으로 나타남. 월근로소득 평균은 20대는 136만원, 30대는 194만원, 40대는 169만원, 50대는 176만원, 60세 이상은 37만원으로 30대에 월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많으며 60세 이후 급격히 소득이 낮아짐
- 거주기간별로 조사한 결과 1년~2년 미만인 경우 100만원 미만(24.9%), 2년~5년 미

만인 경우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36.0%), 5년~10년 미만인 경우는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31.6%), 10년·20년 이상인 경우는 근로소득 '없음'이 각각 35.1%, 52.8%로 많아 거주기간 10년이후로 월평균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월평균근로소득은 연령별, 거주기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 3-14〉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근로소득 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통계량 ( $\chi^2/P$ )	
전 체	400	138(34.5)	52(13.0)	103(25.8)	79(19.7)	28(7.1)	114.01	-	
연령	20-29세	43	7(17.2)	8(19.7)	12(28.7)	13(30.3)	2(4.1)	136.26	186.47***
	30-39세	51	2(3.8)	2(3.8)	22(42.9)	20(39.9)	5(9.6)	193.99	
	40-49세	62	5(8.2)	4(6.3)	28(45.2)	18(29.1)	7(11.2)	169.09	
	50-59세	74	11(15.2)	8(10.3)	23(30.9)	20(26.5)	13(17.1)	175.88	
	60세 이상	170	112(66.0)	30(17.6)	18(10.6)	8(4.7)	2(1.2)	37.38	
거주기간	1년~2년 미만	32	3(9.4)	9(29.4)	8(25.0)	6(18.0)	6(18.1)	157.35	66.42***
	2년~5년 미만	79	20(25.5)	4(5.2)	29(36.0)	20(25.7)	6(7.6)	142.26	
	5년~10년 미만	76	22(29.1)	5(6.3)	18(23.8)	24(31.6)	7(9.2)	141.98	
	10년~20년 미만	112	39(35.1)	13(11.4)	34(29.9)	21(18.6)	6(5.0)	110.41	
	20년 이상	101	53(52.8)	21(20.6)	15(14.8)	8(8.0)	4(3.8)	61.20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 라) 경력단절 경험

- 여성 1인 가구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있다' 19.6%, '없다' 80.4%로 나타남
- 연령별로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가 3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유형별로는 기혼여성이 다른 혼인유형보다 6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기혼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돌봄의 경험으로 경력단절을 한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경험은 연령별, 혼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5〉 경력단절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통계량 ( $\chi^2/P$ )
전 체		400	79(19.6)	321(80.4)	-
연령	20-29세	43	2(4.1)	41(95.9)	21.54 ***
	30-39세	51	6(10.9)	45(89.1)	
	40-49세	62	19(30.7)	43(69.3)	
	50-59세	74	24(32.9)	50(67.1)	
	60세 이상	170	28(16.4)	142(83.6)	
혼인	기혼	18	12(64.4)	7(35.6)	48.85 ***
	미혼	124	8(6.8)	116(93.2)	
	이혼/별거	86	29(34.2)	56(65.8)	
	사별	172	29(16.9)	143(83.1)	

$\chi^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마) 월평균 생활비 및 마련 방법

#### (1) 월평균 생활비

- 조사결과 월평균 생활비는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이 2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22.3%),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15.4%)순으로 조사됨. 월생활비 평균은 103만원 정도로 나타남
- 월생활비 평균은 연령별로 20대는 평균 99만원, 30대는 평균 148만원, 40대는 평균 140만원, 50대는 평균 137만원, 60대이상은 평균 65만원 정도로 30대를 전후로 연령이 많을수록 월평균 생활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월생활비 평균은 월평균 근로소득별로 근로소득이 '없음' 경우는 평균 59만원, 100만원미만은 평균 61만원,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은 평균 114만원,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은 평균 159만원, 300만원이상은 평균 220만원으로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근로소득이 없어도 평균 50만원 전후의 생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6〉 월평균 생활비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 수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전 체	400	79(19.9)	117(29.3)	89(22.3)	62(15.4)	51(12.7)	2(0.5)	103.96	
연령	20-29세	43	1(2.5)	23(53.3)	9(21.3)	8(18.8)	2(4.1)	0(0.0)	99.12
	30-39세	51	0(0.0)	8(14.8)	16(32.0)	15(28.9)	12(24.3)	0(0.0)	147.54
	40-49세	62	3(4.6)	5(8.2)	24(38.3)	17(26.7)	13(20.8)	1(1.3)	140.74
	50-59세	74	3(4.1)	17(23.2)	21(28.5)	14(19.0)	18(23.9)	1(1.4)	136.54
	60세 이상	170	73(42.7)	65(38.0)	19(11.1)	8(4.7)	6(3.5)	0(0.0)	64.88
월평균 근로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60(43.2)	59(42.4)	12(8.7)	6(4.2)	2(1.5)	0(0.0)	58.51
	100만원 미만	52	17(32.8)	28(54.2)	4(7.0)	2(4.0)	1(1.9)	0(0.0)	61.14
	100~200만원 미만	103	3(2.8)	22(21.6)	54(52.2)	22(21.7)	1(0.8)	1(1.0)	113.79
	200~300만원 미만	79	0(0.0)	8(10.7)	16(19.9)	25(32.3)	29(37.1)	0(0.0)	158.54
	300만원 이상	28	0(0.0)	0(0.0)	4(4.2)	6(20.4)	18(62.5)	1(2.9)	219.94

## (2) 생활비마련 방법

- 여성 1인 여성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조사한 결과 본인의 근로소득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13.8%, 저축 8.3%, 자녀로부터의 지원 8.2%, 연금 4.5%, 부모 형제의 도움 3.4%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60대이상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60이상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26.3%, 본인의 근로소득 25.8%, 자녀로부터의 지원 18.7% 순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근로소득별로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31.7%), 저축(22.6%), 자녀로부터 지원(20.9%), 연금(12.2%)순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은 본인의 근로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 근로소득에서는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7〉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본인의 근로소득	부모 형제 의 도움	자녀 로부터 지원	저축	친구 로부터 빌림	기초 생활 보급 급여	배우 의 지원	은행 이나 카드 대출	부 동 산 임 대 소득	기타	연금	
전 체	400	235 (58.7)	14 (3.4)	33 (8.2)	33 (8.3)	1 (0.3)	55 (13.8)	4 (1.0)	2 (0.4)	5 (1.3)	1 (0.2)	18 (4.5)	
연령별	20-29세	43	30 (70.5)	12 (27.1)	0 (0.0)	2.5 (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0-39세	51	48 (94.3)	0 (0.0)	0 (0.0)	1 (1.9)	0 (0.0)	2 (3.8)	0 (0.0)	0 (0.0)	0 (0.0)	0 (0.0)	
	40-49세	62	54 (86.5)	0 (0.0)	0 (0.0)	1 (1.6)	0 (0.0)	4 (6.0)	1 (1.6)	2 (2.7)	1 (1.6)	0 (0.0)	
	50-59세	74	59 (79.6)	0 (0.0)	1 (1.4)	5 (7.1)	1 (1.4)	7 (9.2)	1 (1.4)	0 (0.0)	0 (0.0)	0 (0.0)	
	60세 이상	170	44 (25.8)	2 (1.2)	32 (18.7)	25 (14.6)	0 (0.0)	45 (26.3)	0 (0.0)	0 (0.0)	4 (2.3)	1 (0.6)	18 (10.5)
월평균 근로소득 별	근로소득 없음	138	0 (0.0)	8 (6.0)	29 (20.9)	31 (22.6)	1 (0.7)	44 (31.7)	3 (2.2)	0 (0.0)	4 (2.9)	1 (0.7)	17 (12.2)
	100만원 미만	52	31 (59.8)	5 (10.2)	3 (5.8)	2 (3.8)	0 (0.0)	10 (18.5)	0 (0.0)	0 (0.0)	1 (1.9)	0 (0.0)	
	100-200만원 미만	103	98 (94.7)	0 (0.0)	1 (1.0)	0 (0.0)	0 (0.0)	2 (1.8)	0 (0.0)	2 (1.6)	0 (0.0)	0 (0.0)	
	200-300만원 미만	79	7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00만원 이상	28	27 (96.5)	0 (0.0)	0 (0.0)	0 (0.0)	0 (0.0)	0 (0.0)	1 (3.5)	0 (0.0)	0 (0.0)	0 (0.0)	

다) 부채여부 및 부채이유

(1) 부채여부

- 여성 1인가구의 부채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채 없다가 72.9%로 나타남. 부채가 있는 경우는 은행대출이 18.0%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2.7%), 한국장학재단(2.3%)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는 한국장학재단이 15.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은행대출 9.0%로 나타남. 30대·40대·50대는 은행대출이 가장 많았음. 특히 20대 한국장학재단 부채인 경우 학자금 대출로 볼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2015)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9조 739억 원에서 6월 말 기준 대학·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이 35.7% 증가한 12조3149억 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01만 원이라고 함.
- 월평균 근로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은행대출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친구나 부모에게 빌리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8〉 부채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은행 대출	친구	사금융	부모나 친지	한국 장재단	카드/ 보험 대출	지자체 지원
전 체	400	292(72.9)	72(18.0)	11(2.7)	1(0.3)	9(2.2)	9(2.3)	6(1.4)	1(0.2)
연령	20-29세	43	32(75.5)	4(9.0)	0(0.0)	0(0.0)	15.5(7)	0(0.0)	0(0.0)
	30-39세	51	37(72.4)	10(20.5)	0(0.0)	1(1.9)	3(5.2)	0(0.0)	0(0.0)
	40-49세	62	35(55.7)	23(36.3)	1(1.6)	0(0.0)	2(3.3)	0(0.0)	2(3.0)
	50-59세	74	42(56.2)	24(32.6)	5(6.5)	0(0.0)	2(2.2)	0(0.0)	2.5(2)
	60세 이상	170	146(85.9)	11(6.5)	5(2.9)	1(0.6)	4(2.3)	0(0.0)	2(1.2)
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124(90.1)	5(3.4)	4(2.9)	1(0.7)	3(2.2)	0(0.0)	0(0.0)
	100만원 미만	52	41(79.4)	5(9.3)	2(3.5)	0(0.0)	1(1.9)	1(2.0)	2(3.9)
	100~200만원 미만	103	68(65.6)	27(26.3)	2(1.9)	0(0.0)	3(2.6)	1(1.0)	3(2.6)
	200~300만원 미만	79	45(57.0)	23(28.9)	2(2.5)	0(0.0)	2(2.5)	7(9.1)	0(0.0)
	300만원 이상	28	14(48.2)	13(44.6)	1(3.5)	0(0.0)	0(0.0)	0(0.0)	1(3.6)

## (2) 부채이유

- 부채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택마련이 2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계비(25.2%), 사업자금(21.4%), 의료비(4.6%), 자동차 구입(3.5%)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는 교육비가 63.3%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주택마련 34.7%로 나타남. 40·50대도 주택마련이 각각 30.6%, 3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0대는 생계비 26.2%, 50대는 사업자금 16.8%순임. 60대이상은 생계비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업자금 29.2%, 의료비 12.5%순으로 나타남
- 혼인유형별로는 미혼인 경우에는 교육비가 3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자금 26.0, 주택마련 19.0%, 생계비 16.6%, 자동차 구입 6.8%순으로 나타남. 기혼은 주택마련이 50.8%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 별거인 경우에도 주택마련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생계비 23.9%으로 순으로 나타남. 사별인 경우에는 생계비가 44.5%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 월평균 근로소득별로는 근로소득이 '없음' 경우와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부채의 가장 많은 이유가 '생계비'로 조사결과 나타남

〈표 3-19〉 부채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택 마련	교육비	의료비	결혼, 장례비 등	재테크 자금 마련	사업 자금	생계비	자동차 구입	
전 체	108	28(26.2)	17(15.7)	5(4.6)	1(0.8)	3(2.6)	23(21.4)	27(25.2)	4(3.5)	
연령	20-29세	11	1(10.0)	7(63.3)	0(0.0)	0(0.0)	0(0.0)	1(10.0)	2(16.6)	0(0.0)
	30-39세	14	5(34.7)	3(18.8)	0(0.0)	0(0.0)	0(0.0)	3(20.8)	3(18.8)	1(6.9)
	40-49세	27	8(30.6)	2(7.4)	1(3.7)	0(0.0)	1(3.7)	7(24.6)	7(26.2)	1(3.7)
	50-59세	32	11(34.2)	6(17.4)	1(3.1)	1(2.5)	2(5.6)	5(16.8)	5(14.9)	2(5.6)
	60세 이상	24	3(12.5)	0(0.0)	3(12.5)	0(0.0)	0(0.0)	7(29.2)	11(45.9)	0(0.0)
혼인	기혼	11	6(50.8)	1(8.7)	0(0.0)	0(0.0)	2(15.8)	2(17.5)	1(7.2)	0(0.0)
	미혼	26	5(19.0)	8(31.5)	0(0.0)	0(0.0)	0(0.0)	7(26.0)	4(16.6)	2(6.8)
	이혼/별거	45	13(28.4)	8(17.1)	2(4.5)	0(0.0)	1(2.3)	9(19.3)	11(23.9)	2(4.5)
	사별	26	5(18.8)	0(0.0)	3(11.6)	1(3.2)	0(0.0)	6(21.9)	11(44.5)	0(0.0)
가구소득	근로소득 없음	14	4(28.1)	1(6.0)	4(29.2)	0(0.0)	0(0.0)	1(7.3)	4(29.4)	0(0.0)
	100만원 미만	11	2(15.3)	2(19.3)	0(0.0)	0(0.0)	0(0.0)	2(18.6)	5(46.8)	0(0.0)
	100~200만원 미만	35	10(27.0)	2(5.3)	0(0.0)	0(0.0)	1(2.8)	7(18.8)	15(43.3)	1(2.8)
	200~300만원 미만	34	7(21.7)	10(30.1)	1(3.0)	1(2.4)	2(5.4)	8(22.7)	3(8.8)	2(5.9)
	300만원 이상	15	6(40.9)	2(13.7)	0(0.0)	0(0.0)	0(0.0)	6(39.8)	0(0.0)	1(5.6)

## 라) 경제적 상황

- 조사결과 일반가구가 80.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수급자 14.3%, 차상위 4.8%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는 일반가구 100.0%이며 30대는 98.1%, 40대는 87.8%, 50대는 84.8%, 60대이상은 66.7%로 나타남. 기초수급의 경우 60대 이상이 28.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차상위는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유형별로는 사별이 기초수급자가 많으며, 차상위는 이혼/별거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미혼은 일반가구가 96.0%이며 기혼은 100.0%로 나타남. 사별/이혼/별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거주 기간별로는 1~2년미만이 기초생활 3.1%, 차상위가구 2.6%, 일반가구 94.3%임. 2년~5년미만은 기초생활 4.8%, 차상위가구 1.3%, 일반가구 93.9%임. 5년~10년미만은 기초생활 10.6%, 차상위가구 7.2%, 일반가구 82.3%임. 10년~20년미만은 기초생

활 15.8%, 차상위가구 5.3%, 일반가구 78.9%임. 20년 이상은 기초생활 26.6%, 차상위가구 5.8%, 일반가구 67.6% 순으로 나타남. 혼자 사는 기간이 오래 될수록 기초생활 수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근로소득별로는 근로소득 없음이 기초생활 29.6%, 차상위 5.8%, 일반가구 64.6%로 나타남. 100만원미만도 기초생활 26.6%, 차상위 5.4%, 일반가구 68.0%로 나타남. 100만원이상에서는 일반가구가 91.0%이상으로 나타남

〈표 3-20〉 경제적 상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기초생활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전 체	400	57(14.3)	19(4.8)	324(80.9)	
연령	20-29세	43	0(0.0)	0(0.0)	100.0(43)
	30-39세	51	0(0.0)	1(1.9)	50(98.1)
	40-49세	62	3(4.6)	5(7.6)	54(87.8)
	50-59세	74	7(9.2)	4(6.0)	63(84.8)
	60세 이상	170	48(28.1)	9(5.3)	113(66.7)
혼인	기혼	18	0(0.0)	0(0.0)	18(100.0)
	미혼	124	2(1.6)	3(2.4)	119(96.0)
	이혼/별거	86	11(12.4)	7(8.5)	68(79.1)
	사별	172	45(26.0)	9(5.1)	118(68.9)
1인 거주기간	1년~2년 미만	32	1(3.1)	1(2.6)	30(94.3)
	2년~5년 미만	79	4(4.8)	1(1.3)	74(93.9)
	5년~10년 미만	76	8(10.6)	5(7.2)	62(82.3)
	10년~20년미만	112	18(15.8)	6(5.3)	89(78.9)
	20년 이상	101	27(26.6)	6(5.8)	68(67.6)
월평균 근로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41(29.6)	8(5.8)	89(64.6)
	100만원 미만	52	14(26.6)	3(5.4)	35(68.0)
	100~200만원 미만	103	3(2.7)	6(6.3)	94(91.0)
	200~300만원 미만	79	0(0.0)	2(2.3)	77(97.7)
	300만원 이상	28	0(0.0)	0(0.0)	28(100.0)

### 3) 주거상태

#### 가) 여성 1인가구 집 점유형태

- 조사결과 집 점유형태에서 자가 3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는 공공임대주택 14.3%, 보증금 있는 연세 14.1%, 보증금 있는 월세 13.6%, 사글세 10.5%, 무상 10.1%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는 보증금 있는 월세는 28.8%가 가장 많았으며 사글세도 20.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았음. 30대는 보증금 있는 연세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보증금 있는 월세 24.3%로 나타남. 40대는 보증금 있는 월세 2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자가 24.1%로 나타남. 50대는 자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공공임대주택 18.7%로 나타남. 60세 이상은 자가 47.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공공임대 주택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2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많을수록 자가와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근로소득별로는 특이하게도 근로소득이 없어도 자가 44.4%로 다른 근로소득 보다 많았으며, 공공임대주택 24.5%로 다른 근로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비율이 높았으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조사대상자 표집 중 60대 이상이 많아 나이가 많아 소득활동은 못하지만 자가주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과 월평균 근로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1〉 주거 점유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연세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공공 임대 주택	무상	통계량 (X <sup>2</sup> /P)
전 체	400	133(33.2)	16(4.0)	57(14.1)	55(13.6)	42(10.5)	57(14.3)	40(10.1)	-
연령	20-29세	43	3(7.4)	3(7.4)	10(22.2)	12(27.8)	9(20.5)	0(0.0)	6(14.8)
	30-39세	51	10(20.5)	2(3.8)	17(32.8)	12(24.3)	4(7.7)	1(1.9)	5(9.0)
	40-49세	62	15(24.1)	3(4.9)	12(18.8)	17(27.0)	9(13.9)	4(6.3)	3(4.9)
	50-59세	74	24(32.1)	5(6.5)	10(13.0)	8(11.4)	11(14.7)	14(18.7)	3(3.6)
	60세 이상	170	80(47.4)	3(1.8)	9(5.3)	5(2.9)	10(5.9)	39(22.8)	24(14.0)
가구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61(44.4)	0(0.0)	5(3.5)	7(5.2)	11(7.9)	34(24.5)	20(14.5)
	100만원 미만	52	15(28.5)	3(6.0)	9(17.9)	5(9.5)	5(9.3)	11(21.2)	4(7.7)
	100-200만원 미만	103	25(23.9)	8(7.9)	11(10.5)	24(22.8)	14(13.2)	11(10.3)	12(11.3)
	200-300만원 미만	79	21(27.1)	3(3.5)	25(31.3)	15(19.0)	11(14.0)	1(1.3)	3(3.8)
	300만원 이상	28	11(38.2)	2(7.1)	7(24.2)	4(14.2)	2(6.2)	1(3.6)	2(6.4)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01

## 나) 연세 또는 월세 비중 및 지출

## (1) 연세 또는 월세 비중

- 자가소유자를 제외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대부분은 월세(61.0%)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는 연세가 43.3%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고 40대는 월세가 66.5%로 가장 많으며 60대이상은 무상이 2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무상의 경우 20대 17.3%, 30대 11.9%, 40대 7.0%, 50대 5.8%로 40대와 50대가 가장 적음. 조사결과 4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혜택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음
- 통계적으로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2〉 연세 또는 월세 비중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연세	월세	무상	통계량 ( $\chi^2/P$ )
전 체		251	58(22.9)	153(61.0)	40(16.1)	-
연령	20-29세	37	10(26.0)	21(56.7)	6(17.3)	28.04***
	30-39세	39	17(43.3)	17(44.8)	5(11.9)	
	40-49세	44	12(26.5)	29(66.5)	3(7.0)	
	50-59세	45	10(21.2)	33(73.0)	3(5.8)	
	60세 이상	87	10(11.5)	53(60.9)	24(27.6)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 (2) 연세지출금액

- 연세의 경우 지출금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492만원 정도로 나타남. 500만원이상~600만원미만 2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는 평균 346만원정도, 30대는 평균 595만원정도, 40대는 평균 544만원정도, 50대는 499만원정도, 60세대이상은 394만원정도로 30대에서 연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며 그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연세지출이 낮아짐
- 월평균근로소득별 연세지출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없어도 평균 309만원정도, 100

만원미만은 평균 359만원정도,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은 평균 467만원정도,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은 평균 556만원정도, 300만원이상은 평균 636만원정도로 나타남.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연세지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연령과 월평균근로소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3〉 연세 지출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평균	통계량 (χ <sup>2</sup> /P)	
연세	58	8(14.4)	14(23.8)	15(26.8)	10(16.7)	10(18.2)	492.4	-	
연령	20-29세	10	5(55.6)	1(11.1)	2(22.2)	0(0.0)	1(11.1)	345.6	26.53*
	30-39세	17	0(0.0)	3(17.5)	4(21.7)	5(27.5)	6(33.3)	595.3	
	40-49세	12	0(0.0)	4(33.3)	4(33.3)	2(17.5)	2(15.8)	543.9	
	50-59세	10	1(10.4)	3(29.2)	2(18.8)	2(20.8)	2(20.8)	498.7	
	60세 이상	10	2(20.0)	3(30.1)	4(40.0)	1(9.9)	0(0.0)	393.9	
근로소득	근로소득 없음	5	2(42.2)	2(37.4)	1(20.4)	0(0.0)	0(0.0)	308.9	30.06*
	100만원 미만	10	5(50.4)	1(9.9)	2(19.7)	1(9.7)	1(10.3)	359.4	
	100-200만원 미만	11	1(9.8)	3(27.8)	5(44.4)	0(0.0)	2(18.0)	466.5	
	200-300만원 미만	25	0(0.0)	6(24.3)	7(26.6)	9(30.8)	5(18.3)	555.6	
300만원 이상	7	0(0.0)	2(26.7)	1(15.0)	1(15.0)	3(43.3)	635.5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5

### (3) 월세지출금액

- 월세의 경우 지출금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2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10만원이상~20만원미만이 22.4%로 가장 많음
- 연령별로 20대는 평균 42만원정도, 30대는 49만원정도, 40대는 37만원정도, 50대는 25만원정도, 60세이상은 12만원정도로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월세지출이 낮게 나타남
- 월평균근로소득별 월세지출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없어도 평균 15만원정도, 100만원미만은 평균 19만원정도,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은 평균 35만원정도,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은 평균 45만원정도, 300만원이상은 평균 35만원정도로 나타남.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월세지출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통계적으로 연령과 월평균근로소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4〉 월세 지출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평균	통계량 (χ <sup>2</sup> /P)	
월세	153	31(20.1)	34(22.4)	34(21.9)	24(15.4)	31(20.2)	27.8	-	
연령	20-29세	21	0(0.0)	0(0.0)	4(18.6)	11(52.5)	6(28.8)	41.5	104.81***
	30-39세	17	0(0.0)	2(11.3)	1(5.6)	4(22.6)	10(60.5)	48.7	
	40-49세	29	0(0.0)	5(16.8)	10(35.7)	5(16.8)	9(30.7)	36.6	
	50-59세	33	6(18.1)	8(23.0)	11(34.0)	4(11.5)	4(13.4)	25.3	
	60세 이상	53	25(47.2)	20(37.7)	7(13.3)	0(0.0)	1(1.9)	12.2	
결혼유형	근로소득 없음	52	23(44.1)	17(32.7)	6(11.2)	5(10.1)	1(1.9)	14.7	92.73***
	100만원 미만	20	4(20.3)	9(45.4)	6(28.9)	0(0.0)	1(5.4)	18.5	
	100~200만원 미만	48	4(8.3)	5(9.7)	20(40.9)	7(14.3)	13(26.7)	34.8	
	200~300만원 미만	27	0(0.0)	2(6.7)	2(9.1)	9(32.3)	14(51.9)	45.3	
	300만원 이상	7	0(0.0)	2(30.2)	0(0.0)	3(40.1)	2(29.8)	34.7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01

## 다) 주택유형

- 전체 조사응답자의 주택유형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30.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 30.6%, 연립/다세대주택 23.8%, 원룸 10.9%, 오피스텔 1.7%, 셰어하우스 1.7% 순으로 나타남. 홍승아외(2017)의 전국 1인가구 연구를 보면, 여성 1인가구들은 원룸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일반아파트, 단독주택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는 원룸이 41.0%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연립/다세대주택이 35.2%로 가장 많았음. 40대도 연립/다세대주택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는 아파트가 40.7%로 가장 많았음. 60세이상은 단독주택이 47.9%로 나타남
- 혼인유형별로 기혼은 연립/다세대주택이 42.5%로 가장 많으며, 미혼은 원룸이 28.1%로 가장 많음. 이혼/별거인 경우도 연립/다세대주택이 36.1%로 가장 많으며, 사별인 경우만 단독주택이 46.0%로 나타남. 셰어하우스의 경우 미혼만이 5.4%로 나타남
- 조사결과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전국(17.9%)과 비교했을 때 단독주택 거주자가 30.6%로 나타나 단독주택에 대한 안전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
- 통계적으로 연령과 혼인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3-25〉 1인 가구 주택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여안숙	쉐어하우스	공장건물사택	통계량(X <sup>2</sup> /P)
전체	400	122(30.6)	95(23.8)	123(30.8)	44(10.9)	7(1.7)	1(0.2)	7(1.7)	1(0.2)	-
연령	20-29세	43	5(11.5)	10(22.9)	6(14.8)	18(41.0)	1(2.5)	0(0.0)	3(7.4)	97.78***
	30-39세	51	7(12.8)	18(35.2)	13(24.9)	7(14.2)	4(7.7)	0(0.0)	2(3.3)	
	40-49세	62	15(23.8)	22(35.3)	12(20.1)	12(19.1)	1(1.6)	0(0.0)	0(0.0)	
	50-59세	74	15(19.6)	23(30.7)	30(40.7)	4(5.4)	1(1.1)	0(0.0)	2(2.5)	
	60세 이상	170	81(47.9)	23(13.5)	62(36.3)	3(1.8)	0(0.0)	1(0.6)	0(0.0)	
인혼	기혼	18	4(20.9)	8(42.5)	7(36.6)	0(0.0)	0(0.0)	0(0.0)	0(0.0)	102.42***
	미혼	124	17(13.9)	28(22.6)	31(24.7)	35(28.1)	7(5.5)	0(0.0)	7(5.4)	
	이혼/별거	86	22(25.8)	31(36.1)	25(29.0)	7(8.0)	0(0.0)	0(0.0)	0(0.0)	
	사별	172	79(46.0)	29(16.6)	61(35.6)	2(1.2)	0(0.0)	1(0.6)	0(0.0)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01

라) 주거지 선택 이유

- 조사결과 주거지 선택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용이 저렴해서' 3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25.2%,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24.6%, '부모, 자녀, 친지, 친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7.1%, '교통이 편리해서' 4.5% 순으로 나타남
- 세대별로 보면 2030세대인 경우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59.2%, 4050세대인 경우 비용이 저렴해서 39.2%, 6080세대는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가 39.2%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표 3-26〉 주거지 선택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비용이 저렴해서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부모자녀 친지 친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가주지와 주변지역이 안전해서	주거환경이 좋아서	교통이 편리해서	여가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	공원문화 시설 등 편의시설이 많아서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자연경관이 좋아서
전체	400	101(25.2)	121(30.2)	98(24.6)	29(7.1)	5(1.3)	16(4.1)	18(4.5)	1(0.3)	3(0.7)	6(1.5)	2(0.5)
연령	20-29	43	24(54.9)	8(18.8)	5(11.5)	0(0.0)	1(2.5)	0(0.0)	3(7.4)	1(2.5)	1(2.5)	0(0.0)
	30-39	51	32(62.8)	7(13.4)	6(10.9)	1(1.9)	0(0.0)	6(10.9)	0(0.0)	0(0.0)	0(0.0)	0(0.0)
	40-49	62	23(36.6)	15(24.4)	13(20.8)	3(4.9)	0(0.0)	2(3.3)	5(8.2)	0(0.0)	0(0.0)	1(1.6)
	50-59	74	15(20.9)	38(51.7)	8(11.2)	3(3.6)	1(1.4)	5(6.5)	2(2.5)	0(0.0)	1(1.1)	1(1.4)
	60세 이상	170	7(4.1)	53(31.0)	67(39.2)	22(12.9)	3(1.8)	4(2.3)	8(4.7)	0(0.0)	1(1.6)	5(2.9)

### 마) 주택 구할 때 어려움 점

- 조사결과 주택 구할 때 어려움 점은 '너무 높은 보증금/월세'가 6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좋은 집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부족' 19.6%,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매물 부족' 10.1%,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5.4%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너무 높은 보증금/월세'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 학력별로 학력이 낮을수록 정보부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됨. 기타(무학)의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부족이 45.2%로 다른 학력보다 많았음
- 혼인유형별로도 기혼(52.0%), 미혼(77.0%), 이혼/별거(67.2%), 사별(47.7%)에서 '너무 높은 보증금/월세'가 주택구할 때 어렵다고 조사됨
- 보증금/월세가 높은 어려움외 주택관련 정보부족,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부족의 문제가 주택구입시 문제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연령, 혼인,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3-27〉 1인 여성가구 주택 구할 때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좋은 집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부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매물 부족	너무 높은 보증금/월세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기타	없다	통계량 ( $\chi^2/P$ )
전 체	400	78(19.6)	40(10.1)	245(61.2)	22(5.4)	1(0.2)	14(3.5)	-
연령	20-29세	43	7(16.4)	2(4.1)	31(72.2)	3(7.4)	0(0.0)	0(0.0)
	30-39세	51	6(11.5)	5(9.6)	39(77.0)	1(1.9)	0(0.0)	0(0.0)
	40-49세	62	8(12.9)	4(6.6)	45(72.6)	3(4.6)	0(0.0)	2(3.3)
	50-59세	74	13(17.2)	8(10.3)	50(67.4)	2(2.5)	0(0.0)	2(2.7)
	60세 이상	170	45(26.3)	22(12.9)	80(46.8)	13(7.6)	1(0.6)	10(5.8)
가구형태	중졸 이하	115	25(21.5)	10(8.7)	66(57.7)	6(5.2)	1(0.9)	7(6.1)
	고졸	113	16(13.7)	13(11.3)	75(66.0)	8(7.2)	0(0.0)	2(1.8)
	대졸	122	18(15.1)	10(8.6)	86(70.7)	3(2.2)	0(0.0)	4(3.3)
	대학원 이상	9	1(9.4)	2(23.3)	6(67.3)	0(0.0)	0(0.0)	0(0.0)
	기타(무학)	42	19(45.2)	5(11.9)	12(28.6)	5(11.9)	0(0.0)	1(2.4)
혼인	기혼	18	2(10.8)	5(27.2)	10(52.0)	1(4.5)	0(0.0)	1(5.6)
	미혼	124	14(11.0)	9(7.0)	96(77.0)	4(3.3)	0(0.0)	2(1.6)
	이혼/별거	86	15(17.8)	8(9.2)	58(67.2)	3(3.5)	0(0.0)	2(2.3)
	사별	172	47(27.6)	19(10.9)	82(47.7)	14(8.0)	1(0.6)	9(5.2)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5$ , \*\* $p < .0$

바) 희망 가구형태

- 조사결과 ‘지금처럼 혼자’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원래의 가족과 함께’ 13.6%,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11.4%, ‘배우자와 함께’ 9.9%, ‘각각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며 함께 사는 주거 공동체’ 9.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지금처럼 혼자사는 것’을 선호함. 특히 60세 이상은 66.0%을 보이고 있고, 50-59세는 53.3%으로 조사됨
- 혼인 유형별로는 기혼은 ‘원래의 가족과 함께’가 80.3%으로 높게 나타났고, 미혼은 지금처럼 혼자 43.7%, 이혼/별거에서는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17.4%로 많이 나타남. 혼인유형별로 희망가구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통계적으로 연령과 혼인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표 3-28〉 희망 가구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금처럼 혼자	원래의 가족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각각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며 함께 사는 주거 공동체	모름/무응답	통계량 (χ <sup>2</sup> /P)
전 체	400	220(55.0)	54(13.6)	40(9.9)	46(11.4)	39(9.7)	2(0.5)	-
연령	20-29세	43	16(36.1)	6(14.8)	12(27.8)	7(16.4)	2(4.9)	0(0.0)
	30-39세	51	23(45.4)	4(7.1)	17(33.9)	3(5.2)	3(6.5)	1(1.9)
	40-49세	62	29(47.5)	10(15.8)	5(7.6)	9(14.6)	9(14.5)	0(0.0)
	50-59세	74	39(53.3)	14(18.4)	6(7.6)	9(12.3)	5(7.1)	1(1.4)
	60세 이상	170	112(66.0)	21(12.3)	0(0.0)	18(10.5)	19(11.1)	0(0.0)
혼인	기혼	18	0(0.0)	15(80.3)	3(15.3)	0(0.0)	1(4.4)	0(0.0)
	미혼	124	54(43.7)	10(8.1)	32(25.9)	13(10.1)	14(11.5)	1(0.8)
	이혼/별거	86	48(55.8)	10(11.3)	5(5.4)	15(17.4)	8(8.9)	1(1.2)
	사별	172	118(68.5)	20(11.6)	0(0.0)	18(10.6)	16(9.3)	0(0.0)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1

#### 4) 안전상태

##### 가) 주거지 안전도

- 조사결과 보통이 46.8%, 평균 3.4점(5점척도)로 나타남(<표3> 참조). 위험(불안전+ 매우 불안전)은 8.7%로 나타남. 거주지 안전도는 보통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위험이 18.6%로 위험하다고 생각함. 평균을 비교한 결과 40대가 가장 낮은 3.2점으로 나타남
- 월평균근로소득별로도 300만원이상은 다른 근로소득에 비해 안전(매우안저+안전)(62.3%)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안전에 있어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9〉 주거지 안전도

(단위: 명, %)

구분	사태수	매우 불안전	불안전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종합			[평균]	통계량 ( $\chi^2/P$ )	
							위험	보통	안전			
전 체	400	5(1.4)	29(7.3)	187(46.8)	162(40.5)	16(4.1)	35(8.6)	187(46.8)	178(44.6)	3.4	-	
연령	20-29세	43	1(2.5)	2(4.9)	23(52.5)	15(35.2)	2(4.9)	3(7.4)	23(52.5)	17(40.2)	3.4	61.50***
	30-39세	51	1(1.9)	9(16.7)	22(42.9)	15(29.5)	5(9.0)	9(18.6)	22(42.9)	20(38.5)	3.3	
	40-49세	62	1(1.3)	4(6.3)	37(60.4)	20(32.0)	0(0.0)	5(7.6)	37(60.4)	20(32.0)	3.2	
	50-59세	74	2(2.2)	4(4.9)	37(49.4)	29(39.6)	3(3.8)	5(7.1)	37(49.4)	32(43.4)	3.4	
	60세 이상	170	1(0.6)	11(6.4)	69(40.4)	82(48.5)	7(4.1)	12(7.0)	69(40.4)	89(52.6)	3.5	
월평균근로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1(0.7)	10(7.2)	55(39.6)	65(47.4)	7(5.1)	11(8.0)	55(39.6)	72(52.5)	3.5	5.40
	100만원 미만	52	0(0.0)	1(1.9)	25(48.1)	24(46.0)	2(4.0)	1(1.9)	25(48.1)	26(50.0)	3.5	
	100-200만원만	103	2(1.8)	6(5.7)	62(60.5)	31(30.1)	2(1.9)	8(7.5)	62(60.5)	33(32.0)	3.2	
	200-300만원만	79	2(2.3)	9(11.7)	38(48.7)	26(32.9)	3(4.4)	11(14.0)	38(48.7)	29(37.3)	3.3	
	300만원 이상	28	1(2.9)	3(10.5)	7(24.3)	16(55.2)	2(7.1)	4(13.4)	7(24.3)	18(62.3)	3.5	

주:5점 척도(1매우 불안전 ~5 매우 안전),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1$

##### 나) 주택 및 주변환경 안전도

- 주택 및 주변환경 안전도를 주변지역의 폭력·범죄(성폭력, 강도, 상해 등)로부터 골목 등 안전도, 주거공간의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주택보안·도둑침입에 대한 위험정도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조사함(<표3-30> 참조)

- 첫째, 주택 및 주변환경 안전도를 주변지역의 폭력·범죄로부터 골목 등 안전도조사결과 보통이 42.8%, 평균 3.3점으로 나타남. 위험(불안전 및 매우 불안전)은 15.8%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위험이 23.8%로 주변지역 폭력·범죄로부터 골목 안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함. 그 다음이 60대이상으로 17.0%가 위험하다고 응답함
- 혼인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혼과 사별의 경우 각각 17.6%, 19.1%가 주변지역 폭력·범죄로부터 골목 안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함
- 둘째, 주거공간의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조사결과 보통이 42.0%, 평균 3.3점으로 나타남. 위험(불안전 및 매우 불안전)은 18.1%로 나타남
-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와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위험이 각각 22.2%, 21.1%로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정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함. 60대이상도 20.4%가 위험하다고 응답함
- 혼인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별, 미혼, 이혼/별거의 경우 각각 20.8%, 19.6%, 13.1%가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정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함
- 셋째, 주택보안·도둑침입에 대한 위험정도를 조사결과 안전이 40.8%, 평균 3.3점으로 나타남. 위험(불안전 및 매우 불안전)은 18.6%로 나타남
-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위험이 27.6%로 주택보안·도둑침입에 대해 위험하다고 생각함. 그 다음이 50대로 20.4%가 위험하다고 응답함
- 혼인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혼의 경우 22.3%가 주택보안·도둑침입에 대해 위험하다고 생각함
- 조사결과 2030세대와 미혼은 주변지역 폭력·범죄·소음·주택보안·도둑위험정도에서 다른 세대와 다른 혼인유형보다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0〉 주택 및 주변환경 안전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불안전	불안전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종합			[평균]	통계량 ( $\chi^2/P$ )	
							위험	보통	안전			
주변지역 폭력·범죄로부터 안전도	400	5(1.3)	58(14.6)	171(42.8)	129(32.3)	36(9.1)	63(15.8)	171(42.8)	166(41.4)	3.3	-	
연령	20-29세	43	2 (4.9)	8 (18.8)	23 (54.1)	8 (19.7)	1 (2.5)	10 (23.8)	23 (54.1)	10 (22.2)	3.0	25.40
	30-39세	51	0 (0.0)	8 (14.8)	32 (62.8)	9 (18.6)	2 (3.8)	8 (14.8)	32 (62.8)	11 (22.4)	3.1	
	40-49세	62	0 (0.0)	7 (11.2)	38 (60.7)	16 (26.4)	1 (1.6)	7 (11.2)	38 (60.7)	17 (28.1)	3.2	
	50-59세	74	0 (0.0)	10 (13.3)	31 (42.4)	25 (34.2)	7 (10.1)	10 (13.3)	31 (42.4)	33 (44.3)	3.4	
	60세 이상	170	3 (1.8)	26 (15.2)	47 (27.5)	70 (40.9)	25 (14.6)	29 (17.0)	47 (27.5)	94 (55.5)	3.5	
혼인	기혼	18	0(0.0)	1(5.3)	11(59.3)	5(29.9)	1(5.5)	1(5.3)	11(59.3)	6(35.4)	3.4	82.46***
	미혼	124	2(1.7)	20(15.9)	70(56.2)	30(23.9)	3(2.3)	22(17.6)	70(56.2)	33(26.2)	3.1	
	이혼/별거	86	0(0.0)	8(9.0)	46(53.1)	24(27.7)	9(10.2)	8(9.0)	46(53.1)	33(37.9)	3.4	
	사별	172	3(1.7)	30(17.4)	45(26.2)	70(40.9)	24(13.8)	33(19.1)	45(26.2)	94(54.7)	3.5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도	400	9(2.3)	63(15.8)	168(42.0)	121(30.2)	39(9.7)	72(18.1)	168(42.0)	160(39.9)	3.3	-	
연령	20-29세	43	2 (4.9)	7 (17.2)	22 (50.8)	11 (24.6)	1 (2.5)	10 (22.2)	22 (50.8)	12 (27.1)	3.0	30.26*
	30-39세	51	2 (3.8)	9 (17.2)	32 (63.6)	5 (9.6)	3 (5.7)	11 (21.1)	32 (63.6)	8 (15.3)	3.0	
	40-49세	62	0 (0.0)	6 (9.6)	37 (59.4)	17 (28.1)	2 (3.0)	6 (9.6)	37 (59.4)	19 (31.0)	3.2	
	50-59세	74	0 (0.0)	11 (15.5)	29 (39.1)	27 (36.9)	6 (8.5)	11 (15.5)	29 (39.1)	34 (45.4)	3.4	
	60세 이상	170	5 (2.9)	30 (17.5)	48 (28.1)	61 (35.7)	27 (15.8)	35 (20.4)	48 (28.1)	88 (51.5)	3.4	
혼인	기혼	18	0(0.0)	1(5.5)	10(53.7)	7(36.4)	1(4.4)	1(5.5)	10(53.7)	7(40.8)	3.4	91.16***
	미혼	124	3(2.5)	21(17.1)	70(56.3)	28(22.6)	2(1.5)	24(19.6)	70(56.3)	30(24.1)	3.0	
	이혼/별거	86	1(1.1)	10(12.0)	38(44.7)	27(31.7)	9(10.4)	11(13.1)	38(44.7)	36(42.2)	3.4	
	사별	172	5(2.9)	31(17.9)	50(29.0)	59(34.3)	27(15.9)	36(20.8)	50(29.0)	86(50.2)	3.4	
주택보안도둑침입 위험정도	400	8(1.9)	67(16.7)	162(40.6)	118(29.5)	45(11.2)	75(18.6)	162(40.6)	163(40.8)	3.3	-	
연령	20-29세	43	2 (4.9)	6 (14.8)	23 (53.2)	7 (17.2)	4 (9.8)	8 (19.7)	23 (53.2)	12 (27.1)	3.1	31.98*
	30-39세	51	3 (5.2)	11 (22.4)	25 (50.0)	9 (18.6)	2 (3.8)	14 (27.6)	25 (50.0)	11 (22.4)	2.9	
	40-49세	62	0 (0.0)	7 (11.5)	31 (50.2)	19 (31.3)	4 (7.0)	7 (11.5)	31 (50.2)	24 (38.3)	3.3	
	50-59세	74	0 (0.0)	15 (20.4)	28 (38.0)	24 (32.6)	7 (9.0)	15 (20.4)	28 (38.0)	31 (41.6)	3.3	
	60세 이상	170	3 (1.8)	27 (15.8)	55 (32.2)	58 (33.9)	28 (16.4)	30 (17.5)	55 (32.2)	85 (50.3)	3.5	
혼인	기혼	18	0(0.0)	2(10.8)	10(53.8)	6(35.4)	0(0.0)	2(10.8)	10(53.8)	6(35.4)	3.2	70.54***
	미혼	124	5(3.8)	23(18.5)	60(48.2)	30(23.8)	7(5.7)	28(22.3)	60(48.2)	37(29.5)	3.1	
	이혼/별거	86	0(0.0)	11(13.2)	40(47.2)	25(29.6)	9(10.1)	11(13.2)	40(47.2)	34(39.6)	3.4	
	사별	172	3(1.7)	31(17.8)	52(30.3)	57(33.0)	29(17.1)	34(19.6)	52(30.3)	86(50.1)	3.5	

주:5점 척도(1매우 불안전 ~5 매우 안전),  $\chi^2$ 는 카이제곱 값, \*\*p<.01, \*\*\*p<.001

## 다) 공동주택 선호 유형

○ 조사결과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에 살 의향이 없음'이 42.4%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는 친교 및 운동/ 여가를 위한 공동 공간 있는 주택' 26.4%, '여성들만 거주하는 공동주택' 16.9%, '주택을 소유한 어른신과 청/장년이 함께 사는 주택' 과 '침실은 따로 사용하지만 화장실, 욕실,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주택'이 각각 5.2%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만 '원룸과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는 친교 및 운동/ 여가를 위한 공동 공간 있는 주택'(45.9%)거주를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30대는 '여성들만 거주하는 공동주택'(21.3%)을 다른 세대보다 더 선호함. 20·50·60세이상은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에 살 의향이 없음'이 각각 38.5%, 49.1%, 45.6%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상황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가구 다음으로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에 살 의향이 없음'(39.9%)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택을 소유한 어른신과 청/장년이 함께 사는 주택'(13.8%)의 경우 다른 계층보다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원룸과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는 친교 및 운동/여가를 위한 공동 공간 있는 주택'은 다른 계층보다 일반가구(28.4%)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원룸과 오피스텔처럼 독립공간이 있는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을 소유한 어른신과 청/장년이 함께 사는 주택의 경우 6080세대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표 3-31〉 1인 여성가구 공동주택 선호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인가구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에 살 의향이 없음	침실은 따로 사용하지만 화장실, 욕실,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주택	방에는 욕실/화장실이 있지만 부엌, 거실 등은 공유하는 주택	원룸과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는 친교 및 운동, 여가를 위한 공동공간 있는주택	주택을 소유한 어른신과 청/장년이 함께 사는 주택	여성들만 거주하는 공동주택	통계량 (χ2/P)	
전 체	400	170(42.4)	21(5.2)	16(3.9)	106(26.4)	21(5.2)	67(16.9)	-	
연령	20-29세	43	17(38.5)	7(15.5)	1(2.5)	10(23.8)	1(2.5)	7(17.2)	17.81
	30-39세	51	22(43.5)	0(0.0)	0(0.0)	17(33.3)	1(1.9(1)	11(21.3)	
	40-49세	62	17(27.4)	3(5.6(3)	5(7.6)	28(45.9)	0(0.0)	8(13.5)	
	50-59세	74	36(49.1)	4(4.9(4)	1(1.1)	17(23.4)	1(1.4(1)	15(20.1)	
	60세 이상	170	77(45.6)	7(4.1(7)	9(5.3)	33(19.3)	18(10.5)	26(15.2)	
경제 상황	기초생활	57	23(39.9)	6(9.8)	1(1.7)	10(17.4)	8(13.8)	10(17.4)	23.42***
	차상위가구	19	6(31.3)	2(8.6)	2(9.7)	4(20.1)	1(5.2)	5(25.2)	
	일반가구	324	141(43.5)	13(1.2)	13(1.9)	92(28.4)	12(3.7)	53(16.3)	

χ²는 카이제곱 값, \*\*\*p<.001

## 라) 여성 1인 가구의 안전도

-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얼마나 안전한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위험(매우험함+약간 위험함)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2.2점으로 낮아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위험한 것으로 생각함(<표3-32> 참조)
- 연령별로 다른 세대보다 20대와 30대가 각각 76.2%, 81.4%로 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도 각각 1.9점으로 전체평균보다 낮았음
- 혼인유형별로도 미혼이 83.6%로 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2030세대와 미혼은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여성 1인가구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함
- 통계적으로 연령과 혼인유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2〉 여성 1인가구 대비 안전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위험함	약간 위험함	보통임	대체로 안전함	매우 안전함	종합			[평균]	통계량 ( $\chi^2/P$ )	
							위험	보통	안전			
전 체	400	93(23.2)	172(43.1)	110(27.5)	23(5.7)	2(0.5)	265(66.3)	110(27.5)	25(6.2)	2.2	-	
연령	20-29세	43	17(38.5)	16(37.7)	7(16.4)	3(7.4)	0(0.0)	33(76.2)	7(16.4)	3(7.4)	1.9	28.17*
	30-39세	51	16(30.9)	26(50.6)	9(16.7)	1(1.9)	0(0.0)	42(81.4)	9(16.7)	1(1.9)	1.9	
	40-49세	62	18(28.4)	27(43.5)	16(25.1)	1(1.3)	1.6(1)	45(71.9)	16(25.1)	2(3.0)	2.0	
	50-59세	74	17(23.1)	33(44.3)	21(28.8)	3(3.8)	0(0.0)	50(67.4)	21(28.8)	3(3.8)	2.1	
	60세 이상	170	26(15.2)	71(41.5)	58(33.9)	15(8.8)	1(0.6)	96(56.7)	58(33.9)	16(9.4)	2.4	
혼인	기혼	18	6(31.7)	4(21.0)	9(47.4)	0(0.0)	0(0.0)	10(52.6)	9(47.4)	0(0.0)	2.2	51.09***
	미혼	124	44(35.5)	60(48.1)	17(13.8)	3(2.6)	0(0.0)	104(83.6)	17(13.8)	3(2.6)	1.8	
	이혼/별거	86	17(20.4)	39(45.5)	24(28.5)	4(4.4)	1(1.2)	57(65.9)	24(28.5)	5(5.6)	2.2	
	사별	172	26(14.9)	70(40.6)	60(34.8)	16(9.2)	1(0.6)	95(55.4)	60(34.8)	17(9.8)	2.4	

주:5점 척도(1매우 위험함 ~5 매우 안전함),  $\chi^2$ 는 카이제곱 값, \*p<.05, \*\*\*p<.001

## 마) 범죄예방 및 대처 교육 경험 및 요구도

- 범죄예방 및 대처 교육 경험조사결과 '있음' 17.3%, '없음' 82.7%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범죄예방 교육 경험 '있음'이 40~49세 12.5%, 50~59세 11.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반대로 20대는 범죄예방 교육 경험 '있음'이 31.2%, 60세이

상도 18.7%로 나타나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범죄예방 및 대처 등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결과 ‘아니다’가 53.1%로 나타남
- 범죄예방 및 대처교육 받기를 원하는 경우 연령별로 30대가 69.4%로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20대로 59.0%가 범죄예방 및 대처교육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20대와 30대는 다른 세대보다 여성 1인가구의 범죄피해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교육받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유형별로 미혼이 범죄예방 및 대처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67.0%로 다른 혼인유형보다 더 많으며 그 다음이 사별 41.2%로 나타남. 미혼도 다른 혼인유형보다 여성 1인가구의 범죄피해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받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거주기간이 2년에서 5년미만이 범죄예방 및 대체교육 요구도(55.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1년에서 2년미만(51.1%)임
- 통계적으로 혼인유형, 거주기간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3〉 범죄예방 및 대처교육 경험 및 요구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있음	통계량( $\chi^2/P$ )
범죄예방 및 대체교육 경험		400	331(82.7)	69(17.3)	-
연령	20-29세	43	30(68.8)	13(31.2)	34.35**
	30-39세	51	43(84.7)	8(15.3)	
	40-49세	62	54(87.5)	8(12.5)	
	50-59세	74	66(88.8)	8(11.2)	
	60세 이상	170	138(81.3)	32(18.7)	
구분		사례수	아니다	그렇다	통계량( $\chi^2/P$ )
범죄예방 및 대체교육 요구도		400	212(53.1)	188(46.9)	-
연령	20-29세	43	18(41.0)	25(59.0)	5.60
	30-39세	51	16(30.6)	35(69.4)	
	40-49세	62	35(56.1)	27(43.9)	
	50-59세	74	42(56.5)	32(43.5)	
	60세 이상	170	102(60.2)	68(39.8)	
혼인	기혼	18	15(79.1)	4(20.9)	15.33**
	미혼	124	41(33.0)	83(67.0)	
	이혼/별거	86	56(65.0)	30(35.0)	
	사별	172	101(58.8)	71(41.2)	
1인 거주기간	1년~2년 미만	32	16(48.9)	16(51.1)	10.08**
	2년~5년 미만	79	36(45.0)	43(55.0)	
	5년~10년 미만	76	41(54.5)	35(45.5)	
	10년~20년미만	112	59(52.1)	54(47.9)	
	20년 이상	101	61(60.6)	40(39.4)	

$\chi^2$ 는 카이제곱 값, \*\*p<.01

## 5) 건강상태

## 가) 신체적 건강상태

- 신체적 건강을 스스로 평가하는 5점 척도 조사결과에서는 건강하지 않음(전혀 건강하지 않음+별로 건강하지 않음)이 42.5%로 나타났다. 평균 2.9로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평균 2.3으로 다른 세대보다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50대도 평균 3.0으로 건강하지 않음이 34.5%로 나타남
- 혼인유형별로는 사별이 평균 2.4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건강하지 않음이 66.8%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근로소득별로는 근로소득 없음이 평균 2.2로 가장 낮았으며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평균이 낮게 나타남. 즉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혼인유형, 월평균근로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표 3-34〉 건강상태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별로 건강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종합			평균	통계량 (X <sup>2</sup> /P)	
							건강하지 않음	보통	건강함			
전 체	400	37(9.4)	132(33.1)	90(22.6)	122(31.4)	18(4.5)	170(42.5)	90(22.6)	140(34.9)	2.9	-	
연령	20-29세	43	1(2.5)	4(9.0)	11(25.4)	20(46.8)	7(16.4)	5(11.5)	11(25.4)	27(63.2)	3.7	7.37
	30-39세	51	2(3.3)	5(9.0)	20(39.1)	22(42.9)	3(5.7)	6(12.3)	20(39.1)	25(48.6)	3.4	
	40-49세	62	3(4.9)	14(22.5)	13(21.5)	29(46.2)	3(4.9)	17(27.4)	13(21.5)	32(51.1)	3.2	
	50-59세	74	4(5.2)	22(29.3)	20(27.5)	25(34.0)	3(4.1)	26(34.5)	20(27.5)	28(38.0)	3.0	
	60세 이상	170	28(16.4)	88(52.0)	26(15.2)	26(15.2)	2(1.2)	116(68.4)	26(15.2)	28(16.4)	2.3	
혼인	기혼	18	0(0.0)	2(10.8)	5(25.4)	11(58.5)	1(5.3)	2(10.8)	5(25.4)	12(63.8)	3.6	126.47***
	미혼	124	3(2.2)	16(13.0)	36(29.3)	60(48.2)	9(7.3)	19(15.2)	36(29.3)	69(55.4)	3.5	
	이혼/별거	86	10(11.5)	24(28.4)	22(26.0)	22(25.9)	7(8.2)	34(39.9)	22(26.0)	29(34.1)	2.9	
	사별	172	25(14.5)	90(52.4)	27(15.7)	29(16.9)	1(0.6)	115(66.8)	27(15.7)	30(17.4)	2.4	
월근로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29(20.8)	75(54.4)	11(8.0)	21(15.3)	2(1.5)	104(75.3)	11(8.0)	23(16.7)	2.2	63.20***
	100만원 미만	52	5(9.8)	19(35.9)	15(29.2)	10(19.0)	3(6.1)	24(45.6)	15(29.2)	13(25.2)	2.8	
	100~200만원 미만	103	1(1.0)	27(25.9)	27(25.9)	43(41.4)	6(5.8)	28(26.9)	27(25.9)	49(47.2)	3.3	
	200~300만원 미만	79	3(3.4)	11(14.0)	28(35.2)	33(42.3)	4(5.2)	14(17.4)	28(35.2)	37(47.4)	3.3	
	300만원 이상	28	0(0.0)	1(3.5)	10(34.7)	15(52.1)	3(9.7)	1(3.5)	10(34.7)	17(61.7)	3.7	

주:5점 척도(전혀 건강하지 않음 ~5 매우 건강함),  $\chi^2$ 는 카이제곱 값, \*\*\*p<.001

나) 정신건강상태

- 정신적 건강을 스스로 평가하는 5점 척도 조사결과에서는 건강함(매우 건강함+대체로 건강함)이 49.4%로 나타났음. 평균 3.5로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적 건강상태가 보통으로 나타남
- 세대별로는 2030세대가 평균 3.7로 다른 세대보다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평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는 1년~2년 미만인 평균 3.8로 가장 높으며 거주기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평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근로소득별로는 근로소득 없음이 평균 3.1로 가장 낮았으며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평균이 낮게 나타남. 즉 정신적 건강도 건강하지 않을수록 소득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세대, 거주기간별, 월평균근로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표 3-35〉 정신건강상태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별로 건강하지 않음	보통 임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종합			평균	통계량 ( $\chi^2/P$ )	
							건강 하지 않음	보통	건강 함			
전 체	400	7(1.7)	11(8.4)	149(37.2)	144(36.0)	54(13.4)	54(13.5)	149(37.2)	197(49.4)	3.5	-	
연령	20-29세	43	0(0.0)	2(5.1)	15(35.2)	24(54.9)	3(7.4)	1(2.5)	15(35.2)	27(62.3)	3.7	122.13***
	30-39세	51	0(0.0)	0(0.0)	19(38.0)	22(43.5)	9(18.6)	0(0.0)	19(38.0)	32(62.0)	3.8	
	40-49세	62	2(3.3)	3(4.6)	22(35.0)	26(41.2)	10(15.8)	5(7.9)	22(35.0)	35(57.1)	3.6	
	50-59세	74	3(3.6)	9(12.8)	26(35.0)	20(27.0)	16(21.7)	12(16.3)	26(35.0)	36(48.7)	3.5	
	60세 이상	170	2(1.2)	34(19.9)	67(39.2)	53(31.0)	15(8.8)	36(21.0)	67(39.2)	68(39.8)	3.3	
1인가구 거주기간	1년~2년 미만	32	0(0.0)	1(3.1)	7(22.3)	20(62.0)	4(12.6)	1(3.1)	7(22.3)	24(74.6)	3.8	52.39***
	2년~5년 미만	79	0(0.0)	5(6.4)	31(39.1)	27(34.7)	16(19.8)	5(6.4)	31(39.1)	43(54.5)	3.7	
	5년~10년 미만	76	3(3.8)	6(7.4)	35(46.7)	25(32.8)	7(9.3)	9(11.2)	35(46.7)	32(42.1)	3.4	
	10년~20년미만	112	1(0.7)	18(15.9)	44(39.4)	39(34.5)	11(9.4)	19(16.6)	44(39.4)	49(43.9)	3.4	
	20년 이상	101	3(3.0)	18(17.4)	31(30.6)	33(32.9)	16(16.1)	21(20.4)	31(30.6)	49(49.0)	3.4	
월평균 근로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5(3.6)	29(20.9)	54(38.9)	46(33.1)	5(3.5)	34(24.5)	54(38.9)	50(36.6)	3.1	32.25**
	100만원 미만	52	1(1.6)	7(13.6)	21(40.6)	16(31.1)	7(13.2)	8(15.1)	21(40.6)	23(44.3)	3.4	
	100~200만원 미만	103	1(0.8)	9(8.4)	34(32.6)	38(36.7)	22(21.4)	9(9.2)	34(32.6)	60(58.2)	3.7	
	200~300만원 미만	79	0(0.0)	3(3.4)	31(38.7)	35(44.0)	11(13.9)	3(3.4)	31(38.7)	46(57.9)	3.7	
	300만원 이상	28	0(0.0)	0(0.0)	10(34.8)	10(33.9)	9(31.2)	0(0.0)	10(34.8)	18(65.2)	4.0	

주:5점 척도(1전혀 건강하지 않음 ~5 매우 건강함),  $\chi^2$ 는 카이제곱 값, \*\*p<.01, \*\*\*p<.001

## 다) 운동정도 및 운동하지 않은 이유

### (1) 운동정도

- 건강을 위해 얼마나 운동하는지 조사한 결과 주 1~2회 2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안하다 25.5%, 주3~4회 15.8%, 월 1~ 2회, 거의 매일 14.6%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안한다는 20대(36.1%)가 가장 많으며 거의 매일에는 60세이상(21.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의 높을수록 운동 및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3-36〉 운동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 한다	월1-2회	주1-2회	주3-4회	거의 매일	통계량 ( $\chi^2/P$ )
전 체	400	102(25.5)	61(15.3)	115(28.9)	63(15.8)	59(14.6)	-
연령	20-29세	43	16(36.1)	7(15.5)	12(28.7)	4(9.8)	47.84***
	30-39세	51	17(33.3)	9(18.0)	13(25.7)	10(19.1)	
	40-49세	62	14(22.4)	14(22.5)	17(27.0)	7(11.9)	
	50-59세	74	18(23.9)	11(15.2)	27(35.8)	12(16.1)	
	60세 이상	170	38(22.2)	20(11.7)	47(27.5)	30(17.6)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 (2) 운동하지 않는 이유

- 운동을 안한다와 월1~2회를 대상으로 운동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운동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 34.0%, 하기 싫어서 17.7%, 활동하기 위한 장소가 없거나 멀어서 5.8%, 활동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5.2%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30대·40대·50대는 '운동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는 60세이상이 75.8%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33.9%, 40대가 18.3%로 나타남
- 월평균 근로소득별로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을수록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가 많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운동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로 나타남

〈표 3-37〉 운동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하기 싫어서	활동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운동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	활동하기 위한 장소가 없거나 멀어서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	통계량 (χ <sup>2</sup> /P)	
전 체	163	29(17.7)	8(5.2)	55(34.0)	9(5.8)	61(37.3)	-	
연령	20-29세	22	3(14.3)	3(14.3)	15(66.6)	0(0.0)	1(4.8)	21.67
	30-39세	26	9(32.5)	0(0.0)	15(57.5)	2(6.4)	1(3.7)	
	40-49세	28	5(17.6)	4(15.5)	12(44.9)	1(3.7)	5(18.3)	
	50-59세	29	7(25.1)	1(3.5)	10(34.8)	1(2.8)	10(33.9)	
	60세 이상	58	5(8.6)	0(0.0)	3(5.2)	6(10.4)	44(75.8)	
연령별근로소득	근로소득 없음	55	3(5.6)	2(3.9)	2(3.4)	1(1.8)	47(85.3)	41.31***
	100만원 미만	22	4(17.8)	1(3.8)	6(27.3)	4(18.4)	7(32.6)	
	100-200만원 미만	51	13(24.8)	5(9.2)	24(47.5)	5(8.7)	5(9.7)	
	200-300만원 미만	28	7(26.0)	1(3.0)	19(67.5)	0(0.0)	1(3.5)	
	300만원 이상	8	2(26.1)	0(0.0)	5(60.4)	0(0.0)	1(13.5)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01

## 6) 여가상태

### 가) 여가를 함께 보내는 사람

- 누구와 여가를 보내는지를 조사한 결과 친구 또는 이웃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혼자 20.3%, 가족 8.5%, 직장동료 5.5%, 동호회 등 단체 회원 4.0%, 활동보조원 0.3%, 여가활동 안함 0.3%순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에서 '친구 또는 이웃'이 가장 많으며, 혼자가 20대 18.8%, 30대 10.9%, 40대와 50대 각각 24.8%, 60세이상 19.3%로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8〉 여가를 같이 보내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	친구 또는 이웃	동호회 등 단체 회원	직장 동료	혼자	활동보조원	여가활동 안함	
전 체	400	34(8.5)	245(61.2)	16(4.0)	22(5.5)	81(20.3)	1(0.3)	1(0.3)	
연령	20-29세	43	3(7.4)	27(62.3)	0(0.0)	5(11.5)	8(18.8)	0(0.0)	0(0.0)
	30-39세	51	9(16.7)	28(55.7)	2(3.8)	7(12.8)	6(10.9)	0(0.0)	0(0.0)
	40-49세	62	6(9.2)	34(55.1)	4(6.3)	3(4.3)	15(24.8)	0(0.0)	0(0.0)
	50-59세	74	6(9.2)	34(55.1)	4(6.3)	3(4.6)	15(24.8)	0(0.0)	0(0.0)
	60세 이상	170	12(7.0)	114(67.2)	6(3.5)	3(1.8)	33(19.3)	1(0.6)	1(0.6)

## 나) 여가시간(평일/주말) 및 여가시간 충분성

- 여가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평일은 평균 258분(약4시간)정도로 나타남. 평일은 2시간이상~4시간미만이 3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여가시간 평균 204분(약3시간), 평균 368분(약6시간)정도로 나타남. 20대는 2시간이상~4시간미만 49.1%으로 가장 많으며 60대이상은 8시간이상이 34.5%로 가장 많았음. 반면, 30대는 여가시간이 평균 164분(약2.7시간)정도로 2시간이상~4시간미만 47.3%로 가장 많으며 40대도 평균 178분(약3시간)정도로 2시간이상~4시간미만 53.8%로 가장 많이 나타남. 50대는 평균 166분(약2.8시간)정도로 2시간이상~4시간미만 53.8%로 가장 많이 나타남

〈표 3-39〉 여가시간(평일)

(단위: 명, %, 분)

구분	사례수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평균	통계량 (X <sup>2</sup> /P)	
전 체	400	47(11.8)	157(39.3)	53(13.2)	44(10.9)	35(8.9)	64(15.9)	257.8	-	
연령	20-29세	43	5(11.5)	21(49.1)	7(17.2)	7(17.2)	0(0.0)	2(4.9)	204.3	50.97**
	30-39세	51	12(23.2)	24(47.3)	10(20.5)	1(1.9)	3(5.2)	1(1.9)	163.8	
	40-49세	62	11(17.2)	33(53.8)	8(12.9)	7(11.2)	1(1.6)	2(3.3)	178.1	
	50-59세	74	14(18.5)	40(53.8)	12(16.3)	6(8.7)	2(2.7)	0(0.0)	166.1	
	60세 이상	170	6(3.5)	39(22.9)	15(8.8)	22(12.9)	30(17.5)	59(34.5)	368.4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1

- 주말을 조사한 결과 평균 347분(약6시간)정도로 나타남. 주말은 8시간이상이 2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50대가 평균 282분(약5시간)정도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평일/주말 여가시간조사결과 5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0〉 여가시간(주말)

(단위: 명, %, 분)

구분	사례수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평균]	통계량 (X <sup>2</sup> /P)	
전 체	400	15(3.8)	92(23.0)	52(12.9)	70(17.6)	62(15.6)	109(27.2)	347.3	-	
연령	20-29세	43	3(6.5)	8(18.8)	5(12.3)	11(25.4)	6(14.8)	10(22.2)	326.9	199.34***
	30-39세	51	1(1.9)	12(23.2)	9(18.6)	9(18.6)	11(22.4)	8(15.3)	304.3	
	40-49세	62	4(6.0)	20(32.4)	9(13.9)	12(19.1)	4(6.6)	14(22.1)	310.4	
	50-59세	74	3(3.6)	27(36.4)	11(15.5)	12(16.6)	11(14.4)	10(13.6)	282.1	
	60세 이상	170	5(2.9)	25(14.7)	17(9.9)	26(15.2)	30(17.5)	68(39.7)	407.2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01

- 여가시간이 충분한지를 5점척도로 물어본 결과 평균 3.4점으로 나타났으며 충분(매우 충분하다+충분한 편이다)이 52.7%로 보통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와 50대는 평균이 각각 2.9점, 2.9점으로 나타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 60세이상은 평균 3.9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표 3-41〉 여가시간 충분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종합			평균	통계량 (χ <sup>2</sup> /P)	
							부족	보통	충분			
전 체	400	25(6.3)	64(16.1)	100(25.0)	143(35.7)	68(17.0)	89(22.3)	100(25.0)	211(52.7)	3.4	-	
연령	20-29세	43	4(9.8)	14(32.8)	12(27.8)	8(19.7)	4(9.8)	18(42.6)	12(27.8)	13(29.5)	2.9	73.60***
	30-39세	51	0(0.0)	13(25.1)	18(35.2)	18(35.8)	2(3.8)	13(25.1)	18(35.2)	20(39.6)	3.2	
	40-49세	62	6(8.9)	10(15.5)	24(38.9)	18(28.4)	5(8.2)	15(24.4)	24(38.9)	23(36.6)	3.1	
	50-59세	74	11(15.2)	16(21.2)	19(25.5)	22(29.9)	6(8.1)	27(36.4)	19(25.5)	28(38.0)	2.9	
	60세 이상	170	4(2.3)	12(7.1)	27(15.8)	76(45.0)	51(29.8)	16(9.4)	27(15.8)	127(74.8)	3.9	

주:5점 척도(1매우부족하다 ~5 매우충분하다),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01

다) 여가활동 부족이유

- 여가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이 너무 바빠서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20.0%, 쉬고 싶어서 10.0%,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8.5%, 혼자서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4.2%,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어서 2.5%, 가족을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2.1%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40대·50는 일이 너무 바빠서, 30대·60대이상은 경제적 부담이 큰 이유로 나타남

〈표 3-42〉 여가활동 부족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일이 너무 바빠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을보라간내어워서	종류는 시을기려	적한가로램없서	당여프그이어	적한가실나소없서	당여시이장가어	여와련정가족서	가관한보부해	함께할친구가없서	하기싫어귀찮아서	쉬고싶어서	혼자할만한것이별로없서	통계량 (χ <sup>2</sup> /P)
전 체	189	83(43.8)	38(20.0)	4(2.1)	5(2.5)	16(8.5)	1(0.5)	2(1.1)	14(7.3)	19(10.0)	8(4.2)	-				
연령	20-29세	30	16(52.3)	2(7.0)	0(0.0)	2(7.0)	4(12.8)	0(0.0)	0(0.0)	3(10.5)	2(7.0)	1(3.5)				
	30-39세	31	13(42.5)	8(26.7)	0(0.0)	1(3.2)	3(8.6)	0(0.0)	0(0.0)	1(3.2)	5(15.9)	0(0.0)				
	40-49세	39	22(55.2)	7(16.7)	2(5.2)	0(0.0)	2(4.7)	1(2.6)	0(0.0)	0(0.0)	3(7.8)	3(7.8)				
	50-59세	46	23(50.7)	9(19.4)	1(2.2)	2(3.6)	3(6.1)	0(0.0)	0(0.0)	4(7.9)	4(8.3)	1(1.8)				
	60세 이상	43	9(20.9)	12(27.9)	1(2.3)	0(0.0)	5(11.6)	0(0.0)	2(4.7)	6(13.9)	5(11.6)	3(7.0)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1

라)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기관 그리고 원하는 프로그램

- 지난 1년간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 83.2%, 있다 16.8%로 조사됨

〈표 3-43〉 교육프로그램 참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400	67(16.8)	333(83.2)

-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복지관련 기관이 4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종교시설 19.7%, 기타공공시설 12.8%, 여성대상교육, 직업훈련기관 8.5%,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8.4%, 노인대상직업훈련/취업지원기관 5.9%순으로 나타남. 복지관련기관, 종교시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연령별로 20대와 30대는 연령인 경우는 복지관련 기관 보다는 학교 또는 부설평생교육기관, 학원사업장 부설 문화센터에서 교육참여가 높고, 40대와 50대, 60세이상은 복지관련 기관, 종교시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4〉 교육받은 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복지관련기관	학교 또는 부설 평생교육기관	노대상 직업훈련/취업지원기관	여성대상 교육·직업훈련기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기타공공시설	종교시설	학원,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	YWCA	알코올상담센터
전 체	67	27(40.1)	13(19.0)	4(5.9)	6(8.5)	6(8.4)	9(12.8)	13(19.7)	4(6.0)	2(2.7)	1.5
연령	20-29세	5	2(35.5)	2(43.0)	0(0.0)	1(21.5)	0(0.0)	0(0.0)	1(21.5)	0(0.0)	0(0.0)
	30-39세	10	1(9.6)	5(45.2)	0(0.0)	0(0.0)	0(0.0)	1(9.6)	3(26.0)	1(9.6)	0(0.0)
	40-49세	10	4(38.4)	3(31.9)	0(0.0)	3(27.7)	2(19.2)	2(19.2)	0(0.0)	1(10.6)	0(0.0)
	50-59세	13	4(28.6)	1(7.9)	1(7.9)	0(0.0)	2(14.3)	2(14.3)	4(28.6)	1(7.9)	1(6.4)
	60세 이상	30	17(56.7)	2(6.7)	3(10.0)	2(6.7)	2(6.7)	4(13.3)	7(23.3)	0(0.0)	1(3.3)

-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향후 원하는 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문화/예술/스포츠 등 취미 관련 교육'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건강, 보건 관련 교육' 20.9%, '외국어, 인문 교양관련 교육' 7.8%, '노후설계 교육' 7.1%,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6.1%, '직업훈련' 3.9%, '종교관련 교육' 3.4%, '시민활동교육' 3.2%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취미 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원했으며, 60세 이상은 '건강, 보건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5〉 향후 원하는 참여교육 프로그램 (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취미 관련 교육	외국어, 인문 교양 관련 교육	직업훈련	노후설계 교육	시민활동 교육	귀농/귀촌 관련 교육, 종교 관련 교육	기타
[전 체]	400	25(6.1)	139(34.7)	31(7.8)	16(3.9)	28(7.1)	13(3.2)	8(1.9)	11(2.7)
연령	20-29세	43	14(32.8)	17(38.5)	6(14.8)	2(4.9)	0(0.0)	3(6.5)	0(0.0)
	30-39세	51	6(10.9)	25(48.6)	9(16.7)	2(3.8)	2(3.8)	0(0.0)	0(0.0)
	40-49세	62	3(4.9)	23(36.6)	6(9.6)	8(12.5)	3(4.9)	4(7.0)	0(0.0)
	50-59세	74	1(1.1)	33(44.8)	7(9.0)	2(2.5)	9(12.8)	3(3.8)	1(1.4)
	60세 이상	170	1(0.6)	42(24.5)	4(2.3)	2(1.2)	14(8.2)	3(1.7)	5(2.9)

구분	사례수	컴퓨터 사용 교육	건강, 보건 관련 교육	종교 관련 교육	가정관리 및 음식 관련 교육	기타	없다	통계량 (χ <sup>2</sup> /P)
[전 체]	400	8(2.0)	20.9(84)	3.4(13)	2.4(9)	0.2(1)	3.5(14)	-
연령	20-29세	43	0(0.0)	2.5(1)	0(0.0)	0(0.0)	0(0.0)	17.52**
	30-39세	51	1(1.9)	2(3.3)	0(0.0)	6(10.9)	0(0.0)	
	40-49세	62	3(4.9)	5(8.6)	2(3.0)	3(4.6)	0(0.0)	
	50-59세	74	1(1.1)	10(13.6)	4(4.9)	1(1.4)	0(0.0)	
	60세 이상	170	3(1.8)	66(38.6)	8(4.7)	0(0.0)	1(0.6)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1

## 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 1) 편한 친구 유무

-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있음 83.7%, 없음 16.3%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 30대가 '친구가 있다'가 가장 많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친구가 있다'가 적어짐
- 월평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낮은 경우에 본인의 문제가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1인가구는 처음부터 고립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고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46〉 편한 친구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있음	통계량 ( $\chi^2/P$ )
전 체		400	65(16.3)	335(83.7)	-
연령	20-29세	43	3(7.4)	40(92.6)	87.28***
	30-39세	51	1(1.9)	50(98.1)	
	40-49세	62	6(9.6)	56(90.4)	
	50-59세	74	8(11.2)	66(88.8)	
	60세 이상	170	47(27.5)	123(72.5)	
월평균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37(26.6)	101(73.4)	19.27***
	100만원 미만	52	14(26.7)	38(73.3)	
	100~200만원 미만	103	10(9.3)	94(90.7)	
	200~300만원 미만	79	4(4.9)	75(95.1)	
	300만원 이상	28	1(3.6)	27(96.4)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 친구가 있는 경우 몇 명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명~3명 59.3% 가장 많음. 평균 3.1명인 것으로 나타남. 그다음으로는 4명~5명 29.0%, 1명 14.9%, 6명 이상 6.8% 순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 30대가 평균 2.6명으로 가장 적으며 그 다음이 50대로 평균 2.9명으로 나타남. 60세 이상이 3.2명으로 가장 많음.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친구가 있지만 그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음이 평균 2.9명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친구도 친구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7〉 편한 친구 규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명	2명~3명	4명~5명	6명 이상	[평균]	통계량 ( $\chi^2/P$ )
전 체		335	50(14.9)	199(59.3)	64(19.0)	23(6.8)	3.1	-
연령	20-29세	40	1(2.7)	22(54.0)	13(33.6)	4(9.7)	3.7	29.28***
	30-39세	50	7(13.7)	34(68.8)	9(17.6)	0(0.0)	2.6	
	40-49세	56	9(15.3)	34(61.3)	10(17.9)	3(5.5)	3.0	
	50-59세	66	11(17.4)	41(62.1)	10(14.6)	4(5.8)	2.9	
	60세 이상	123	22(17.7)	68(54.8)	22(17.8)	12(9.7)	3.2	
월평균 근로소득	근로소득 없음	101	19(18.7)	62(61.5)	13(13.0)	7(6.9)	2.9	23.21*
	100만원 미만	38	5(13.3)	19(49.1)	11(29.6)	3(8.0)	3.3	
	100~200만원 미만	94	15(16.5)	57(61.2)	16(17.0)	5(5.4)	3.1	
	200~300만원 미만	75	7(9.9)	46(60.6)	16(21.9)	6(7.5)	3.1	
	300만원 이상	27	3(11.2)	15(55.8)	7(25.6)	2(7.4)	3.2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5$ , \*\*\* $p < .001$

## 2) 고민 상담 대상

- 평소 고민이 있으면 주로 누구와 상담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친구와 선·후배가 4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이 자녀 12.3%, 이웃 9.8%, 형제·자매 9.8%, 없음 7.9%, 부모 4.8%, 성직자 4.6%, 직장동료 3.5% 순으로 나타남
-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활동보조인, 배우자(남편), 친인척인 경우에는 1인 여성가구 고민 상담 대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친구와 선·후배, 자녀, 이웃, 형제·자매가 우선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로 20대는 친구와 선·후배(65.6%)와 부모(18.0%)가 가장 많으며, 30대와 40

대는 각각 친구와 선·후배(64.8%, 58.1%)와 형제자매(13.4%, 17.5%)가 가장 많음. 50대는 친구와 선·후배(49.7%)와 없음(10.3%), 60세이상은 친구와 선·후배(30.4%)와 자녀(25.1%)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와 선·후배에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하고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의 경우는 부모->형제자매->자녀로 상담대상이 이동하고 있음

〈표 3-48〉 고민상담 대상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부모	형제자매	자녀	친구와 선후배	직장동료	이웃
전 체	400	19(4.8)	39(9.8)	49(12.3)	186(46.4)	14(3.5)	39(9.8)
연령	20-29세	43	8(18.0)	2(4.9)	0(0.0)	28(65.6)	4(9.0)
	30-39세	51	6(10.9)	7(13.4)	0(0.0)	33(64.8)	4(7.1)
	40-49세	62	3(4.6)	11(17.5)	0(0.0)	36(58.1)	4(6.0)
	50-59세	74	2(2.7)	7(9.8)	6(8.5)	37(49.7)	2(2.7)
	60세 이상	170	1(0.6)	12(7.0)	43(25.1)	52(30.4)	1(0.6)

구분	전문 상담사 또는 사회 복지사	성직자	없음	활동 보조인	배우자 (남편)	친인척
전 체	1(0.3)	18(4.6)	31(7.9)	1(0.3)	1(0.2)	1(0.3)
연령	20-29세	0(0.0)	0(0.0)	1(2.5)	0(0.0)	0(0.0)
	30-39세	0(0.0)	2(3.8)	0(0.0)	0(0.0)	0(0.0)
	40-49세	0(0.0)	4(6.3)	3(4.6)	0(0.0)	1(1.3)
	50-59세	0(0.0)	6(7.6)	8(10.3)	0(0.0)	0(0.0)
	60세 이상	1(0.6)	7(4.1)	20(11.7)	1(0.6)	0(0.0)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 3) 가족돌봄 여부 및 돌보는 가족

-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조사한 결과 ‘하지 않는다’ 76.9%, ‘가끔한다’ 18.9%, ‘거의 매일한다’ 4.2%순으로 나타남. 23.1%가 가족돌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30대·40대·50대는 ‘가끔한다’가 각각 25.7%, 39.6%, 27.0%로 나타났으며 ‘거의 매일한다’에서는 40대가 7.9%로 가장 많았음

- 혼인유형별로 기혼도 '가끔한다'가 41.8%로 가장 많으며, 미혼은 '가끔한다'가 22.9%, 이혼/별거도 '가끔한다'가 26.0%, 사별로 '가끔한다'가 12.2%로 나타남. '거의 매일한다'에서는 기혼이 15.3%로 가장 많았음
- 월평균 근로소득별로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가족돌봄을 '가끔한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거의매일한다'에서는 300만원이상이 10.6%로 가장 많았음

〈표 3-49〉 가족 돌봄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거의 매일 한다	통계량 ( $\chi^2/P$ )
[전 체]		400	308(76.9)	76(18.9)	17(4.2)	-
연령	20-29세	43	37(86.1)	6(13.9)	0(0.0)	31.76**
	30-39세	51	36(70.5)	13(25.7)	2(3.8)	
	40-49세	62	33(52.4)	25(39.6)	5(7.9)	
	50-59세	74	49(66.5)	20(27.0)	5(6.5)	
	60세 이상	170	153(90.0)	12(7.0)	5(2.9)	
혼인	기혼	18	12(62.9)	4(41.8)	3(15.3)	54.75***
	미혼	124	93(74.7)	28(22.9)	3(2.4)	
	이혼/별거	86	56(64.9)	22(26.0)	8(9.2)	
	사별	172	148(86.1)	21(12.2)	3(1.7)	
월평균 근로 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128(92.8)	6(4.3)	4(2.9)	16.93*
	100만원 미만	52	45(87.0)	5(9.4)	2(3.5)	
	100~200만원 미만	103	69(7.3)	31(29.8)	3(2.9)	
	200~300만원 미만	79	50(63.2)	24(30.6)	5(6.1)	
	300만원 이상	28	15(54.5)	10(34.8)	3(10.6)	

$\chi^2$ 는 카이제곱 값, \* $p<.05$ , \*\* $p<.01$ , \*\*\* $p<.001$

- 가족을 가끔 또는 매일 돌보는 응답자에게 돌보는 가족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자녀 29.1%, 손자녀 14.6%, 형제·자매 8.2%, 배우자 2.0%, 조카 1.1%, 시부모 0.9%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20대는 부모, 30대는 부모, 자녀순으로 나타남. 40대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순으로 나타남. 50대는 부모, 자녀, 손자녀 순으로 나타남. 60대는 손자녀, 부모, 자녀 순으로 나타남
- 혼인유형별로 기혼은 부모, 자녀순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은 부모와 형제자매순으로 나타남. 이혼/별거는 자녀, 부모순으로 나타남. 사별은 손자녀, 부모, 자녀순으로 나타남
- 월평균 근로소득별로 근로소득이 '없음'은 부모, 손자녀순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은 손자녀, 자녀순으로 나타남. 100~200만원 미만은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

매순으로 나타남. 200만원이상은 부모와 자녀순으로 나타남. 소득이 낮지만 부양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0〉 돌보는 가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손자녀	자녀	시부모	조카
[전 체]	92	50(54.6)	2(2.0)	8(8.2)	13(14.6)	27(29.1)	1(0.9)	1(1.1)
연령	20-29세	6	6(100.0)	0(0.0)	0(0.0)	0(0.0)	0(0.0)	0(0.0)
	30-39세	15	12(80.5)	0(0.0)	1(6.5)	0(0.0)	2(13.0)	1(6.5)
	40-49세	29	15(52.1)	1(2.8)	5(15.3)	0(0.0)	11(36.1)	0(0.0)
	50-59세	25	12(48.0)	1(4.0)	0(0.0)	3(13.9)	11(45.4)	1(3.3)
	60세 이상	17	5(29.4)	0(0.0)	0(0.0)	10(58.9)	3(17.6)	0(0.0)
연령	기혼	7	4(58.5)	2(26.8)	0(0.0)	0(0.0)	3(41.5)	0(0.0)
	미혼	31	29(93.5)	0(0.0)	4(13.2)	0(0.0)	0(0.0)	1(3.1)
	이혼/별거	30	10(33.7)	0(0.0)	2(6.0)	3(9.3)	18(59.7)	0(0.0)
	사별	24	7(28.6)	0(0.0)	2(6.9)	11(44.4)	6(25.1)	1(3.4)
소득	근로소득 없음	10	4(40.0)	0(0.0)	1(10.2)	3(30.0)	2(19.9)	0(0.0)
	100만원 미만	7	2(31.0)	0(0.0)	1(15.8)	4(56.7)	2(27.5)	0(0.0)
	100-200만원미만	34	17(51.5)	1(3.0)	3(10.4)	4(11.9)	9(25.7)	0(0.0)
	200-300만원미만	29	18(61.7)	1(2.8)	2(7.0)	3(9.1)	8(28.7)	0(0.0)
	300만원 이상	13	9(70.1)	0(0.0)	0(0.0)	0(0.0)	6(46.9)	1(6.4)

#### 4) 가족을 돌보는 1인 가구지원 정책 수용도

- 가족을 돌보는 1인가구에게 ‘가족돌봄휴가’, ‘가족수당’, ‘세액공제혜택’ 관련 정책지원에 대한 조사결과 가족돌봄휴가제공 정책 수용도를 살펴보면 그렇다 90.0%, 아니 10.0%으로 가족돌봄휴가 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60세 이상 그렇다 91.8%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가족수당 제공으로 가족 돌봄 1인 가구 정책수용도는 91.1%로 나타남. 계층별로도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그렇다가 90.0% 이상으로 나타남
- 세액공제혜택 제공으로 가족 돌봄 1인 가구 정책수용도는 93.5%로 나타남.
- 세액공제혜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1〉 가족을 돌보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수용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아니다	그렇다	통계량 ( $\chi^2/P$ )
가족돌봄휴가 제공		400	40(10.0)	360(90.0)	-
연령	20-29세	43	4(9.8)	39(90.2)	49.14***
	30-39세	51	9(16.7)	42(83.3)	
	40-49세	62	3(4.3)	59(95.7)	
	50-59세	74	11(14.4)	63(85.6)	
	60세 이상	170	14(8.2)	156(91.8)	
가족수당 제공		400	35(8.9)	365(91.1)	-
경제적 상황	기초생활	57	3(5.2)	54(94.8)	4.32*
	차상위가구	19	0(0.0)	19(100.0)	
	일반가구	324	32(10.0)	291(90.0)	
세액공제혜택 제공		400	26(6.5)	374(93.5)	-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5$ , \*\*\* $p < .001$

### 5) 반려동물 키우고 싶은 이유

-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키울 생각이 없음’ 6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반려동물이 주는 한결같은 애정 때문에 14.0%, 외로움 때문에 13.9%,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해서 1.8%, 무언가를 키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1.5%순으로 나타남
- 키울생각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20대·30대·40대는 반려동물이 주는 한결같은 애정 때문에 각각 28.7%, 34.7%, 16.2%로 나타났으며 50대와 60세이상은 외로움 때문이 각각 13.0%, 14.6%로 나타남. 젊은 연령층은 반려동물 키우는데 많은 관심이 있음

〈표 3-52〉 반려동물 키우고 싶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외로움 때문에	무언가를 키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반려동물 이 주는 한결같은 애정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키울 생각이 없음	통계량 ( $\chi^2/P$ )	
[전 체]	400	56(13.9)	6(1.5)	56(14.0)	7(1.8)	276(68.9)	-	
연령	20-29세	43	9(20.5)	3(7.4)	12(28.7)	1(2.5)	18(41.0)	3.55
	30-39세	51	7(14.2)	0(0.0)	18(34.7)	1(1.9)	25(49.2)	
	40-49세	62	5(8.2)	2(3.3)	10(16.2)	0(0.0)	45(72.3)	
	50-59세	74	10(13.0)	1(1.1)	8(10.6)	0(0.0)	56(75.3)	
	60세 이상	170	25(14.6)	0(0.0)	8(4.7)	5(2.9)	132(77.8)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 6) 이웃 중요도

- 이웃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중요함(매우 중요함+대체로 중요함)이 50.5%로 나타났음. 평균 3.5로 나타남
- 연령별로 60세이상에서 평균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웃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평균 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순인 기타(무학)도 평균 3.6으로 나타나 중졸이하에서 이웃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표 3-53〉 이웃 중요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종합			평균	통계 량 ( $\chi^2/P$ )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전 체	400	2(0.5)	37(9.3)	159(39.7)	162(40.5)	40(10.0)	39(9.8)	159(39.7)	202(50.5)	3.5	-	
연령	20-29세	43	1(2.5)	9(21.3)	16(36.1)	16(37.7)	1(2.5)	10(23.8)	16(36.1)	17(40.2)	3.2	25.55
	30-39세	51	1(1.9)	9(18.6)	23(44.8)	15(9.5)	3(5.2)	10(20.5)	23(44.8)	18(34.7)	3.2	
	40-49세	62	0(0.0)	6(9.6)	29(47.6)	22(35.3)	5(7.6)	6(9.6)	29(47.6)	27(42.9)	3.4	
	50-59세	74	0(0.0)	8(10.6)	36(48.7)	26(35.6)	4(5.2)	8(10.6)	36(48.7)	30(40.7)	3.4	
	60세 이상	170	0(0.0)	5(2.9)	55(32.2)	82(48.5)	28(16.4)	5(2.9)	55(32.2)	110(64.9)	3.8	
학력	중졸 이하	115	0(0.0)	2(1.7)	36(31.8)	56(49.3)	20(17.2)	2(1.7)	36(31.8)	76(66.5)	3.8	46.93***
	고졸	11	0.9(1)	11(9.6)	49(43.4)	45(39.3)	8(6.8)	12(10.5)	49(43.4)	52(46.1)	3.4	
	대졸	122	0.8(1)	20(16.1)	57(46.9)	37(30.7)	7(5.5)	20(16.9)	57(46.9)	44(36.3)	3.2	
	대학원 이상	9	0(0.0)	1(11.5)	3(35.1)	5(53.4)	0(0.0)	1(11.5)	3(35.1)	5(53.4)	3.4	
	기타(무학)	42	0(0.0)	4(9.5)	13(30.9)	19(45.2)	6(14.3)	4(9.5)	13(30.9)	25(59.6)	3.6	

주:5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음 ~5 매우 중요함),  $\chi^2$ 는 카이제곱 값, \*\*\*p<.001

## 7) 이웃에 대한 생각

- 전체조사대상자들에게 '이웃을 사귀는 방법',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왕래 할 수 있는 이웃', '서로 협동하는 이웃'에 관한 생각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첫째, '이웃을 사귀는 방법을 알면 좋겠다'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46.4%, 보통 45.6%,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7.9% 순서로 나타남. 평균 3.4로 나타남
-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평균 3.6으로 다른 연령보다 높아 나이가 많을수록 이웃을

사귀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4〉 이웃을 사귀는 방법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평균	통계량 (χ <sup>2</sup> /P)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361	7(1.8)	22(6.1)	165(45.6)	42(11.5)	15(4.1)	29(7.9)	165(45.6)	167(46.4)	3.4	-	
연령	20-29세	33	0(0.0)	4(12.9)	13(40.9)	14(43.0)	1(3.2)	4(12.9)	13(40.9)	15(46.2)	3.4	38.35**
	30-39세	41	0(0.0)	2(4.8)	23(55.7)	16(39.5)	0(0.0)	2(4.8)	23(55.7)	16(39.5)	3.3	
	40-49세	56	2(3.3)	5(9.1)	29(51.1)	18(31.7)	3(4.8)	7(12.4)	29(51.1)	20(36.5)	3.3	
	50-59세	66	3(4.3)	4(5.5)	37(56.4)	21(32.4)	1(1.5)	6(9.7)	37(56.4)	22(33.9)	3.2	
	60세 이상	165	2(1.2)	7(4.2)	63(38.0)	83(50.6)	10(6.0)	9(5.4)	63(38.0)	93(56.6)	3.6	

주: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1

- 둘째,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며 좋겠다에 대한 생각은 그렇다 69.0%, 보통 28.9%, 그렇지않다 2.1%순으로 나타남. 평균 3.8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60세이상인 평균 4.0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며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기타(무학), 중졸이하, 대학원이상에서 각각 평균 3.0, 평균 4.0, 평균 4.0으로 높게 나타났음
- 경제적 상황에서도 기초수급자가 평균 3.9, 차상위 평균 3.8, 일반가구도 평균 3.8로 높게 나타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며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잡은 왕래를 갖고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다 57.7%, 보통 12.4%, 그렇지않다 8.0%순으로 나타남. 평균 3.6로 다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가 평균 3.2로 다소 선호하지 않으며 60세이상은 평균 3.9로 연령이 많을수록 잡은 이웃 왕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중졸이하가 평균 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순인 기타(무학)도 평균 3.9로 나타나 중졸이하에서 잡은 이웃 왕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5〉 도움요청 이웃과 잦은 왕래 이웃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평균	통계량 ( $\chi^2/P$ )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도움요청 이웃	361	1(0.3)	7(1.8)	104(28.9)	548(198)	142(51)	21(8)	104(28.9)	60(24.9)	3.8	-	
학력	중졸 이하	113	0(0.0)	2(1.8)	23(20.7)	71(63.4)	16(14.1)	2(1.8)	23(20.7)	87(77.5)	3.9	22.48**
	고졸	102	1(1.0)	3(2.6)	35(34.8)	48(46.9)	15(14.7)	4(3.6)	35(34.8)	63(61.6)	3.7	
	대졸	101	0(0.0)	1(1.0)	35(35.1)	57(56.5)	7(7.4)	1(0.1)	35.1(35)	65(63.9)	3.7	
	대학원 이상	8	0(0.0)	0(0.0)	2(26.4)	4(49.6)	2(24.1)	0(0.0)	26.4(2)	6(73.6)	4.0	
	기타(무학)	38	0(0.0)	1(2.6)	8(21.0)	18(47.3)	11(29.0)	1(2.6)	21.0(8)	29(76.4)	4.0	
경제적 상황	기초생활	56	0(0.0)	2(3.5)	12(20.5)	34(60.0)	9(16.0)	3.5(2)	20.5(12)	43(76.0)	3.9	27.25***
	차상위가구	15	0(0.0)	0(0.0)	6(36.7)	7(45.9)	3(17.3)	0(0.0)	36.7(6)	10(63.3)	3.8	
	일반가구	289	1(0.3)	5(1.6)	87(30.1)	157(54.3)	39(13.7)	2(0.6)	30.1(87)	195(68.0)	3.8	
잦은왕래 이웃	361	5(1.4)	24(6.6)	124(34.3)	168(46.5)	40(11.2)	29(8.0)	34.3(124)	208(57.7)	3.6	-	
세대	2030세대	73	3(4.0)	8(10.8)	35(47.3)	26(35.0)	2(2.9)	11(14.8)	47.3(35)	28(37.8)	3.2	66.14***
	4050세대	122	1(0.8)	14(11.3)	52(42.8)	44(35.8)	11(9.3)	15(12.1)	42.8(52)	55(45.1)	3.4	
	6080세대	165	1(0.6)	2(1.2)	37(22.3)	98(59.6)	27(16.3)	3(1.8)	22.3(37)	125(75.9)	3.9	
학력	중졸 이하	113	0(0.0)	2(1.6)	26(22.8)	68(60.6)	17(15.0)	2(1.6)	22.8(26)	85(75.6)	3.9	51.34***
	고졸	102	3(2.9)	8(8.2)	38(37.6)	42(40.9)	11(10.4)	11(11.2)	37.6(38)	52(51.2)	3.5	
	대졸	101	2(1.9)	13(12.5)	46(45.9)	35(34.8)	5(4.9)	15(14.4)	45.9(46)	40(39.7)	3.3	
	대학원 이상	8	0(0.0)	0(0.0)	5(61.0)	3(39.0)	0(0.0)	0(0.0)	61.0(5)	3(39.0)	3.4	
	기타(무학)	38	0(0.0)	1(2.6)	9(23.7)	20(52.6)	8(21.1)	1(2.6)	23.7(9)	28(73.7)	3.9	

주: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chi^2$ 는 카이제곱 값, \*\*p<.01, \*\*\*p<.001

- 넷째,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동하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다 62.4%, 보통 34.6%, 그렇지 않다 3.0%순을 나타냄. 평균 3.7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평균 3.9로 다른 연령보다 높아 나이가 많을수록 서로 협동할 이웃을 사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반면에 20대와 30대들은 평균 각각 3.4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 학력별로 중졸이하가 평균 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순인 기타(무학)도 평균 3.9로 나타나 중졸이하에서 서로 협동할 이웃을 사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제적 상황에서도 기초수급자가 평균 3.8, 차상위 평균 3.8, 일반가구도 평균 3.7로 높게 나타남. 경제적 상황이 열악할수록 서로 협동하는 이웃이 있으며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6〉 협동이웃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평균	통계량 ( $\chi^2/P$ )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361	1(0.3)	10(2.7)	125(34.6)	185(51.4)	40(11.0)	11(3.0)	125(34.6)	225(62.4)	3.7	-	
연령	20-29세	33	0(0.0)	1(3.2)	19(59.1)	11(34.4)	1(3.2)	1(3.2)	19(59.1)	12(37.6)	3.4	49.72***
	30-39세	41	1(2.4)	2(4.8)	19(46.0)	17(42.6)	2(4.1)	3(7.2)	19(46.0)	19(46.7)	3.4	
	40-49세	56	0(0.0)	3(5.1)	24(42.0)	23(41.5)	6(11.3)	3(5.1)	24(42.0)	30(52.9)	3.6	
	50-59세	66	0(0.0)	1(1.5)	29(44.4)	29(44.0)	7(10.0)	1(1.5)	29(44.4)	36(54.1)	3.6	
	60세 이상	165	0(0.0)	3(1.8)	34(20.5)	104(63.2)	24(14.5)	3(1.8)	34(20.5)	128(77.7)	3.9	
학력	중졸 이하	113	0(0.0)	2(1.8)	23(20.0)	73(65.1)	15(13.1)	2(1.8)	23(20.0)	88(78.2)	3.9	36.50***
	고졸	102	1(1.0)	3(2.8)	41(40.6)	45(44.5)	11(11.2)	4(3.8)	41(40.6)	56(55.6)	3.6	
	대졸	101	0(0.0)	4(4.0)	50(49.6)	42(41.9)	5(4.5)	4(4.0)	50(49.6)	47(46.4)	3.5	
	대학원 이상	8	0(0.0)	1(13.0)	1(13.3)	5(60.3)	1(13.3)	1(13.0)	1(13.3)	6(73.6)	3.7	
	기타(무학)	38	0(0.0)	0(0.0)	10(26.3)	20(52.6)	8(21.2)	0(0.0)	10(26.3)	28(73.7)	3.9	
경제적상황	기초생활	56	0(0.0)	1(1.8)	17(29.4)	32(56.4)	7(12.4)	1(1.8)	17(29.4)	39(68.9)	3.8	24.45***
	차상위가구	15	0(0.0)	0(0.0)	6(38.1)	7(44.6)	3(17.3)	0(0.0)	6(38.1)	9(61.9)	3.8	
	일반가구	289	1(0.3)	9(3.1)	102(35.4)	147(50.8)	30(10.4)	10(3.4)	102(35.4)	177(61.1)	3.7	

주: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chi^2$ 는 카이제곱 값, \*\*\*p<.001

## 8) 활동 사회단체나 모임 및 향후계획

### 가) 활동 사회단체나 모임

- 활동하는 사회단체나 모임에 대한 조사결과 '없음'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종교단체 24.1%, 여가모임 21.6%, 동창회 18.2%, 지역사회모임 8.2%, 정치단체 0.5%순으로 나타남
- '없음'을 제외하고 연령별로 60세이상은 종교단체 활동(25.2%)이, 50대·30대는 '없음'이 각각 32.0%, 45.6%, 40대는 동창회(27.6%)가, 20대는 여가모임(35.2%)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조사한 결과 1년~2년 미만은 동창회(24.6%), 2년~5년 미만은 여가모임(32.5%), 5년이상은 '없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단체나 모임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사

회관계의 고립을 경험할 수 있음

〈표 3-57〉 활동 사회단체/모임(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동창회	지역사회모임	여가모임	정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없음	YMCA	기타	
전체	400	73(18.2)	33(8.2)	87(21.6)	2(0.5)	19(4.8)	97(24.1)	165(41.2)	2(0.5)	1(0.3)	
연령	20-29세	43	11(24.5)	0(0.0)	15(35.2)	0(0.0)	2(4.1)	6(14.8)	15(34.5)	0(0.0)	0(0.0)
	30-39세	51	8(15.3)	2(3.3)	14(26.8)	0(0.0)	1(1.9)	11(22.4)	23(45.6)	0(0.0)	0(0.0)
	40-49세	62	20(33.0)	6(9.6)	12(19.4)	1(1.6)	8(13.2)	16(26.4)	17(26.7)	0(0.0)	1(1.6)
	50-59세	74	17(23.1)	8(11.4)	16(21.5)	0(0.0)	5(7.4)	20(26.4)	24(32.0)	1(1.1)	0(0.0)
	60세 이상	170	17(10.0)	17(10.0)	30(17.5)	1(0.6)	3(1.8)	43(25.2)	86(50.8)	1(0.6)	0(0.0)
1인가구주거기간	1년-2년 미만	32	13(39.7)	1(3.2)	6(18.7)	0(0.0)	4(11.6)	6(17.8)	9(29.3)	0(0.0)	0(0.0)
	2년-5년 미만	79	19(24.6)	9(11.2)	26(32.5)	1(1.3)	2(2.3)	23(29.7)	22(28.2)	0(0.0)	0(0.0)
	5년-10년 미만	76	18(23.2)	6(7.4)	14(18.1)	0(0.0)	5(6.0)	13(16.9)	35(46.5)	1(1.1)	1(1.3)
	10년-20년 미만	112	13(11.9)	7(5.9)	23(20.3)	0(0.0)	6(5.8)	33(29.5)	45(39.9)	1(0.9)	0(0.0)
	20년 이상	101	10(9.7)	11(10.7)	18(18.2)	1(1.0)	3(2.8)	21(21.3)	53(52.5)	0(0.0)	0(0.0)

## 나) 향후계획

- 향후 혼자 생활하실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앞으로도 '계속 혼자 생활 할 것 같다' 65.5%,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이다' 11.6%, '원하는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 9.0%, '잘 모르겠다' 8.1%, '친한 친구나 선후배 등과 함께 살고 싶다' 4.9%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22.9%)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적어지고 계속 혼자 생활 할 것 같다는 30대를 전후로 40대이후 크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월평균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계속적으로 혼자 살아가겠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표 3-58〉 향후 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앞으로도 계속 생활할 것이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이다	원하는 만큼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	원하는 만큼 만나고 싶고 동거하고 싶다	친한 친구나 선배 등과 함께 살고 싶다	잘 모르겠다	통계량 (χ <sup>2</sup> /P)	
전 체	400	262(65.5)	46(11.6)	36(9.0)	4(0.9)	19(4.9)	32(8.1)	-	
연령	20-29세	43	45.9(20)	7(16.4)	10(22.9)	0(0.0)	5(12.3)	1(2.5)	41.94***
	30-39세	51	19(37.7)	8(16.1)	16(32.0)	0(0.0)	3(6.5)	4(7.7)	
	40-49세	62	34(54.5)	11(17.2)	6(9.6)	1(1.6)	2(3.0)	9(14.2)	
	50-59세	74	45(61.2)	12(15.7)	3(3.8)	2(2.2)	3(4.1)	10(13.0)	
	60세 이상	170	144(84.8)	9(5.3)	1(0.6)	1(0.6)	6(3.5)	9(5.3)	
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119(86.4)	7(5.0)	2(1.5)	0(0.0)	1(0.7)	9(6.4)	61.20***
	100만원 미만	52	34(66.4)	4(8.0)	2(3.9)	0(0.0)	7(13.9)	4(7.8)	
	100~200만원 미만	103	61(59.6)	17(16.1)	10(9.2)	2(1.8)	4(3.7)	10(9.5)	
	200~300만원 미만	79	35(43.7)	13(16.1)	18(22.3)	2(2.3)	7(9.4)	5(6.1)	
300만원 이상	28	13(44.8)	6(21.3)	5(16.7)	0(0.0)	0(0.0)	5(17.2)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01

## 다. 노후 및 미래대책

### 1) 경제적 상황

- 자신의 노후생활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경제적 상황, 정서적 상황,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주거상황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첫째, 경제적 상황은 보통 43.6%, 어려움(매우 어려움 + 대체로 어려움) 39.4%, 어렵지 않음(별로 어렵지 않음+ 전혀 전혀 어렵지 않음) 17.0%순으로 나타남. 평균 3.3점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함. 20대는 어려움 12.3%, 30대는 9.6%, 40대는 28.7%, 50대는 46.1%, 60세 이상은 56.1%로 조사됨

〈표 3-59〉 노후생활 전망(경제적 상황)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대체로 어려움	매우 어려움	종합			평균	통계량 (χ <sup>2</sup> /P)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전 체	400	13(3.2)	55(13.8)	175(46)	123(30.7)	35(8.7)	68(17.0)	175(46)	158(39.4)	3.3	-	
연령	20-29세	43	1(2.5)	12(28.7)	24(56.5)	5(12.3)	0(0.0)	13(31.2)	24(56.5)	5(12.3)	2.8	83.30***
	30-39세	51	2(3.8)	8(14.8)	37(71.8)	5(9.6)	0(0.0)	9(18.6)	37(71.8)	5(9.6)	2.9	
	40-49세	62	2(3.3)	6(8.9)	37(59.1)	13(21.1)	5(7.6)	8(12.2)	37(59.1)	18(28.7)	3.2	
	50-59세	74	4(4.9)	9(12.2)	27(36.8)	28(38.0)	6(8.1)	13(17.1)	27(36.8)	34(46.1)	3.3	
	60세 이상	170	4(2.4)	21(12.3)	50(29.3)	72(42.1)	24(14.1)	25(14.6)	50(29.3)	95(56.1)	3.5	

주: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음 ~ 5 매우 어려움),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01

## 2) 정서적 상황

- 정서적 상황을 살펴보면 보통 48.8%, 어려움 28.4%, 어렵지 않음 22.8%으로 조사됨. 평균 3.1로 정서적 상황은 보통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평균을 조사한 결과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서적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0〉 노후생활 전망(정서적 상황)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대체로 어려움	매우 어려움	종합			평균	통계량 ( $\chi^2/P$ )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전 체	400	14(3.6)	77(19.2)	195(48.8)	91(22.7)	23(5.7)	22.8(91)	195(48.8)	28.4(114)	3.1	-
연령	20-29세	43	0(0.0)	17(38.5)	25(59.0)	1(2.5)	0(0.0)	38.5(17)	25(59.0)	2.5(1)	92.78***
	30-39세	51	5(9.6)	12(24.3)	34(66.1)	0(0.0)	0(0.0)	33.9(17)	34(66.1)	0.0(0)	
	40-49세	62	4(6.3)	10(15.5)	37(59.1)	10(15.8)	2(3.3)	21.8(14)	37(59.1)	19.1(12)	
	50-59세	74	5(6.3)	16(22.0)	33(44.4)	17(23.3)	3(4.1)	28.2(21)	33(44.4)	27.4(20)	
	60세 이상	170	1(0.6)	22(12.9)	67(39.2)	63(36.8)	18(10.6)	13.5(23)	67(39.2)	47.3(80)	

주: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음 ~ 5 매우 어려움),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 3) 건강상태

-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보통 42.3%, 어려움 42.1%, 어렵지 않음 15.6%로 나타남. 평균 3.4로 나타남
- 연령별로 평균을 조사하면 고령일수록 높게 나타나 건강상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61〉 노후생활 전망(건강 상태)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대체로 어려움	매우 어려움	종합			[평균]	통계량 ( $\chi^2/P$ )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전 체]	400	7(1.8)	55(13.8)	169(42.3)	115(28.7)	54(13.4)	62(15.6)	169(42.3)	168(42.1)	3.4	-
연령	20-29세	43	2(4.9)	13(31.2)	25(59.0)	2(4.9)	0(0.0)	16(36.1)	25(59.0)	2(4.9)	113.51***
	30-39세	51	1(1.9)	11(21.1)	38(73.8)	2(3.3)	0(0.0)	12(23.0)	38(73.8)	2(3.3)	
	40-49세	62	1(1.6)	11(18.2)	36(58.8)	11(18.1)	2(3.3)	12(19.8)	36(58.8)	13(21.4)	
	50-59세	74	1(1.4)	11(14.6)	34(46.1)	21(28.7)	7(9.2)	12(16.0)	34(46.1)	28(37.9)	
	60세 이상	170	2(1.2)	9(5.3)	36(21.1)	78(46.2)	45(26.3)	11(6.4)	36(21.1)	123(72.5)	

주: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음 ~ 5 매우 어려움),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 4)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보통 50.9%, 어려움 24.9%, 어렵지 않음 24.3%으로 조사됨.  
평균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고령일수록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려움이 60세 이상 42.6%, 50-59세 21.1%, 40-49세 13.2%, 30-39세 0.0%, 20-29세 7.4%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평균을 조사한 결과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2〉 노후생활 전망(사회적 관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아름지 않음	별로 아름지 않음	보통	대체로 어려움	매우 어려움	종합			[평균]	통계량 (χ <sup>2</sup> /P)	
							아름지 않음	보통	어려움			
[전 체]	400	16(4.1)	81(20.1)	208(50.9)	84(21.1)	15(3.7)	97(24.3)	208(50.9)	99(24.9)	3.0	-	
연령	20-29세	43	1(2.5)	14(33.6)	24(56.5)	3(7.4)	0(0.0)	16(36.1)	24(56.5)	3(7.4)	2.7	150.84***
	30-39세	51	5(9.6)	11(21.1)	35(69.4)	0(0.0)	0(0.0)	16(30.6)	35(69.4)	0(0.0)	2.6	
	40-49세	62	6(9.2)	10(15.8)	38(61.7)	6(9.9)	2(3.3)	16(25.1)	38(61.7)	8(13.2)	2.8	
	50-59세	74	3(3.8)	22(29.3)	34(45.7)	14(18.4)	2(2.7)	25(33.1)	34(45.7)	16(21.1)	2.9	
	60세 이상	170	2(1.2)	24(14.0)	72(42.2)	62(36.2)	11(6.4)	26(15.2)	72(42.2)	72(42.6)	3.3	
1인가구 거주기간	1년~2년 미만	32	2(6.4)	12(37.4)	15(46.6)	3(9.6)	0(0.0)	14(43.8)	15(46.6)	3(9.6)	2.6	61.86***
	2년~5년 미만	79	6(7.2)	24(30.1)	37(47.4)	10(12.8)	2(2.5)	29(37.3)	37(47.4)	12(15.4)	2.7	
	5년~10년 미만	76	1(1.3)	19(24.8)	42(55.8)	11(14.2)	3(4.0)	20(26.1)	42(55.8)	14(18.2)	2.9	
	10년~20년 미만	112	4(3.5)	17(14.7)	62(55.2)	27(23.9)	3(2.7)	20(18.2)	62(55.2)	30(26.6)	3.1	
	20년 이상	101	4(3.8)	10(9.5)	47(46.4)	34(33.4)	7(6.9)	13(13.3)	47(46.4)	41(40.3)	3.3	

주: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음 ~ 5 매우 어려움),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01

#### 5) 주거상황

- 주거 상황을 살펴보면 보통 49.7%, 어려움 24.9%, 어렵지 않음 25.4%으로 조사됨.  
평균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평균을 조사한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근로소득별로 평균을 조사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3〉 노후생활 전망(주거 상황)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대체로 어려움	매우 어려움	종합			평균	통계량 ( $\chi^2/P$ )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전 체	400	20(4.9)	82(20.5)	199(49.7)	77(19.2)	23(5.7)	102(25.4)	199(49.7)	100(24.9)	3.0	-	
연령 별	20-29세	43	2(4.9)	12(28.7)	25(59.0)	3(7.4)	0(0.0)	14(33.6)	25(59.0)	3(7.4)	2.7	91.69***
	30-39세	51	4(7.7)	10(19.9)	36(70.5)	1(1.9)	0(0.0)	14(27.6)	36(70.5)	1(1.9)	2.7	
	40-49세	62	4(6.3)	8(12.2)	37(59.7)	9(13.9)	5(7.9)	11(18.5)	37(59.7)	14(21.8)	3.0	
	50-59세	74	4(4.9)	15(20.6)	33(44.4)	16(22.0)	6(8.1)	19(25.5)	33(44.4)	22(30.1)	3.1	
	60세 이상	170	6(3.5)	37(21.6)	68(39.8)	48(28.0)	12(7.0)	43(25.1)	68(39.8)	60(35.1)	3.1	
소득 별	근로소득 없음	138	5(3.6)	28(20.1)	58(41.8)	37(26.5)	11(8.0)	33(23.7)	58(41.8)	48(34.5)	3.2	23.82
	100만원 미만	52	2(3.5)	8(15.7)	22(42.5)	14(26.7)	6(11.6)	10(19.2)	22(42.5)	20(38.3)	3.3	
	100~200만원 미만	103	4(3.7)	13(12.5)	65(62.6)	16(15.5)	6(5.7)	17(16.2)	65(62.6)	22(21.2)	3.1	
	200~300만원 미만	79	3(3.9)	22(27.4)	45(56.9)	9(11.8)	0(0.0)	25(31.3)	45(56.9)	9(11.8)	2.8	
	300만원 이상	28	6(20.4)	12(41.8)	10(34.3)	1(3.5)	0(0.0)	18(62.1)	10(34.3)	1(3.5)	2.2	

주: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음 ~ 5 매우 어려움),  $\chi^2$ 는 카이제곱 값, \*\*\*p<.001

## 라. 정책욕구

### 1)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

- 여성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주택공급정책 (54.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건강증진관련 정책 15.6%, 여성안정정책 13.8%, 경제적 여건 개선정책 13.5%, 여성 1인가구 인식개선 1.2%,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정책 1.0%, 가족내 관계망 지원 정책 0.7%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주택공급정책은 30대(68.6%)에서, 여성안전정책의 경우 20대(28.7%)가 다른 연령보다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 여건개선 정책과 건강관련증진정책의 경우는 60대(18.1%, 24.6%)가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 인식개선·지역사회 관계망 지원정책·가족내 관계망 지원 정책은 전 연령층에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근로소득별로 주택공급정책은 100~200만원 미만(68.3%)에서, 여성안전정책의 경우 300만원 이상(24.0%)에서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 높을

수록 여성안전정책을 선호함. 경제적 여건개선 정책은 100만원 미만(25.3%)과 건강 관련증진정책은 근로소득 없음(23.1%)에서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 인식개선·지역사회 관계망 지원정책·가족내 관계망 지원 정책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4〉 여성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주택공급 정책	여성안전 정책	경제적 여건개선 정책	건강진료 관련 정책	여성 1인가구 인식개선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 정책	가족내 관계망 지원 정책	통계량 (χ <sup>2</sup> /P)
전 체	400	217(54.2)	55(13.8)	54(13.5)	62(15.6)	5(1.2)	4(1.0)	3(0.7)	-
연령	20-29세	43	24(54.9)	12(28.7)	3(7.4)	2(4.1)	2(4.9)	0(0.0)	58.82***
	30-39세	51	35(68.6)	9(18.6)	4(7.7)	2(3.3)	1(1.9)	0(0.0)	
	40-49세	62	40(64.3)	5(7.6)	7(11.5)	8(13.5)	0(0.0)	1(1.6)	
	50-59세	74	48(64.7)	8(10.7)	9(11.9)	9(11.7)	1(1.1)	0(0.0)	
	60세 이상	170	71(41.5)	21(12.3)	31(18.1)	42(24.6)	1(0.6)	3(1.8)	
근로소득	근로소득 없음	138	64(46.7)	15(10.8)	22(15.9)	32(23.1)	1(0.7)	2(1.4)	46.97**
	100만원 미만	52	20(38.6)	7(13.5)	13(25.3)	9(17.0)	3(5.7)	0(0.0)	
	100~200만원 미만	103	70(68.3)	11(10.5)	12(11.5)	9(8.8)	0(0.0)	1(1.0)	
	200~300만원 미만	79	49(61.5)	16(20.1)	5(6.4)	7(8.4)	1(1.2)	1(1.3)	
	300만원 이상	28	14(48.0)	7(24.0)	2(7.2)	6(20.8)	0(0.0)	0(0.0)	

주: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1, \*\*\*p<.001

## 2) 주택 공급 정책

- 주택공급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 공급이 4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임대 주택 입주 조건완화와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이 각각 23.6%, 1인 가구를 위한 공유형 공동주택 공급 12.2%, 1인 가구 지원서비스 시설 복합형 대규모 집합 주택 6.5%으로 순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들은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 공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에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 공급을 선호하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임대 주택 입주 조건완화에서 30대·40대·50대의 30%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상황별로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 공급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형 공동주택 공급은 기초생활가구(46.8%, 2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임대 주택 입주 조건완화는 일반가구(24.2%)가 가장 많았으며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은 차상위가구(24.3%)가 가장 많았음. 1인 가구 지원서비스 시설 복합형 대규모 집합 주택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상황별로 주택정책에 있어 기초생활가구는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과 공동주택 공급을 선호를, 차상위는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일반가구는 임대주택입주조건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표 3-65〉 주택 공급 정책(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 공급	1인 가구를 위한 공유형 공동주택 공급	부양가족이 없는 1인 임대주택 조건완화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1인가구 지원서비스 시설 복합형 대규모 집합주택	모름/무응답	통계량 ( $\chi^2/P$ )	
[전 체]	400	183(45.7)	49(12.2)	94(23.6)	47(11.8)	26(6.5)	1(0.2)	-	
연령	20-29세	43	23(53.3)	2(4.9)	5(11.5)	9(20.5)	4(9.8)	0(0.0)	28.99
	30-39세	51	22(42.9)	5(9.0)	14(28.2)	8(16.1)	2(3.8)	0(0.0)	
	40-49세	62	28(45.5)	3(4.3)	19(30.0)	7(10.6)	6(9.6)	0(0.0)	
	50-59세	74	30(40.7)	5(7.4)	23(30.4)	12(16.1)	4(5.4)	0(0.0)	
	60세 이상	170	79(46.8)	34(19.9)	34(19.9)	12(7.0)	10(5.8)	1(0.6)	
경제적안전	기초생활	57	27(46.8)	13(22.5)	12(20.5)	1(1.4)	4(7.0)	1(1.7)	15.42**
	차상위가구	19	9(45.3)	2(9.6)	4(20.9)	5(24.3)	0(0.0)	0(0.0)	
	일반가구	324	147(45.5)	34(10.5)	78(24.2)	42(13.0)	22(6.8)	0(0.0)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1$

### 3) 여성안전 정책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여성안전 정책을 살펴보면 주택주변 환경 개선이 59.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위급상황시 사회적 보호장치 제공 19.0%, 주택내부 환경 개선 17.7%, 늦은 시간 귀갓길을 함께 동행해줄 수 있는 도우미 2.6%, 1인가구를 위

한 무인경비 택배함 설치 1.5%순으로 나타남

- 연령의 낮을수록 주택주변 환경 개선의 경우 20대가 67.2%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내부 환경 개선은 60대가 20.5%, 위급상황시 사회적 보호장치 제공도 60대가 22.8%로 가장 많음. 늦은 시간 귀갓길을 함께 동행해줄 수 있는 도우미와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택배함 설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6〉 여성안전 정책(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주택 주변 환경 개선	주택 내부 환경 개선	위급상황 시 사회적 보호 장치 제공	늦은 시간을 귀갓길을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도우미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택배함 설치	통계량 (χ <sup>2</sup> /P)
여성안전정책	400	237(59.2)	71(17.7)	76(19.0)	11(2.6)	6(1.5)	-
연령	20-29세	43	29(67.2)	8(18.8)	4(9.0)	2(4.9)	0(0.0)
	30-39세	51	33(64.8)	8(16.1)	9(17.2)	1(1.9)	0(0.0)
	40-49세	62	37(59.7)	10(16.8)	13(20.8)	2(2.7)	0(0.0)
	50-59세	74	49(66.6)	9(12.3)	12(16.0)	3(3.8)	1(1.4)
	60세 이상	170	88(52.0)	35(20.5)	39(22.8)	3(1.8)	5(2.9)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01

#### 4) 경제적 지원정책

- 경제적 지원정책을 조사한 결과 사회보장 제도개선이 6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 13.5%,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 9.7%,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 6.5%, 직업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제공 6.1%,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3.9%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사회보장 제도개선은 50대와 60세이상, 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40대가,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은 20대가,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은 30대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사회보장 제도개선과 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학력이 낮을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직업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제공은 대졸이상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로 나타남.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은 고졸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지원 정책을 학력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통계적으로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표 3-67〉 경제적 지원정책(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사회보장제도 개선	구직활동 중 시간 한시적 생계비 지원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구직 정보 제공	직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제공	공공근로사업화	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	통계량 ( $\chi^2/P$ )
[전 체]	400	242(60.5)	54(13.5)	39(9.7)	24(6.1)	15(3.9)	26(6.5)	-
연령	20-29세	43	18(41.0)	7(17.2)	11(25.4)	4(9.0)	0(0.0)	3(7.4)
	30-39세	51	22(42.9)	6(10.9)	9(18.6)	4(7.7)	3(5.2)	8(14.8)
	40-49세	62	23(36.7)	16(26.0)	10(15.5)	5(8.2)	0(0.0)	8(13.5)
	50-59세	74	44(60.0)	12(16.1)	8(10.3)	6(8.7)	1(1.1)	3(3.8)
	60세 이상	170	135(79.5)	13(7.6)	1(0.6)	5(2.9)	12(7.0)	4(2.3)
학력	중졸 이하	115	92(80.2)	9(7.6)	1(0.9)	2(1.7)	8(6.9)	3(2.6)
	고졸	113	60(52.9)	21(18.2)	10(8.7)	7(5.8)	1(0.9)	15(13.5)
	대졸	122	50(41.2)	23(18.6)	25(20.5)	14(11.4)	3(2.8)	7(5.4)
	대학원 이상	9	4(46.3)	0(0.0)	3(33.1)	1(9.4)	0(0.0)	1(11.3)
	기타(무학)	42	36(85.7)	2(4.8)	0(0.0)	1(2.4)	3(7.2)	0(0.0)

주:  $\chi^2$ 는 카이제곱 값, \*\*\*p<.001

## 5) 건강지원 정책

- 건강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가 4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건강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 26.8%,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21.2%, 우울증 검진서비스 및 프로그램 11.9%순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들은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를 다른 정책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는 40대가, 우울증 검진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20대가,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은 30대가, 건강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은 60대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는 10년~20년미만,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은 1년~2년미만에서, 우울증 검진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5년~10년미만에서, 건강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은 20년이상에서 가장 많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8〉 건강지원 정책(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	우울증 검진서비스 및 프로그램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지 원	건강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	통계량 ( $\chi^2/P$ )	
[전 체]	400	160(40.0)	48(11.9)	85(21.2)	107(26.8)	-	
연령	20-29세	43	17(40.2)	7(17.2)	13(31.2)	5(11.5)	78.98***
	30-39세	51	19(37.7)	4(7.1)	22(42.3)	7(12.8)	
	40-49세	62	31(49.5)	7(11.9)	12(19.8)	12(18.8)	
	50-59세	74	31(42.3)	5(7.4)	20(26.6)	18(23.7)	
	60세 이상	170	62(36.3)	24(14.0)	18(10.5)	67(39.2)	
1인 거주 기간	1년~2년 미만	32	11(34.0)	3(9.3)	11(35.1)	7(21.6)	17.92**
	2년~5년 미만	79	29(36.7)	11(13.6)	17(21.2)	23(28.5)	
	5년~10년 미만	76	30(38.9)	10(13.7)	19(25.7)	16(21.7)	
	10년~20년미만	112	52(46.2)	14(12.3)	23(20.2)	24(21.3)	
	20년 이상	101	39(38.5)	10(9.7)	15(14.6)	37(37.2)	

주:  $\chi^2$ 는 카이제곱 값, \*\*p<.01, \*\*\*p<.001

## 6) 사회지지체계 정책

- 사회지지체계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이 38.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1인 가구 친목모임 지원 27.9%, 가족돌봄 및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18.3%,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12.0%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30대·40대·50대는 동호회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이 1인 가구 친목모임 지원을 가장 많이 선호함. 가족돌봄 및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에서 60세 이상이 다른 연령보다 더 많이 선호하며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은 50대에서 높게 나타남

- 혼인유형별로 사별을 제외한 혼인유형에서 동호회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을 가장 선호함. 사별은 1인 가구 친목모임 지원을 가장 많이 선호함.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은 이혼/별거에서 가장 많았으며 가족돌봄 및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도 기혼, 미혼, 이혼/별거, 사별에서 각각 20.9%, 16.0%, 18.8%, 19.5%로 적지 않은 선호도가 나타남
- 경제적 상황에서 기초생활가구는 1인 가구 친목모임 지원을, 차상위가구는 가족돌봄 및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일반가구는 동호회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9〉 사회지지체계 지원 정책(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인 가구 친목모임 지원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결혼준비 프로그램 등 제공	가족돌봄 및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없다	통계량 (χ <sup>2</sup> /P)
[전 체]	400	111(27.9)	154(38.6)	48(12.0)	7(1.8)	73(18.3)	6(1.5)	-
연령	20-29세	43	12(27.8)	23(52.5)	4(9.8)	2(4.9)	0(0.0)	40.24***
	30-39세	51	10(19.1)	25(49.4)	6(11.5)	1(1.9)	9(18.0)	
	40-49세	62	8(12.2)	29(47.2)	7(10.9)	3(4.9)	14(23.1)	
	50-59세	74	16(21.0)	29(38.5)	15(20.4)	1(1.4)	13(17.4)	
	60세 이상	170	67(39.2)	49(28.6)	16(9.4)	0(0.0)	35(20.5)	
혼인	기혼	18	2(10.8)	10(52.1)	3(16.2)	0(0.0)	4(20.9)	65.79***
	미혼	124	26(21.3)	59(47.2)	14(11.3)	5(4.1)	20(16.0)	
	이혼/별거	86	16(18.8)	34(39.7)	15(18.0)	2(2.4)	16(18.8)	
	사별	172	67(39.0)	52(30.3)	15(9.0)	0(0.0)	33(19.5)	
경제적 상황	기초생활	57	20(34.7)	14(24.2)	7(11.9)	0(0.0)	16(27.5)	11.23*
	차상위가구	19	4(18.9)	6(31.5)	2(10.6)	0(0.0)	7(39.1)	
	일반가구	324	88(27.2)	134(41.5)	39(12.1)	7(2.2)	50(15.5)	

주: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5, \*\*\*p<.001

## 마. 세대별 특징

### 1) 2030 여성 1인가구

#### 가)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경험

- 조사결과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경험’ 없음이라는 응답비율이 72.0%로 나타남(<표 3-70>참조)
- 조사대상자 연령별로 20대(34.4%)가 30대(22.6%)보다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제주시는 있다가 18.7%, 서귀포시는 있다가 70.1%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주도의 경우 서귀포에 대학이 없어 서귀포의 경우 2030세대들이 제주시로 나가 비자발적인 1인가구가 된 후 졸업 후 다시 서귀포 원가족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음

<표 3-70>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통계량 ( $\chi^2/P$ )
[전 체]		94	26(28.0)	68(72.0)	-
연령	20-29세	43	15(34.4)	28(65.6)	32.95**
	30-39세	51	12(22.6)	39(77.4)	
거주지역	제주시	77	14(18.7)	63(81.3)	1.47
	서귀포시	17	12(70.1)	5(29.9)	

$\chi^2$ 는 카이제곱 값, \*\*p<.01

-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 28.0%에게 ‘다시 함께 산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64.1%로 나타남(<표 3-71>참조)
- 조사대상자 연령별로 20대는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73.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51.8%), ‘직장발령’(16.9%), ‘부모님을 돌봐야해서’(14.4%) 순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서귀포시(71.3%)가 제주시(58.2%)보다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원가족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음

〈표 3-71〉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생활비 등 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	부모님을 돌보아야 해서	자녀를 돌보아야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직장발령 으로 인해서	휴학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 두어서
[전 체]	26	17(64.1)	3(10.4)	1(3.7)	3(10.4)	2(7.4)	1(4.0)
연령	20-29세	15	11(73.8)	1(7.2)	0(0.0)	2(11.8)	0(0.0)
	30-39세	12	6(51.8)	2(14.4)	1(8.5)	1(8.5)	2(16.9)
거주 지역	제주시	14	8(58.2)	1(7.3)	1(6.8)	2(13.5)	1(7.3)
	서귀포시	12	9(71.3)	2(14.0)	0(0.0)	2(14.7)	0(0.0)

## 나) 향후 결혼 생각

- 조사결과 56.2%는 '결혼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72>참조)
- 조사대상자 연령별로 20대(70.5%)가 30대(44.3%)보다 '결혼생각'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1년~2년 미만인 결혼생각이 있다가 70.6%, 2년~5년 미만이 결혼생각이 있다가 65.8%, 5년~10년 미만이 결혼생각이 있다가 45.4%, 10년~20년 미만이 결혼생각이 있다가 40.9%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결혼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2〉 향후 결혼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94	53(56.2)	41(43.8)	
연령	20-29세	43	30(70.5)	13(29.5)
	30-39세	51	23(44.3)	27(55.7)
1인 거주 기간	1년~2년 미만	17	12(70.6)	5(29.4)
	2년~5년 미만	33	22(65.8)	11(34.2)
	5년~10년 미만	22	10(45.4)	12(54.6)
	10년~20년미만	21	9(40.9)	12(59.1)

다) 가족부양 및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 조사결과 92.2%는 ‘결혼, 임신, 양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없다’고 응답함(<표 3-73>참조)
- 조사대상자 연령별로 30대(10.9%)가 20대(4.1%)보다 ‘가족부양 및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표 3-73〉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이유로 직장 사직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94	7(7.8)	87(92.2)
연령	20-29세	43	2(4.1)	41(95.9)
	30-39세	51	6(10.9)	45(89.1)

라) 직장 이직 횟수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직장은 몇 번째 직장인지를 조사한 결과 3~4번째(36.0%)가 가장 많으며 응답자들은 평균 3.1번 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74>참조)
- 조사대상자 연령별로 직장이직횟수의 평균을 조사한 결과 30대(평균 3.1번)가 20대(3.0)보다 이직경험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 평균 3.8번, 대졸 평균 2.9번, 대학원 이상 평균 2.0번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이직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가 평균 3.0번, 서귀포시가 평균 3.4번으로 서귀포시가 이직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근로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 평균 4.0번, 100~200만원 미만 평균 2.8번, 200~300만원 미만 평균 3.1번, 300만원 이상 평균 3.3번으로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이직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4〉 직장 이직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회	2회	3회~4회	5회 이상	[평균]
[전 체]		80	15(18.7)	24(29.8)	29(36.0)	12(15.5)	3.1
연령	20-29세	32	8(26.1)	11(33.7)	9(27.1)	4(13.1)	3.0
	30-39세	48	7(13.6)	13(27.2)	20(42.1)	8(17.1)	3.1
학력	고졸	18	5(30.2)	3(18.1)	5(28.4)	4(23.3)	3.8
	대졸	62	10(15.7)	20(32.0)	24(38.8)	8(13.5)	2.9
	대학원 이상	1	0(0.0)	1(100.0)	0(0.0)	0(0.0)	2.0
거주 지역	제주시	63	13(21.0)	17(27.1)	24(37.6)	9(14.4)	3.0
	서귀포시	17	2(9.8)	7(40.2)	5(30.4)	3(19.6)	3.4
월평균 근로 소득	100만원 미만	6	1(16.9)	2(33.8)	2(32.5)	1(16.9)	4.0
	100~200만원 미만	34	5(15.2)	8(22.7)	18(51.2)	4(10.8)	2.8
	200~300만원 미만	33	9(26.2)	11(34.1)	7(22.4)	3(17.2)	3.1
	300만원 이상	7	0(0.0)	3(41.1)	2(29.4)	2(29.4)	3.3

### 5) 필요한 일자리정책과 주택정책

- 제주지역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일자리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업성공패키지' 1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청년취업아카데미' 12.9%로 나타남(<표 3-75>참조)
- 연령별로 20대는 '취업성공패키지'(27.1%), 30대는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13.6%)가 가장 많았음
- 학력별로는 고졸은 '청년취업아카데미' 24.9%, 대졸과 대학원이상은 '취업성공패키지'가 각각 18.1%와 100.0%로 가장 많았음
-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정책도 연령별, 학력별로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함

〈표 3-75〉 필요한 청년일자리 정책(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취업 인턴	청년내일 채용공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지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 프로젝트
[전 체]		94	18(19.7)	8(8.7)	7(7.5)	12(12.9)	2(2.1)	9(9.3)
연령	20-29세	43	12(27.1)	4(9.8)	3(7.4)	5(12.3)	0(0.0)	2(4.1)
	30-39세	51	7(13.4)	4(7.7)	4(7.7)	7(13.4)	2(3.8)	7(13.6)
학력	고졸	25	5(20.7)	2(8.5)	3(12.1)	6(24.9)	0(0.0)	0(0.0)
	대졸	68	12(18.1)	6(8.8)	4(6.0)	6(8.7)	2(2.9)	9(12.8)
	대학원 이상	1	1(100.0)	0(0.0)	0(0.0)	0(0.0)	0(0.0)	0(0.0)

- 제주지역 청년들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주택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행복주택공급' 6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청년전세임대주택' 16.2%, '주택마련 대출' 10.9% 순으로 나타남(<표 3-76>참조)
- 연령별로 20대와 30대는 '행복주택공급'이 각각 64.8%, 58.2%로 가장 많았음. 30대는 '주택마련 대출'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유형별로 미혼은 '행복주택공급'과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이혼/별거는 '행복주택공급', '청년전세임대주택', '세어형 대학생 전세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행복주택공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근로소득별로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행복주택공급을 선호하지만 200만원이상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6〉 필요한 청년 주택정책(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행복주택공급	주택마련 대출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청장년이 함께 사는 세대 통합형 주택사업 추진	청년전세임대주택	세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청년들을 위한 통합형 주택공급	통계량 (χ <sup>2</sup> /P)
[전 체]	94	58(61.2)	10(10.9)	2(2.3)	15(16.2)	5(5.2)	4(4.2)	-
연령	20-29세	43	28(64.8)	1(2.5)	2(4.9)	7(16.4)	4(9.0)	71.18**
	30-39세	51	30(58.2)	9(18.0)	0(0.0)	8(16.1)	1(1.9)	
혼인	기혼	2	1(50.0)	1(50.0)	0(0.0)	0(0.0)	0(0.0)	4.61
	미혼	86	54(62.2)	9(10.8)	2(2.5)	13(15.5)	4(4.5)	
이혼/별거	이혼/별거	6	3(50.7)	0(0.0)	0(0.0)	2(32.9)	1(16.4)	0(0.0)
	제주시	77	51(65.9)	7(9.0)	2(2.8)	10(13.2)	3(4.0)	4(5.2)
거주 지역	서귀포시	17	7(40.2)	3(19.6)	0(0.0)	5(29.9)	2(10.3)	0(0.0)
	월평균 근로 소득	9	8(89.6)	1(10.4)	0(0.0)	0(0.0)	0(0.0)	0(0.0)
100만원 미만	10	3(29.7)	1(9.4)	1(10.2)	2(20.3)	2(20.3)	1(10.2)	
100~200만원 미만	34	25(72.9)	6(18.3)	0(0.0)	2(5.9)	0(0.0)	1(2.9)	
200~300만원 미만	33	18(54.5)	2(6.1)	1(3.2)	9(28.0)	2(5.2)	1(2.9)	
300만원 이상	7	3(44.2)	0(0.0)	0(0.0)	2(26.4)	1(14.7)	1(14.7)	

주: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1

## 2) 4050세대 여성 1인가구

### 가)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경험

- 1인 여성가구로 독립하여 살다가 원래 가족(부모/자녀)과 다시함께 산 경험을 조사

한 결과, 있다 21.8%, 없다 78.2%으로 나타남. 타 지역 1인 여성가구인 경우 있다 29.3%, 제주지역 있다가 19.5%로 타지역 여성 1인가구가 함께 산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7〉 4050세대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통계량 ( $\chi^2/P$ )
전 체		136	30(21.8)	106(78.2)	-
고향	제주	83	16(19.5)	67(80.5)	5.45*
	타지역	53	13(25.3)	40(74.7)	

주: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5$

-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 21.8%에게 ‘다시 함께 산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부모님을 돌봐야 해서’가 32.8%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이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 29.6%, 자녀를 돌봐야 해서 29.3%, 직장 등의 문제로 5.5%,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2.8%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40대는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50대는 부모님을 돌봐야 해서와 자녀를 돌봐야 해서가 각각 36.2%로 가족을 돌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남

〈표 3-78〉 1인 여성가구 다시 함께 산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생활비, 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	부모님을 돌봐야 해서	자녀를 돌봐야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직장 등의 문제로
전 체		30	9(29.6)	10(32.8)	9(29.3)	1(2.8)	2(5.5)
연령	40-49세	14	6(43.9)	4(28.8)	3(21.2)	0(0.0)	1(6.1)
	50-59세	16	3(17.5)	6(36.2)	6(36.2)	1(5.1)	1(5.1)

#### 나) 가족부양 및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 조사결과 31.9%는 ‘결혼, 임신, 양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함(〈표 3-79〉참조)

○ 연령별로 40대는 있다가 30.7%, 50대는 32.9%로 50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9〉 가족부양 및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단위%,명)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통계량 ( $\chi^2/P$ )
전 체		136	43(31.9)	93(68.1)	-
연령	40-49세	62	19(30.7)	43(69.3)	39.81***
	50-59세	74	24(32.9)	50(67.1)	

주: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다) 직장 이직횟수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직장은 몇 번째 직장인지를 조사한 결과 3회~4회 43.6%, 5회 이상 36.3%, 1회 10.2%, 2회 9.9% 순으로 나타남. 평균적으로 4.3회 직장 이직횟수를 보이고 있음(<표 3-80>참조)
- 거주기간별로 직장이직횟수의 평균을 조사한 결과 20대 이상이 평균 5회로 가장 많아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직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근로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 평균 6회로 가장 많아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이직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80〉 직장 이직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1회	2회	3회~4회	5회 이상	평균
전 체		117	12(10.2)	12(9.9)	51(43.6)	42(36.3)	4.3
1인 거주 기간	1년~2년 미만	12	3(22.9)	1(8.8)	3(24.4)	5(43.9)	4.1
	2년~5년 미만	25	1(4.0)	5(20.4)	16(63.5)	3(12.1)	3.4
	5년~10년 미만	22	4(19.9)	1(4.5)	8(36.9)	9(38.7)	3.7
	10년~20년미만	35	3(8.0)	2(5.2)	16(45.8)	14(41.0)	4.8
	20년 이상	23	1(4.4)	3(11.6)	8(34.7)	11(49.3)	5.0
월평균 근로 소득	100만원 미만	10	0(0.0)	1(8.6)	2(19.1)	7(72.4)	6.2
	100~200만원 미만	50	4(7.6)	4(7.7)	24(47.4)	19(37.2)	4.6
	200~300만원 미만	38	4(11.3)	5(13.0)	17(46.4)	11(29.3)	3.8
	300만원 이상	20	4(19.7)	2(10.3)	8(40.2)	6(29.8)	3.4

## 라) 구직시 어려움

- 구직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28.3%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내 전공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19.7%, 나이가 많아서 15.1%, 원하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에 못 미쳐서 14.5%, 근무기간이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7.1%, 출퇴근 거리가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5.0%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40대와 50대 모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가장 많았지만 50대는 내 전공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가 40대보다 많았으며, 40대는 나이가 많아서가 50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81〉 구직시 어려움(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내 전공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원하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에 못 미쳐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근무기간이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근무시간이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출퇴근 거리가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없다	
전체	136	27(19.7)	20(14.5)	38(28.3)	10(7.1)	4(2.8)	7(5.0)	20(15.1)	10(7.6)	
연령	40-49세	(62)	11(17.2)	9(14.9)	18(28.4)	1(1.6)	2(3.3)	5(8.2)	12(18.8)	5(7.6)
	50-59세	(74)	16(21.8)	10(14.1)	21(28.2)	9(11.7)	2(2.5)	2(2.2)	9(11.9)	6(7.6)

## 마)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한 적이 없다 93.0%,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다 6.4%, 현재 참여하고 있다 0.6%순으로 나타남. 4050세대 여성 1인가구의 일자리 사업 참여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82〉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전체	136	1(0.6)	9(6.4)	127(93.0)

-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에게 참여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새로운 일자리 경험을 위해서 21.3%, 취업이 안 되어 임시로 일할 곳이 필요해서 17.2%, 향후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0.8%순으로 나타남
- 4050세대 여성 1인가구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3〉 일자리 사업 참여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취업이 안 되어 임시로 일할 곳이 필요해서	향후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새로운 일자리 경험을 위해서
전 체	9	5(50.8)	2(17.2)	1(10.8)	2(21.3)

-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에게 경제적 도움 정도, 근무강도, 근무시간,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도움정도가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29.9%)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도 2.7점으로 가장 낮았음. 그 다음이 근무강도 평균 2.8점, 근무시간 평균 2.9점, 근무기간 평균 3.0으로 나타남.
-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도움정도, 근무강도, 근무시간, 근무기간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3-84〉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종합			[평균]
		불만족 (매우 불만족+불만족)	보통	만족(매우만족+만족)	
경제적 도움정도	9	3(29.9)	7(70.1)	0(0.0)	2.7
근무강도		2(21.1)	7(78.9)	0(0.0)	2.8
근무시간		2(21.1)	6(68.4)	1(10.5)	2.9
근무기간		1(10.5)	7(78.9)	1(10.5)	3.0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93%에게 미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26.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와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각각 21.7%, 개인시간 활용이 수월하지 않아서 8.8%,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6.9%,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4.7%,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어서 3.5%, 근로시간이 적당하지 않아서 2.9%순으로 나타남
- 여성대상 일자리사업에 대한 미참여 이유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와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21.7%로 나타나 정보제공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자리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85〉 일자리 사업 미참여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어서	근로시간이 적당하지 않아서	근로시간이 적당하지 않아서	개인시간 활용이 수월하지 않아서	나의 교육수준이나 기술수준과 맞지 않아서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전 체	127	27 (21.)	9 (6.9)	6 (4.7)	4 (3.5)	4 (2.9)	2 (1.4)	11 (8.8)	2 (1.4)	34 (26.9)	27 (21.7)

#### 바) 중장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 중앙정부의 중장년일자리 정책 중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해야할 일자리 정책을 조사한 결과 중장년 취업인턴 25.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창업지원 20.3%, 중장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15.1%, 직업훈련 10.4%,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9.7%, 사회적 경제관련 지원 9.6%, 고용서비스 7.0%, 해외취업지원 2.8%순으로 나타남. 4050세대들의 취업인턴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표 3-86〉 중장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중장년 취업인턴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지원	중장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창업지원	사회적 경제관련 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 체	(136)	34(25.1)	13(9.7)	4(2.8)	21(15.1)	28(20.3)	13(9.6)	14(10.4)	10(7.0)

사)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건강음료지원사업 인지도

- 중앙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우너하고 있는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과 건강음료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함
-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 10.3%, 모른다 89.7%으로 나타남. 4050 세대 여성 1인가구들은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음료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 2.2%, 모른다 97.8%으로 나타나 이 사업의 대상자인 50대 여성 1인가구들에게 이 사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표 3-87〉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건강음료지원사업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모른다	알고 있다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136	122(89.7)	14(10.3)
건강음료지원사업		133(97.8)	3(2.2)

아) 필요한 건강 및 안전정책

- 주택 개·보수와 4050세대의 갱년기 관련 건강정책의 필요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함
- 혼자 사는 4050세대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한 주택 개·보수에 대한 조사결과 매우 필요하다 52.7%, 대체로 필요하다 35.8%, 보통 11.5%순으로 나타나 88.5%가 필요하다고(매우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응답함
- 4050세대 여성의 갱년기 관련 의료지원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 55.6%, 대체로 필요하다 34.0%, 보통 9.1%, 별로 필요하지 않다 1.3%순으로 조사됨. 대체적으로 여성의 갱년기 여성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해 89.6%가 필요하다고(매우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 응답함

〈표 3-88〉 필요한 건강 및 안전 정책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다	종합		[평균]
						필요	보통	
여성주택 개·보수 지원	136	72 (52.7)	49 (35.8)	16 (11.5)	0(0.0)	120 (88.5)	16 (11.5)	4.4
여성 갱년기 관련 의료지원	136	76 (55.6)	46 (34.0)	12 (9.1)	2 (1.3)	122 (89.6)	12 (9.1)	2 (1.3)

주:5점 척도(1 매우필요하다 ~ 5 별로 필요하지 않다)

### 3) 6080세대 여성 1인가구

#### 가)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업

-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업을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단순노무종사자 23.4%, 서비스종사자 17.0%, 가정주부 11.1%, 자영업 8.2%, 판매직종사자 4.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8%, 사무종사자 0.6 순으로 나타남
- 경제적 상황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가구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각각 25.0%로 가장 많았으며, 차상위가구와 일반가구도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89〉 오래 종사한 직업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농 림/ 어 업 숙 련 종 사 자	기능원 및 관 련 기 능 종 사 자	단 순 노 무 종 사 자	자 영 업	가 정 주 부	통계량 ( $\chi^2/P$ )	
전 체	170	5(2.9)	1(0.6)	29(17.0)	8(4.7)	52(30.4)	3(1.8)	40(23.4)	14(8.2)	19(11.1)	-	
경 제 적 상 황	기초생활	48	0(0.0)	0(0.0)	11(23.0)	3(6.2)	12(25.0)	1(2.1)	12(25.0)	4(8.3)	5(10.4)	27.71***
	차상위가구	9	0(0.0)	0(0.0)	2(22.1)	0(0.0)	3(33.3)	0(0.0)	2(22.3)	0(0.0)	2(22.2)	
	일반가구	113	5(4.4)	1(0.9)	16(14.1)	5(4.4)	37(32.4)	2(1.8)	26(22.8)	10(8.8)	12(10.5)	

주: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 나) 현재 근로 여부

- 현재 근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예가 30.5%, 아니오가 69.5%로 조사됨. 은퇴 이후에도 근로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상황별로 현재 근로하는 경우는 일반가구가 34.3%, 기초생활가구가 25.1%, 차상위가구가 11.1%로 나타남

〈표 3-90〉 근로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통계량 ( $\chi^2/P$ )
전 체		170	52(30.5)	118(69.5)	-
경제적 상황	기초생활	48	12(25.1)	26(74.9)	18.77***
	차상위가구	9	1(11.1)	8(88.9)	
	일반가구	113	39(34.3)	74(65.7)	

주: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01$

다) 일하지 않은 이유

- 현재 근로를 하지 않는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일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은퇴자 혹은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42.8%로 나타났으며 일하고 싶지 않음 27.7%, 건강이 좋지 않아서 19.3%, 일자리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4.2%,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차지 못해서 2.5%,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 보수가 너무 낮아서 2.5% 순으로 나타남
-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를 제외한 6080세대들은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거나 구직방법을 모르거나 저임금 및 경력연계가 안 돼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경제상황별로 기초생활가구는 58.3%가 은퇴자 혹은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1〉 일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은퇴자 혹은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를 찾지 못해서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의 보수가 너무 낮아서	일자리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고 싶은 일자리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일하고 싶지 않음	건강이 좋지 않아서	통계량 ( $\chi^2/P$ )
전 체	118	51(42.8)	3(2.5)	3(2.5)	5(4.2)	1(0.8)	33(27.7)	23(19.3)	-
경제적 상황	기초생활	36	21(58.3)	1(2.8)	1(2.8)	0(0.0)	5(13.9)	7(19.4)	19.98**
	차상위가구	8	4(50.1)	0(0.0)	0(0.0)	0(0.0)	3(37.4)	1(12.4)	
	일반가구	74	26(34.7)	2(2.7)	2(2.7)	4(5.4)	1(1.3)	25(33.3)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1$

## 라) 의료보건기관 이용의 어려움

- 의료보건기관을 이용 할 때 불편한 점을 조사한 결과, 불편한 점이 전혀 없다가 24.0%로 가장 많으며, 같이 갈 사람을 찾기 어렵다 21.0%, 비용이 많이 든다 19.9%, 거리가 멀다 14.6%, 예약절차가 불편하다 14.1%,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5.9%, 의사나 직원이 불친절하다 0.6순으로 나타남.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76.0%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27.8%로 가장 많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2〉 의료보건기관 이용시 불편한 점(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약 절차가 불편하다	같이 갈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용 절차가 복잡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의사나 직원이 불친절 하다	거리가 멀다	불편한 점이 전혀 없다	통계량 ( $\chi^2/P$ )
[전 체] 1순위	170	24(14.1)	36(21.0)	10(5.9)	34(19.9)	1(0.6)	25(14.6)	41(24.0)	-
1 인 거 주 기 간	1년~2년 미만	2	0(0.0)	0(0.0)	0(0.0)	1(50.0)	0(0.0)	0(0.0)	31.96**
	2년~5년 미만	19	2(10.6)	4(21.0)	2(10.5)	1(5.3)	0(0.0)	2(10.5)	
	5년~10년 미만	28	5(17.9)	6(21.4)	0(0.0)	7(25.0)	0(0.0)	3(10.7)	
	10년~20년미만	50	12(24.0)	10(20.0)	3(6.0)	5(10.0)	1(2.0)	8(16.0)	
	20년 이상	72	5(7.0)	16(22.2)	5(7.0)	20(27.8)	0(0.0)	12(16.7)	

주:  $\chi^2$ 는 카이제곱 값, \*\*p<.0

## 마) 사회참여활동 시 어려움

- 사회참여활동 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가 59.6%로 가장 많이 나타남. 그 다음으로 정보를 잘 모른다 15.8%, 경제활동을 하느라 시간을 내기 어렵다 9.4%,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 5.3%, 어려움 점이 전혀없다 4.7%, 나이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2.9%순으로 나타남. 주로 6080세대는 건강문제와 정보를 몰라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거주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가 제주시가 71.6%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활동을 하느라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가 서귀포시는 2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정보를 잘 모른다는 제주시(17.25%)가 서귀포시(12.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3〉 사회참여 활동시 어려움(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경제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내기 어렵다	가족을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어렵다	활동을 하는데는 비용이 부담된다	정보를 잘 모른다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이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어려운 점이 전혀 없다
전 체	170	101(59.6)	16(9.4)	1(0.6)	9(5.3)	27(15.8)	3(1.8)	5(2.9)	8(4.7)
거주 지역	제주시	115	82(71.6)	2(1.7)	0(0.0)	5(4.3)	20(17.2)	1(0.9)	3(2.6)
	서귀포시	55	19(34.5)	14(25.5)	1(1.8)	4(7.3)	7(12.7)	2(3.6)	6(10.9)

바) 노인여가시설 이용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이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첫째, 노인복지관의 경우 이용한 적 없다 58.5%, 이용한 적 있다 41.5%로 나타남
- 둘째, 경로당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용한 적 없다 37.5%, 이용한 적 있다 62.5%로 이용한 적이 있다 더 많음. 고향별로 제주지역이 이용경험이 더 많으며 거주지역별로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이용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셋째, 노인교실 이용 경험을 보면, 이용한 적 없다 91.2%, 이용한 적 있다 8.8%로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넷째, 노인대학 이용경험도 이용한 적 없다 87.1%, 이용한 적 있다 12.9%로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4〉 노인여가시설 이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용한적 없다	이용한적 있다	통계량 (χ <sup>2</sup> /P)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	170	99(58.5)	71(41.5)	-	
	경로당 이용 경험	170	64(37.5)	106(62.5)	-	
	고향	제주	115	32(27.6)	83(72.4)	4.16*
		타지역	55	32(58.2)	23(41.8)	
	거주 지역	제주시	115	29(25.0)	86(75.0)	14.61***
		서귀포시	55	35(63.6)	20(36.4)	
	노인교실 이용 경험	170	155(91.2)	15(8.8)	-	
노인대학 이용 경험	170	148(87.1)	22(12.9)	-		

주: χ<sup>2</sup>는 카이제곱 값, \*p<.05, \*\*\*p<.001

### 사) 노인관련 정책 이용 경험

- 최근 1년 이내 노인관련 정책 이용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이 8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장수 수당 24.5%, 무료 건강검진 19.3%, 해당 사항 없음 12.9%, 노인 돌보미 6.4%, 백내장 시술, 치매 4.1%, 틀니/보청기 지원 사업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각각 3.5%, 주거개선 및 주거비 지원사업과 노노케어 각각 1.2%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6080세대 여성 1인가구들은 현금지원관련 서비스를 가장 많이 경험한 반면, 돌보미 및 주거지원관련 서비스는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5〉 최근 1년 이내 노인관련 정책 이용 경험(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기초연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보험	노인 돌보미	노노케어	무료 건강검진	주거개선 및 주거비 지원사업
전 체	170	143(84.2)	6(3.5)	1(0.6)	11(6.4)	2(1.2)	33(19.3)	2(1.2)
		식사 배달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틀니/보청기 지원사업	장수수당	이미용료/목욕 지원사업	백내장 시술, 치매	해당사항 없음
		1(0.6)	4(2.3)	6(3.5)	42(24.5)	4(2.3)	7(4.1)	21(12.9)

### 아) 노인층을 위한 서비스 정보와 소식 취득 경로

-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 관련 정보와 소식을 주로 어디서 취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웃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이나 신문 19.3%, 친구 14.1%,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11.7%, 노인복지시설/평생교육시설 게시판이나 직원 9.9%, 가족 4.7%순으로 나타남. 6080세대에게 이웃은 중요한 소통의 매개임을 알 수 있음
- 고향유무별로 보면 타지역이 고향인 경우는 방송이나 신문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29.1%로 제주가 고향(14.7%)인 경우보다 2배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 거주지역에 따라 서귀포시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27.3%, 제주시는 이웃을 통해 48.3%가 정보/소식을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6〉 정보/소식 취득 경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공무원 이나 사회 복지사	방송 이나 신문	인터넷	노인복지 시설/ 평생 교육시설 게시판 이나 직원	가족	친구	이웃	없다	통계량 ( $\chi^2/P$ )	
전 체	170	20(11.7)	33(19.3)	1(0.6)	17(9.9)	8(4.7)	24(14.1)	67(39.1)	1(0.6)	-	
고향	제주	115	15(12.9)	17(14.7)	0(0.0)	14(12.1)	6(5.2)	14(12.1)	49(42.2)	1(0.9)	14.92*
	타지역	55	5(9.1)	16(29.1)	1(1.8)	3(5.5)	2(3.6)	10(18.2)	18(32.7)	0(0.0)	
거주 지역	제주시	115	14(12.1)	18(15.5)	0(0.0)	10(8.6)	5(4.3)	12(10.3)	56(48.3)	1(0.9)	10.77
	서귀포시	55	6(10.9)	15(27.3)	1(1.8)	7(12.7)	3(5.5)	12(21.8)	11(20.0)	0(0.0)	

주:  $\chi^2$ 는 카이제곱 값, \* $p < .05$ 

#### 자) 여성노인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

- 노년층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노년층 여성들에게 알맞은 일자리 개발 및 취업알선', '혼자사는 노년층 여성 안전/건강을 위한 주택개·보수', '노년층 여성질환 관련 건강용품지원', '노년층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문화예술관람 기회제공', '노년층의 자원봉사·사회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노년층 여성들의 의견이 지역사회 정책 및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 마련',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노년층을 위한 가정방문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5점 척도로 조사함
- 조사 결과 '혼자 사는 노년층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주택 개·보수'와 '노년층을 위한 가정방문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각각 평균 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년층 여성 질환 관련 건강용품 지원'이 평균 4.1점, '노년층 여성들에게 알맞은 일자리 개발 및 취업알선' 평균 3.9점, "노년층 여성들의 의견이 지역사회 정책 및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 마련" 평균 3.8점,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문화예술관람 기회 제공'과 '노년층의 자원봉사·사회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각각 3.7점,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평균 3.6점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관련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6080세대들은 주택개·보수, 여성질환 건강용품, 취업알선, 정책참여 등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은 반면 문화관람, 사회참여정보제공,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7〉 여성노인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종합			평균
							필요	보통	불필요	
일자리개발 및 취업알선	170	39 (22.9)	89 (52.6)	34 (19.9)	5(2.9)	3(1.7)	128 (75.4)	34 (19.9)	8(4.7)	3.9
주택 개.보수	170	61 (35.7)	88 (52.0)	21 (12.3)	-	-	14 (8.7)	21 (12.3)	-	4.2
여성 건강용품 지원	170	46 (26.9)	97 (57.3)	22 (12.9)	2(1.2)	3(1.8)	143 (84.2)	22 (12.9)	5(2.9)	4.1
노년 문화예술관람 기회 확대	170	27 (15.8)	87 (51.4)	41 (24.0)	11(6.4)	4(2.3)	114 (67.2)	41 (24.0)	15(8.8)	3.7
자원봉사.사회참여 정보 제공	170	23 (13.5)	89 (52.6)	42 (24.6)	15(8.8)	1(0.6)	112 (66.1)	42 (24.6)	16(9.3)	3.7
정책의견수렴 통로 마련	170	32 (18.7)	91 (53.8)	36 (21.1)	8(4.7)	3(1.8)	123 (72.5)	36 (21.1)	11(6.4)	3.8
젊은세대와 교류 프로그램 마련	170	23 (13.5)	78 (46.1)	54 (31.6)	12(7.0)	3(1.7)	101 (59.6)	54 (31.6)	15 (8.8)	3.6
가정방문 등사회복지서비스	170	70 (40.9)	75 (44.4)	22 (12.9)	1(0.6)	2(1.2)	145 (85.3)	22 (12.9)	3(1.8)	4.2

주:5점 척도(1 매우 필요하다 ~ 5 불필요하다)

### 차) 노인관련 정책 인지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중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혼자사는 노인 후원결연관리', '노인건강진단',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대상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중장년 건강음료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인지도를 조사함
- 혼자사는 노인층에게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 17.0%, 모른다 83.0%으로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에 대해 인지도가 낮음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 21.7%, 모른다 78.3%, 으로 나타남
- 혼자사는 노인 후원결연관리에 살펴보면, 알고 있다 12.3%, 모른다 87.7%로 조사됨
-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52.0%, 모른다 48.0%로 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노인 식사배달 정책 인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알고 있다 27.5%, 72.5%로 나타남
- 저소득 대상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알고 있다 15.8%, 84.2%로 나타남
- 중장년 건강음료지원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알고 있다 4.7%, 95.3%로 나타남
- 조사결과 '노인건강진단'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그 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택 개보수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또한 중장년 건강음료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8〉 노인관련 정책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모른다	알고 있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	170	141(83.0)	29(17.0)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170	133(78.3)	37(21.7)
혼자 사는 노인 후원결연관리	170	149(87.7)	21(12.3)
노인 건강진단	170	82(48.0)	88(52.0)
노인 식사 배달	170	123(72.5)	47(27.5)
저소득 대상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170	143(84.2)	27(15.8)
1인 가구 중장년 건강음료지원사업	170	162(95.3)	8(4.7)

### 3. 요약 및 시사점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연령별, 소득별, 세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 경제적 상태, 주거환경 및 안전, 건강 및 여가, 가족관계, 사회관계, 노후전망, 정책욕구, 세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가. 여성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

- 조사결과 60세이상 1인가구가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인유형 또한 사별이 43.0%였음. 거주이유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이 55.5%로 많아 제주 지역은 60세이상 노인 여성 1인가구가 많으며 자발적인 여성 1인가구보다는 비자발적인 여성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근로 소득은 '근로소득 없음'(34.5%)과 100만원미만(13.0%)이 47.5%로 소득이 낮지만 경제적 상황은 일반가구가 80.9%로 나타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거주기간은 평균 12.12년으로 10년 이상이 많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 근로소득도 평균 114만원으로 거주기간이 10년·20년 이상이면 '근로소득 없음'이 35.1%, 52.8%로 많아 거주기간 10년이후부터는 점차 월평균 근로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신체적 건강평가가 평균 2.2점으로 건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이 나빠 소득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도 나빠진다고 볼 수 있음.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중 일하지 않는 이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58.1%로 많아 여성 1인가구의 자립지원정책은 건강관리지원사업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나. 주거환경 및 안전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자가소유가 33.2%로 청년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서울에 비해 자가점유비율이 높지만 주택유형이 아파트(30.8%)와 단독주택(30.6%)이 많아 주변환경에 대한 안전도는 평균 34.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남. 그러나 연령별로 40대가 주변환경에 대한 안전도가 평균 3.2점으로 가장 낮으며 40대는 자가소유보다는 보증금 있는 월세(27.0%)가 가장 많으며 주택유형 또한 연립/다세대주택이 35.3%로 아파트보다는 연립/다세대주택이 안전에 취약하기때문으로 보임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주거비용중 연세(22.9%)보다 월세(61.0%)가 더 많으며 지출액은 연세 년 평균 492만원, 월세 월 평균 28만원으로 나타남. 문제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월 평균 15만원의 월세지출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무상지원의 경우 20대 17.3%, 30대 11.9%, 40대 7.0%, 50대 5.8%, 60세이상 27.6%로 4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는 주거지 선택 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남. 2030세대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59.2%, 4050세대인 경우 비용이 저렴해서 39.2%, 6080세대는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가 39.2%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주택 구입시에는 높은 보증금/월세의 어려움(61.2%), 좋은 집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부족(19.6%)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주택에 살 의향이 없음'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원룸과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는 친교 및 운동/여가를 위한 공동 공간 있는 주택'(26.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생활보다는 독립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주거지안전(주변지역 폭력·범죄, 소음, 보안·도둑침입)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 3.3점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별로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평균 3.0점으로 더 낮게 나타남. 여성 1인가구의 안전도에 대해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보다 79.0%로 더 많이 위협(매우위험함+약간위험함)하다고 생각함. 20대와 30대들이 주거지에 불안을 느낀다고 볼 수 있음. 범죄예방 및 대처교육에 대한 욕구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들이 교육욕구가 높게 나타남

#### 다. 가족관계 및 경제상태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중 19.6%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돌봄 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이 있으며 기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3.1%가 가족돌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돌봄대상자로는 부모가 54.6%로 가장 많으며 연령별로 20대는 부모, 30대는 부모와 자녀, 40대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50대는 부모, 자녀, 손자녀, 60대는 손자녀, 부모, 자녀순으로 나타남. 특히, 근로소득이 없어도 부모(40.0%)와 손자녀(30.0%)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의 가족부양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과반수 이상이 생활비 마련을 본인의 근로소득(58.7%)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20대도 본인이 70.5%, 부모의 도움 27.1%로 본인이 생활비를 더 많이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생활비는 월평균 103만원으로 나타남. 월평균 근로소득이 평균 114만원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음. 부채여부를 조사한 결과 없다는 72.9%로 많으며 부채가 있는 경우는 주택마련 26.2%, 생계비 25.2%, 사업자금 21.4%로 나타나 생계비도 부채의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직업을 보면 서비스직이 38.1%로 가장 많으며 평균 월근로소득도 114만원이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총 36.4시간으로 나타남. 나이가 많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과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라. 건강 및 여가 그리고 사회관계

- 건강상태의 경우 신체적 건강은 평균 2.9점, 정신건강은 평균 3.5점으로 신체적 건강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운동은 주1~2회(28.9%)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37%), '운동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34.0%)로 나타나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함
- 제주지역 여성1인가구의 여가시간은 평균 평일 약 4시간, 주말 약 6시간이며 주로 친구나 이웃(61.2%)과 보내며 그 다음이 혼자(20.3%)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가 교육활동 참여가 83.2%가 없지만, 참여한 경우는 세대별 특징이 나타남. 2030세대는 학교 또는 부설평생교육기관, 학원사업장 부설 문화센터에서 교육참여가 높고, 40대와 50대, 60세이상은 복지관련 기관, 종교시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 및 복지, 종교관련 기관의 프로그램에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여성 1인가구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취미 관련 교육'이며 60세 이상은 '건강, 보건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이웃을 사귀는 방법',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왕래할 수 있는 이웃', '서로 협동하는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있어 나이가 들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20대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웃에 대한 세대차이가 있음
- 활동하는 사회단체나 모임에 대한 조사결과 없음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단체나 모임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관계의 고립을 경험할 수 있음

## 마. 노후전망 및 정책욕구

- 향후계획 또한 계속 혼자 생활 할 것 같다 65.5%로 많지만 연령별로 20대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22.9%)가 많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적어지고 계속 혼자 생활 할 것 같다는 30대를 전후로 40대이후 크게 많아졌음
- 자신의 노후생활 전망중 사회적 관계와 주거상황이 평균 3.0으로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상황 평균 3.1, 경제적 상황 평균 3.3, 건강상태 평균 3.4는 다소 어렵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공급정책(54.2%)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그 다음이 건강증진관련 정책 15.6%, 여성안전정책 13.8%, 경제적 여건 개선정책 13.5%, 여성 1인가구 인식개선 1.2%,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정책 1.0%, 가족내 관계망 지원 정책 0.7%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공급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 공급(45.7%)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그 다음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임대 주택 입주 조건완화와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23.6%), 1인 가구를 위한 공유형 공동주택 공급(12.2%), 1인 가구 지원서비스 시설 복합형 대규모 집합 주택 (6.5%)순으로 나타남. 경제상황별로 주택정책에 있어 기초생활가구는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과 공동주택 공급을 선호를, 차상위는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일반가구는 임대주택입주조건외의 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여성안전 정책으로는 주택주변 환경 개선이 59.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위급상황시 사회적 보호장치 제공 19.0%, 주택내부 환경 개선 17.7%, 늦은 시간 귀갓길을 함께 동행해줄 수 있는 도우미 2.6%,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택배함 설치 1.5%순으로 나타남. 연령의 낮을수록 주택주변 환경 개선의 경우 20대가 67.2%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내부 환경 개선은 60대가 20.5%, 위급상황시 사회적 보호장치 제공도 60대가 22.8%로 가장 많음. 늦은 시간 귀갓길을 함께 동행해줄 수 있는 도우미와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택배함 설치 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정책으로는 사회보장 제도개선이 60.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구직 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 13.5%,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 9.7%,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 6.5%, 직업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제공 6.1%,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3.9%순으로 나타남. 세대별로 사회보장 제도 개선은 6080세대가, 구직활동 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4050세대가,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은 2030세대가,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은 2030세대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지원 정책으로는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가 40.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강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 26.8%, 신체적 건

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21.2%, 우울증 검진서비스 및 프로그램 11.9%순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들은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를 다른 정책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연령별로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는 40대가, 우울증 검진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20대가,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은 30대가, 건강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은 60대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지지체계 지원 정책으로는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이 38.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1인 가구 친목모임 지원 27.9%, 가족돌봄 및 개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18.3%,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12.0%순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20대·30대·40대·50대는 동호회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이 1인 가구 친목모임 지원을 가장 많이 선호함. 가족돌봄 및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에서 60세 이상이 다른 연령보다 더 많이 선호하며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은 50대에서 높게 나타남

## 바. 세대별 특징

- 2030세대는 원가족과 다시 함께 산 이유가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였지만 4050세대는 '부모님을 돌봐야 해서'가 가장 많았음. 향후 결혼생각 또한 2030세대는 56.2%가 결혼생각이 있지만 20대 70.5%에서 30대가 되면 44.3%로 떨어졌음. 2030세대는 7.8%는 '결혼, 임신, 양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050세대는 31.9%는 '결혼, 임신, 양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함. 직장이직 또한 2030세대는 평균 3.1번이며 4050세대는 평균 4.3회로 나이가 들수록 이직경험이 높게 나타났음
- 2030세대는 청년일자리정책 중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일자리정책에 대해 '취업성공패키지' 1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청년취업아카데미' 12.9%로 나타남
- 반면 4050세대는 구직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28.3%로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사업에 참여이유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50.8%로 가장 많았음. 그러나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도움정도

- (평균 2.9점), 근무강도(평균 2.8점), 근무시간(평균 2.9점), 근무기간의 만족도(평균 3.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중장년일자리 정책 중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해야할 일자리 정책으로 중장년 취업인턴 25.1%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그 다음이 창업지원 20.3%, 중장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15.1%, 직업훈련 10.4%,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9.7%, 사회적 경제관련 지원 9.6%, 고용서비스 7.0%, 해외취업지원 2.8%순으로 나타남. 4050세대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4050세대들이 필요한 건강 및 안전정책에 대해 주택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88.5%)와 여성의 갱년기 여성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해 89.6%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6080세대는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업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단순노무종사자 23.4%, 서비스종사자 17.0%, 가정주부 11.1%, 자영업 8.2%, 판매직종사자 4.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8%, 사무종사자 0.6 순으로 나타남. 현재 30.5%가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은퇴자 혹은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42.8%이며 일하고 싶지 않음 27.7%, 건강이 좋지 않아서 19.3%, 일자리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4.2%,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차지 못해서 2.5%,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 보수가 너무 낮아서 2.5% 순으로 나타남
  - 6080세대는 의료보건기관이용 시 같이 갈 사람이 없어(21.0%)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참여활동시 어려움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59.6%)인 것으로 나타남. 노인여가시설 중 이용한 적이 없는 시설은 노인교실(91.2%), 노인대학(87.1%), 노인복지관(58.5%), 경로당(37.5%)으로 나타남. 60세 이상은 여가프로그램으로 '건강, 보건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기 때문에 노인교실, 노인대학에 건강 및 보건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6080세대들은 주택개·보수와 가정방문등 사회복지서비스(각각 평균4.2점), 여성질환 건강용품(평균4.1점), 일자리개발 및 취업알선(평균3.9점), 정책의견수렴 통로 마련(평균3.8점)등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은 반면 문화관람기회확대(평균3.7점), 자원봉사·사회참여정보제공(평균3.7점), 젊은 세대와의 교류(평균3.6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실태(2):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1. 조사개요
2. 분석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 1. 조사개요

### 가. 면접대상자 선정 및 면접기간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러나 1인가구들의 형성배경,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그 특징과 욕구는 다양하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심층면접을 실시했음
- 심층면접대상자는 총 10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2명, 30대 1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명, 80대 1명으로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4-1>과 같음.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징은 ‘사례번호’<sup>16)</sup>로 표시했음
  - 심층면접대상자는 아는 지인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소개를 받고 이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1차로 추천을 받아 2~3명의 면접대상자를 면접했으며, 이들에게 다시 다른 면접대상자를 소개받는 ‘snowball sampling(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10명을 선정했음
  - 특히, 취약집단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자와 1인가구 관리대상자의 경우는 담당 공무원에게 연구목적에 맞는 추천자를 선정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심층면접을 수락한 자발적 참여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음
- 심층면접은 주로 면접 대상자의 자택에서 이루어 졌으며 부득이할 경우 면접대상자의 사무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민센터 등에서 이루어졌음. 조사기간은 2018년 4월 17일부터 7월17일까지 약 네 달여 기간 임

<표 4-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대상자	거주지역	연령대	혼인상태	기간	형성배경	직업	건강상태	주거유형	비고
사례1	제주시	30대	미혼	4~5년	작장	자영업	나쁜편	다세대주택	공황장애
사례2	제주시	20대	미혼	4년	학업	대학생	양호	빌라	아르바이트
사례3	제주시	50대	미혼	3년	비혼	공무원	양호	단독주택	

16) 심층면접대상자의 인적사항은 자세히 밝히지 않고 ‘사례1’로 표시함. 연구윤리에 의해 심층면접대상자의 신상과 정보는 익명으로 보호받아야하며 제주지역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자세한 표기는 면접대상자들에게 부담을 주기때문임

대상자	거주지역	연령대	혼인상태	기간	형사배경	직업	건강상태	주거유형	비고
사례4	제주시	50대	기혼	4년	이혼	자영업	보통	빌라	1인가구지원 갱년기
사례5	제주시	80대	기혼	20년	사별	해녀	나쁜편	단독주택	다리수술
사례6	제주시	20대	미혼	1년	직장	가족관련 실무자	양호	다세대 주택	
사례7	서귀포시	60대	기혼	30년	이혼	없음(신 용불량자)	나쁜편	임대 아파트	1인 가구 관리대상자
사례8	서귀포시	50대	기혼	7~8년	이혼	없음	나쁜편 (심근경색)	다세대 주택	기초수급자
사례9	제주시	40대	동거	7년	별거	없음	나쁜편 (뇌전증)	다세대 주택	기초수급자
사례10	제주시	40대	동거	6년	아별	콜센터 직원	양호	쪽방	조건부 기초수급자

## 나. 면접내용

- 심층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접대상자로 하여금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했음. 질문영역은 1인가구 생활만족, 경제활동 및 노후대책, 건강 및 여가, 사회적 관계망, 주거환경 및 안전, 정책인지도, 정책욕구 등이며 구체적 질문내용은 <표 4-2>와 같음

<표 4-2> 심층면접 질문내용

질문영역	질문내용
1인 가구 생활만족	혼자 거주하게 된 이유, 1인가구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향후 계획 및 가족구성에 대한 전망, 희망사항 등
경제활동 및 노후대책	현재 직업이 무엇인지, 현재 소득이 생활하기에 적당한지, 소득증대와 관련해 필요한 도움, 노후준비 등
건강 및 여가	건강으로 걱정하는 부분, 음주 또는 흡연정도, 평소 건강을 위한 활동, 우울/불안감/외로움정도,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움,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참여하는 사회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고민을 나누는 대상과 고민내용, 없다면 그 이유, 가족/이웃/친구 관계 및 도움정도, 응급 시 도와주는 사람여부, 사회적 관계개선을 위한 도움 등
주거환경 및 안전	현 주거지선택이유, 주거환경 내 불편한 부분, 범죄노출 경험, 주거안전을 위한 도움 등
정책인지도	정책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지, 1인가구로 지원받은 정책이 있는지, 주거/돌봄/노인/제주도 1인가구 관련 지원정책을 아는지 여부 등
정책욕구	여성 1인가구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점, 여성 1인가구에 필요한 정책 등

## 2. 분석결과

- 이 장에서는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장단점, 주거, 안전, 건강, 사회관계, 미래가 족계획, 필요한 지원을 중심으로 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욕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했음

### 가. 1인가구로서의 생활

- 심층면접 결과 여성 1인가구들은 직장, 학업, 이혼, 사별, 별거, 이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1인가구로 유입되었지만 거의 모든 심층면접자들은 여성 1인가구 생활의 장점으로 '자유'를 꼽았음. 반면,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20대와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심층면접자들은 1인가구 생활의 단점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음. 또한, 1인가구들은 주변에 1인가구임을 알리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 1) 간섭과 통제로 부터의 자유

- 심층면접자들은 귀가시간에 대한 부모님과 남편으로 부터의 간섭과 통제로 부터의 자유를 1인가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음. 사례2의 경우 이러한 시간의 자유는 부모님이 보고 싶지만 1인가구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으로 보임. 사례3은 성인이기 때문에 시간의 자유를 이제는 부모가 아닌 본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 사례7은 남편과 가족으로부터의 통제된 삶에서 벗어난 해방감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니깐 자유로운 거랑, 그런거는 좀 뭔가 엄마아빠 보고싶어서 주말에 가면은... 가끔 가면 엄청 또 가고 싶고 하는데, 막 오랫동안 다시 거기에 있으면은 빨리 들어오라거나 그러면은 그냥 혼자 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런...(사례2)

이제 아무래도 늦게 오다보면 또 부모님도 걱정하시잖아요 이게. 아이고 딸아이가 왜이렇게 늦으냐...그런 것에도 벗어날 수 있고 왜냐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나니깐, 부모님들은 항상 어린 나이로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게 간섭받기가 싫어가지고(사례3)

혼자 살 때는 밖에 나와도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간섭을 안 받고 사는 게 편 안한 거지...근데 이제 혼자는 내 스타일대로 살다가, 귀찮고 싫으면 들어오면 되는 기고. 누구에게 이렇게 간섭을 안 받잖아(사례7)

- 그러나 1인가구로서 혼자 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생활의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사례1은 부모로부터의 통제된 삶에서 벗어난 자유 외에는 1인가구의 장점이 없다고 언급할 만큼 1인가구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늦잠 자도 누가 터치할 수 없.. 우선 내 생활이 보장이 된다는 것 자유생활이 보장 된다는 것, 제일 좋은 거 하나는 부모님의 터치가 없다는 거죠 여자로서. 제일 좋은 건 통금 시간인데 부모님이 안계셔도 통금시간은 알아서 내 스스로가 정해지게 되긴 하더라도.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사례1)

## 2) 낮은 소득과 건강의 어려움

- 1인가구들은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는 20대를 제외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4050세대의 경우 건강의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 경력이 많을수록 취업하기 어려움

- 사례1은 30대로 제주에 일자리가 없어 육지에 취업을 하면서 1인가구가 되었지만 퇴사 후 다시 제주로 내려와 부모님 집에 들어갈 수 없어 1인가구가 된 경우임. 사례1은 육지에서의 많은 경력이 제주도의 낮은 임금시장에서는 방해요소가 됨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서비스직이 주산업인 제주도의 경우 고용주의 입장에서 단순노동자보다 경력이 많은 노동자는 부담스러워 노동자이며 채용에서 밀려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함. 결국 사례1은 경력을 살려 창업을 하게 되지만 집세와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1인가구로 살면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음

집세 감당도 어려운 실정이고 생활비는 물론이거니와, 결혼은 꿈도 못 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제주에서는 써 주지도 않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네 경력은 많이 있어서 어디를 가도 써줄 수 있는, 써주는 경력인데 경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만큼에 경력에 맞는 페이를 줄 수가 없다 페이를 안주셔도 됩니다 했는데도 그 뺨은 담당자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제가 공황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6년째 알고있는데...(혹시 공황장애는 1인가구로 살면서 생긴 건가요?) 이거요? 그때 서울가서니까.. 네... 부산.. 그러니까 부산에 있다가, 그니까 제주에서 부산에 있다가 거기서 일이 안좋은 것이 있어서 거기서 제주도 내려왔다가 한달반 만에 서울에 갔어요 근데 서울 가니까 공황장애가 바로 나타나버렸어요 1년정도 있으니까(사례1)

## 나)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가 없음

-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나이가 들어 건강의 문제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사례5)와 질병을 얻어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사례7, 사례8)로 나타남. 심층면접을 통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
- 사례5는 여성노인 1인가구로 허리와 무릎 등 관절관련 통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질병은 단순한 소일거리로 구성된 노인일자리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낮은 소득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생은 뭐 항상 했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까지라도.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활발시럽지 않고...(몸이 아프니까 활발하지 못해서 뭐가 어렵습니까?)음 남과 같이 활동 못하고...(아 지금은 어디가 가장 많이 아프세요?) 허리죠. 난 다리는 양쪽 수술 했는데. 어휴... 뭐 짚으지 않으면, 짚으면은 뭐 꺼떡 서서 잘 걷는데, 혼자 걸자면은 다 이 허리가 아파서..(돈벌러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이고. 돈벌러는 일 할데가 없지요. 아파노니까. 허지 못하고, 저 노인 일자리... 뭐 씨래기 같은 거라도 담고 나무 저 떨어진 것도 쓸고 그래요...(그러면 얼마정도 받으니까?) 27만원이래요 한달에. 일은 힘들진 않아요(사례5)

- 반면 사례7의 경우는 사업을 하다 실패한 후 건강이 나빠져 지금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며 빚을 갚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업은 없죠. (아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예. 나 요 다리도 또 이렇게 아파가지고 걸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생활이 어려워가지고...4년, 한 5년 전에는 장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뭐 다방 같은 거. 뭐 그런 것 하다가...술집도 하고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은행건수에 뭔가 걸러가지고 다 블랙이 되가지고 못하고(대출금을 못 갚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대출금을 못 갚아가지고 예...그때는 저 젊을 때니깐. 혼자서 뭐 그것도 없고 하니깐 먹고살고. 또 돈도 좀 벌었다가 망했다가 또 벌었다가 또...그렇게 살아졌지요. (하하하) 사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또 목 디스크가 오는가, 오른쪽 팔을 이렇게 들지를 못 하겠는 거라(사례7)

- 사례8의 경우도 몸이 아프기 전에는 일을 했지만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정신적인 질병까지 얻어 아예 일을 못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음

(한 7-8년 동안 주거를 어떤 식으로 하셨...) 그냥: 아이 그 몸이 아프기 전에는 일을 했죠. 근데 그 전에도 아파서 막 힘든 일은 못했는데, 그냥 알바정도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한: 5년, 4년 전 인가 5년 전인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진짜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급성심근경색으로~ 2번 쓰러졌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려고 있어도 머리가 (핑)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멍해가지고 머리가 이거 맑지 못한 거 있죠? 조금 (찌뿌듯한?) 아무튼 이상해요. 이렇게 정신이 맑지가 못해요(사례8)

- 따라서 여성 1인가구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구직의 실패, 건강문제가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음

### 3) 외로움

- 1인가구들은 집에 돌아가면 혼자이기 때문에 다른 가구에 비해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2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학원 때문에 1인가구가 된 경우는 더욱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전 제가 우울, 누군가를 안 만나면 우울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우울하다기 보다는 약간 외로운 게 엄청 심한 줄은 몰랐어요. 근데 혼자 살면서 그게 엄청 심하긴 한 것 같아요(사례2)

- 사례4는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1인가구로 살고 있으며 고향이 아니기에 더욱 외로움을 느낀다고 볼 수 있음. 사례4는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고 향후 1인가구가 많아질 때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1인은 좀 그게 너무 외로워요. (음 외로움) 응 외롭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1인가구가 많아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사회구성을 봤을 때는 안 좋아요. 왜 1인이라 그 자체가 우울증이 많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사례4)

### 나. 높은 주거비와 안전 불안

- 심층면접 결과 여성 1인가구는 연립/다세대주택, 임대아파트, 단독주택, 원룸, 쪽방 등

다양한 주택유형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수준으로 불안정 점유형태(년세, 달세, 사글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거나 빚, 또는 파산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노출되어 있었음

- 20대와 30대의 경우는 부모와 동생 등 가족의 주거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안정층과 주거취약층으로 이분화되었음.
- 60대 이후는 이혼과 사별에 따라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와 임대로 나뉘어졌음
- 연립/다세대주택, 원룸,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들은 소음, 출입구보안시설, 방범창, CCTV, 공동화장실 이용 등 안전시설 미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1) 높은 주거비

- 제주지역의 경우 매달 달세를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와 사례1처럼 달세를 1년 단위로 한꺼번에 지불하는 년세가 있음. 대체로 제주지역은 집주인들이 달세보다는 년세를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높음. 그 결과 매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그때 년세를 올리기도 함. 사례1은 소득이 낮아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년세가 올라 동생집을 봐주는 조건으로 동생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됨

지금은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동생이 집을.. 동생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어요 저는 집이 없어요 동생 명의로 된 집인데 지금 거기로 혼자 가서 살고 있어요...1년 밖에 안됐어요 네 집주인이 또 그세 집세를 올려버렸어요 1년만에 (아.. 연세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돈이 없어서 280만원이었어요 집이. 네 근데 저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정말 힘들 때 350으로 갑자기 올리겠다고 했고...(동생집에 전세예요 그러면? 달세? 그냥?) 돈 안됐어요, 안주고(사례1, 30대)

## 2) 친구네 집이나 동생네 집을 전전함

- 사례8을 통해 전업주부로 있다 여성 1인가구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일할 곳이 아니라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사례8은 비싼 주거비를 지불하지 못해 기초 수급자가 되어 지자체의 주거지원을 받기 전까지 잠 잘 곳이 없어 친구집과 동생집을 전전하며 가족과 지인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남

잠 잘 데가 없어요. 잠잘 데가 없고. (예) 먹고 사는 게 문제고 뭐.. 이제 그랬죠. 근데 거기서.. 저기하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건 됐는데 이 집, 집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때는 이제 이것, 나라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냥 친구네 집이나, 동생네 집이나.. 그러고 있었는데. (네) 여기 방을 거기서, 나라에서 좀 도움을 주니까 그걸로 방을 뭐 얻었죠. (아 이 방으로?) 네. (어 뭐 어떤 도움을) 아 수급자 그거 해가지고...(친구 집에서 사시면) 더 힘들죠. 눈치 보이고. 완전 눈치 보여요... 어 혼자 있는 것보다 많이 불편해요. 같이 동등하게 집세도 내고 먹을 거도 같이 내고 하면 뭐 눈치보고 할 거 없지. 근데 일방적으로 나는 그냥 공짜잖아요(사례8,50대)

### 3) 주거의 질이 낮은 쪽방

- 사례10은 한 번에 연세를 낼 수 없어 저렴한 달세를 찾다보니 주거의 질이 낮은 쪽방에 거주한 경우임. 쪽방의 경우 주거면적이 1~2평으로 협소하고 욕실이 없어 생활하기 불편하며 소음, 공동화장실사용 등으로 인해 주거의 질과 안전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쪽방: 한 몇 평정도 됩니까?) 이정도해요. (이거 두, 한 평인가 두평인가?) 여기 한 평? 이거보다 조금 작아요.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예예. (그럼 방음 같은 것은) 안 되어있고. (보안시설 같은 것도 없고 화장실도 공동이며 욕실은 그냥 수도꼭지만?) 예예 (욕실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방에) 그니까 방 있고 들어, 여기 문 열면 저기 뭐냐, 문 하나 열면 그쪽에 부엌 겸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냥 하고 그다음에 방문 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어 그러면 부엌이 욕실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예예...씻거나 그런 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고 하니까 그렇게 뭐 한 거는 없는데, 방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생활하기가 불편한 건 있죠. (응응)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는 가고 싶은데, 그 비용도 진짜 만만치 않고 그래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연세로 주게 되면 못해도 2-300은 한꺼번에 내쳐야 되잖아요...(CCTV는 어디에 달면 가장 안전함을 느끼시겠어요?) 집 입구, 들어가는 입구...문 여는 그 앞이라도 달아줬으면.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방음?) 들려요...막 들리긴 해요, 들리고 해요...그니까 고향, 뭐 술 먹고 와서 고향지르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아) 막 고향지르고 막 문 같은 거 광광 막 그런 게 있어요(사례10, 40대)

### 4) 가로등도 어둡고 cctv도 방범창도 없음

- 사례2는 학교와 가까워서 근처 원룸을 선택했지만 1층이라 안전에 위협을 느꼈으며 원룸 주변에 cctv도 없어 불안했다고 언급하고 있음. 또한 버스, 병원, 약국 등도 멀어 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근접성이 떨어져 생활하기 불편했음을 알 수 있음. 사례2는 주거지불안을 부모님의 도움으로 교통편이 편하고 경찰서 맞은편 cctv도

### 설치된 도로변 주택으로 이사함으로써 해소함

처음에 학교주변이 조금 싸고 가까우니까 차도 없을 때여서 거기서 살다가 내려오면은 다른데랑 더 가까우니까... (다른데란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학교는 산에 있잖아요? △대가...(그럼 지금 사는 집은 매입한 집이에요?) 아빠... 엄마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처음 제대근처에 살 때는 집형태가 뭐 어떤...) 원룸...그런데는 막 연세로 해가지고 1년에 얼마 해가지고...한 400만원. 1년에 400만원 ...(아아 그 살기는 괜찮았나요?) 약간 말: 다른, 뭐지 편의점 같은 것은 가까운데 나머지는 다 머니간... 병원도 없고, 막 약국 뭐 이런데 갈려면 버스타고 나가야하니까 그건 불편해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그 제대 쪽에 살 때는 지금 사는데 보다 훨씬 값감한데 cctv도 없었거든요...1층에 살 때는 또 이렇게 문을 열면 다, 누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큰 창에다가 이렇게 뭐도 안 되어있었던 상황...지금 사는 데는 cctv가 완전 잘되어있어요 이제야 지어진 곳 이어서...주변이 가로등... 밝고 사람도 많이 다니거든요. 큰길가 바로 그쪽이라서. 마주편에는 경찰서도 있고, 건물안에는 cctv도 다있고. (위치는 몇층에?) 저는 2층이요(사례2, 20대)

## 5) 집안에서도 두려움 경험

- 사례6은 집으로 가는 동안과 도착해 집에 들어가는 현관 그리고 집안에서도 범죄로부터의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6은 늦은 밤에 누군가 따라와도 자신이 어디에 사는 지 알 수 없도록 다른 층으로 갔다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가며 현관에서도 집안에 누군가 있을 것 같아 거실 불부터 켜 집안이 안전한지를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는 집안에 있어도 대문이나 창문이 바람 때문에 흔들려도 긴장하며 불안해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2층이라도 여성들은 혼자 집에 있을 때 창문도 열지 않는 것으로 보임

나쁜 것은 흉흉한 사건사고가 많이 있다고 하면은 2층에 사는데 일부러 3층 갔다가 집에 들어가거나, (아아) 그니까 혼자 밤에 걸을 때는 뒤에 바라보거나, 아예 늦게 집에 들어올 때는 택시를 거의 타요. 그런 게 좀.. 한 10시 넘거나, 일단 11시 넘으면 괜히 한번 찍고 내려오고요. 그리고 앞에서 저희 집이 배란다가 없어서 그 딱 들어갔을 때, 거실 불을 키기보다는 부엌 불을 먼저 켜요. (아 왜..?) 뒤에서는 부엌 불을 켜는 게 잘 안보이니까 일단 방에, 그 집에 가면은 센서등이 아니예요. (응응) 그래서 들어가면 부엌 불부터 키고 좀 있다가 방 불 키고 그렇게 하는 편이예요. (으음 그럴 때 어떤 공포감 같은 것을 느끼시나요?) 아 괜히 불안해요. (아 괜히 혼자 사니까?) 막 공포감 보다는.. 며칠 전에도 문을 다 닫고 자려고 누웠는데 문소리, 바람이 엄청 섰었잖아요? 그 소리에 자다가 깨서 다시 문 닫힌 것 확인하고 자고. 그런 게 좀 불안한 것 같

아요...그래서 혼자지내니까 더워도 창문을 잘 안 여는...2층이라도 창문은 잘 안 열게 돼서(사례6)

## 6) 안전을 위해 이웃과 교류하지 않음

- 여성 1인가구 중 20대와 30대의 경우 주변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1인가구임’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6은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혼자 사는 것을 숨기며 사례1은 혼자 산다는 것을 주변에 밝힌 후 범죄를 경험한 후 혼자 사는 것을 말하지 않게 되었다고 언급함
- 20대와 30대 여성 1인가구의 향후 가족형태는 유동적이어서 이들이 1인가구임을 주변에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변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친구들한테는 혼자 산다고 하는데 직장 분들한테도 혼자 산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남동생 온다고 (아아 그렇게) 주말마다 남동생 와서 자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아는 분들이, 저 혼자 사는 거 아는 분들이랑 저 혼자 사는 거 모르는 분들이 같이 있다가 아는 분이 ‘아야 너 혼자 사네!’ 이렇게 하면 아 아니라고 남동생 온다고 맨날...(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자기 안전을) 네. 나름 보호는 계속 해야 되니까(사례6, 20대)

혼자라는 것이 바로 노출되는 순간에 범죄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범인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 혹은 아는 사람? 이웃?) 이웃은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사람이었어요 (아 그니까 혼자 와서 있다는 것을 알고..) 네 알고(사례1, 30대)

## 다. 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

- 여성 1인가구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대체로 식사를 잘 챙겨먹지 않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건강을 가장 잘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함. 여성 1인가구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이 높은 경우는 헬스와 자전거 동우회 참여 등 매달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불되는 운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는 특별히 따로 하는 운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폐경기에 접어든 50대 여성 1인가구들은 갱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아무런 원인 없이 몸이 아프고 화가 나고 식은땀이 흐르며 정신적으로 우울한 무기력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심층면접결과 여성 1인가구들은 이웃보다는 직장 또는 봉사단체를 통해 지인을 사귀는 것으로 나타났음. 오히려 이웃에게는 혼자 산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웃에 알리지 않고 119 또는 원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로움과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남

### 1) 끼니를 거르는 식생활

- 사례2는 하루 1끼 또는 2끼를 먹으며 집에 혼자 있어 귀찮아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들이 자신을 위해 식탁을 차리지 않는 이유는 귀찮기도 하지만 한번 음식을 시키거나 또는 만들면 혼자 다 먹지 못해 남는 음식을 버려 비용이 아까워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혹시...지금 식사 3끼 다 해결하세요?) 아침은 안 먹고요...점심은 학교가면 애들이랑 먹고, 저녁은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먹을 때는 언제고, 안 먹을 때는 언제예요?) 먹을 때는 나가서 놀 때? (...안 먹을 때는?) 집에서 귀찮을 때나 시켜먹어도 혼자 있으니까 많이 남잖아요. 그게 꼭 버리게 되니까 너무 아까워서...(혹시 그런 먹는 거나 그런 거 때문에,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경험해 본적이 있으세요?) 그냥 뭔가 원래...아침도 다 먹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3끼를 다 먹었었는데, 이제 막 못 그러니까 확실히 몸의 변화는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냥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안 먹다가 먹으면 속이 엄청 안 좋구요. 그 약간 계속 안 넘어가는 느낌? 저 소화도 엄청 잘되는데, 막 화장실도 잘 못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사례2, 20대)

- 그러나 사례1처럼 소득이 없어 식사를 거르기도 함

이제 생활비. 다른 타 지역에 비해 1.5배 많게는 1.8배예요 다들2배 2배하는데 1.5에서 1.8배 정도 물가가 비싸서 혼자 밥 해먹는 것이 솔직히 두려워서 거의 굶는 실정이고 밥은 거의 회사에 나왔을 때만 해결을 하고 있어요(사례1, 30대)

- 사례8처럼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는 활동량이 적어 1~2끼를 먹기도 함

(그럼 식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여기서 해먹는데. (하루에 한 몇 끼 정도 드세요?) 1-2끼 먹죠. (생계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건강이 취약해서 할 수가 없어서) 예 건강이 취약해서 그렇죠. (아니면 누가 좀 돌봐주는) 아니 (응) 일단 입맛 같은 게 없어요.

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막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지(사례8, 50대)

## 2) 아플 때 혼자 해결

- 여성 1인가구들은 아플 때 가장 누군가를 필요로 하며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응급상황이 아니면 사례2처럼 혼자 병원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럼 아플 때 어떻게 해결해요?) 혼자서 그냥 병원 찾아가긴 하지만: 그냥 괜히 서러우니까(서럽고? 아 응급상황을 경험한 적은 없었고?) 아 그런 적은 없어요. (몸이 아플 때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그런 거는 없고?) 아 엄마아빠도 걱정할 것 같으니까 완전 심한 거 아니면은 그냥 혼자 병원가서 링거맞고 있거나(사례2, 20대)

- 사례4는 아플 때 혼자 있다는 것이 더욱 외롭게 느껴지게 하는 원인임을 이야기함

그럴 때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정말 아플 때는 누군가 있었으면 좀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으니까 안 좋은 점 70%인데 그 안 좋은 점 70%는 뭐예요?) 아픈거지. 그리고 너무 외로워요(사례4, 50대)

## 3) 갱년기

- 여성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사춘기 이후 정상적인 월경의 출현과 더불어 임신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이 40대 후반이 됨에 따라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지는 갱년기로 이행됨. 여성호르몬의 감소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30대 후반부터 갱년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50대가 지나서 갱년기가 올 수도 있음. 사례4는 50대가 되면서 에스트로겐의 생산이 감소하여 월경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폐경과 갱년기까지 겹쳐 몸이 아프고 화가 나고 식은땀이 흐르며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음

활동력도 줄고 엔도르핀도 돌지 않고.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아파요. 이것저것 지금 폐경이 온 데다가 갱년기가 겹쳤지요....나도 요즘 웃지를 않아서예.. 요새 갱년기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꾸 뭐 한참 찾고 못 찾으면 막 화나고, 막 식은땀이 찰찰찰 나고. 막 그, 그러니까 그게 갱년이다 그러더라고(사례4, 50대)

- 사례7의 경우는 갱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갱년기를 제대로 치료 및 관리하지 못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갱년기 때는 나도 좀 심하게 해가지고 넘어갔어. (어떻게?) 뭐 우울증도 오고...갱년기 때는 나도 좀 심해가지고 막 되게 심할 때는 눈물이 나고 막 그래...뭐 우울증이지 뭐. 쉽게 말하자면은 살기 싫고, 모든 게 귀찮고. 막 왜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싶고. 막 하여튼 얼굴이 화끈거렸다가 죽었다가 더웠다가 막 그런 증세가 오는 기라.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갱년기라고 (사례7, 60대)

## 5) 이웃에 대한 상처가 많음

- 사례1은 이웃 남성들로부터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무시를 경험했으며 이웃이 싸움을 말려주기보다는 방관해 이웃의 무관심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음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무시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건가요?) 제가 없을 때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뭐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저한테 상처로 돌아오는 말이 그런거 였는데(아 주변이웃들이) 네 주변 이웃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나중에는 이웃들을 안보게 돼요. 정말 싸움이 났을 때는 밖에 나와서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는 신고도 안해줘요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게 되게 사람들은 무섭구나 느꼈어요(사례1)

- 사례6도 이웃과의 트러블 때문에 이웃에 대한 상처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말함

굳이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되나?...(왜냐면 응급상황에 가장 빨리 달려올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이거든) 아 근데 굳이 별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아 왜요?) 아 일단 입주할 때 약간 트러블이 있었고요. (아아 그랬구나.) 네. 그 에어컨 설치 때문에 너무 그때 좀 트러블이 있었어가지고...빌라 청소 때 한번 나갔는데...늦게 나왔냐고 막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사례6)

## 6) 지인은 있지만 친구는 없음

- 사례4는 스포츠와 봉사단체 활동을 통해 아는 사람은 있지만 친구는 없다고 언급함. 사례4의 경우 아는 사람이란 조금 소통하는 정도이며 친구는 도와주고 챙겨주

는 사이임을 알 수 있음

(그러면 친구는 제주에 많이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지인들은 있는데 친구들은 딱히 뭐(네) 아는 지인들은 많아요...내가 또 골프 좀 치니까, 골프 뭐 티칭프로니까 가끔 연습장에 나가서 알게 되고...우리 △△에서 □□□□센터에서 내가 ○○○를 조금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자원봉사로...그러면서 좀 지인들을 알게 되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 ◇◇◇봉사회라든가, ◆◆◆봉사회라든가 이런데 좀 참가하고 있어요...그러면서 조금 소통을 하고 알게 되고...지역마다 지역에서 ◇◇◇봉사에서 ☆☆도우미들이 있어요. 근데 나를 내 ☆☆도우미언니는 지금 친언니처럼 다녀요...채소도 사다주시고. 또 김장철에는 내가 해외 나가고 없으면 꼭 김장도 챙겨주고(사례4)

8) 반려동물에 의지함

- 1인가구들은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고 쓸쓸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음.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 안정감, 친밀감을 주는 존재임. 사례1은 이성에게 받은 상처를 반려동물을 통해 위로받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이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함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상처면 누구에게 어떤 상처..?) 사람들한테.. (사람들이라면...어떤...?) 우선 안좋은 기억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이제 사귀던 남자.. 그래도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사귀었는데 헤어지면서~ 이제 그런거죠 사람~ 배신을 2번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는: 남자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서 개를 키우기 시작하게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생각도 같이 없어서 버리고: 그래서 의지할 곳이 필요했어요(사례1, 30대)

- 문제는 반려동물과 이웃과의 '함께살기'가 잘 되지 않아 이웃과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례1은 집주인의 눈치로 집을 옮기기도 하고 이웃과의 갈등으로 싸움을 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웃에 대한 배려 등 이웃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제가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눈치 보며 키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니까 주변에 이웃의 눈치를 많이 보는 입장이고요...네 집주인이 또 그새 집세를 올려버렸어요 1년만에...정말 힘들 때 350으로 갑자기 올리겠다고 했고 제가 개를 키우는데, '개를 키우지 말라' 그러니까 나가게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강아지를 키우는데도 있어서 이웃 주민들이 좀 그 사람들 보고

짚는.. 방안에서 키우는데도 밖에 나와서 소리쳐요 개가 왜 이렇게 짚냐고 들으라고, 방안에서 짚는 건데도요 못 짚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누가 개 짚냐고 막 소리치고 있으면 어떤 개가 안 짚어요 제발 그렇게 밖에 나와 서가지고 왜쳐대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내가 남자였어도 저렇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사례1, 30대)

## 라. 미래가족계획

- 심층면접 결과 미래의 가족계획은 '원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살기', '결혼', '비혼', '그냥살기로 나타남

### 1) 원가족과 함께 살기

- 사례2는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가구가 된 사례임. 사례2는 '외로움' 때문에 미래에는 원가족 또는 친구와 같이 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아 저는 1인가구가 좋다가 보단,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야 되니깐 일단 사는데, 엄마아빠랑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딱히 1인가구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들고, 친구랑 살아도 상관 없어요(사례2)

### 2) 결혼하고 싶음

- 사례1은 처음에 직장 때문에 1인가구가 되었지만 이후 원가족과 함께 살수 없어 1인가구로 남게 된 경우임을 알 수 있음. 사례1은 앞으로 결혼을 하고 싶지만 직장을 얻지 못해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영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는 현재 집세와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결혼을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토로함

부산에서 퇴사하고 제주 다시 내려왔다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장생활 2년 정도 하다가 내려와서 부모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독립해서 살게 되었어요...요즘 환경이 다 갖춰져야 거의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이제 저는 갖춰져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집세 감당도 어려운 실정이고 생활비는 물론이거니와, 결혼은 꿈도 못 꾸고...저는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결혼은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잘 안따라 주는 것 같아요(사례1)

- 반면, 사례6은 학업 때문에 남매와 함께 제주시에서 생활하다 오빠가 결혼하고 동생이 학업을 마치고 서귀포 원가족으로 복귀하면서 1인가구가 된 경우임. 사례6은

제주시에서 직장때문에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지만 앞으로 결혼해 부부와 자녀중심의 가정을 꾸릴 계획임

(1인가구가 된 이유나..과정) 일단 학업...제가 남원 출신인데, 남원에서 △대까지 1교시가 있을 때는 일단 버스타고 출근, 퇴근이 정말 어려워요...처음에는 혼자 산거는 아니었구요. 오빠랑 남동생이랑 저랑 셋이서 살다가 오빠 결혼하면서 나가고, 남동생 이제 남원에서, 대학 끝나니깐 남원에서 살겠다고 해서 내려가고 저만 남은 거예요...혼자산게 이제 아마 이제 올해 보내면 한 3년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남원 집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은 여기 직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거) 아: 목표는 서른 전 결혼으로 독립이구요...(근데 꼭 30에 결혼한다는 뭐 이게 지금 약속된 그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저의 바람. (바람? 왜 30인지 물어봐도 돼요?) 아 노산에 대한 걱정이 큰 편이에요 저는...그리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사례6)

- 대체로 여성의 경우 비자발적 1인가구들은 향후 2인 가구 이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3) 비혼으로 살기

- 사례3은 결혼이라는 제도도 벗어나고 부모와도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어 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임. 비혼의 경우 부모님과의 독립된 생활을 위해 향후 1인가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그 저기 1인가구로 사신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세요 지금?) 1인가구라 하면은 (혼자사시는) 지금 혼자산지는 지금 부모님 하고는 2015년 2015년 12월까지 살고 2016년 1월부터 제가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따로 살게 됐거든요...그리고 부모님하고는 사인, 생활, 리듬사이클이 안맞아가지고 같이 잘 못살겠더라고요. 좀 나와야된단 생각은 했었어요...부모님들은 항상 어린나이에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게 간섭받기가 싫어가지고...단독주택지어서 나오게 된거죠...(아니 그래도 뭐 결혼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시간도 많은데) 결혼생각, 지금은 결혼생각도 저는 나중에는 그니까 남자친구는 꼭 한명은 만들 거예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벗을 만들어야...결혼이라는 제도는 이제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사례3)

### 4) 어쩔 수 없어 1인가구로 삶

- 사례8은 이혼 후 가족의 해체로 1인가구 되었으며 몸이 아프면서 일을 못한 경우임.

사례8처럼 비자발적인 1인가구로 시작했더라도 건강을 잃게 되면 자발적으로 그냥 1인가구로 살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뭐 사업하다가 (네) 망하고 이혼하고 이제 뽕뽕이 헤어지다 보니까 혼자 됐어요...그 몸이 아프기 전에는 일을 했죠. 근데 그 전에도 아파서 막 힘든 일은 못했는데, 그냥 알바정도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한 5년,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진짜로 일을 못하겠다 라고요(향후 이제 앞으로 미래의 나의 삶은 어떨 것이다 뭐 이런 생각?) 아니 이렇게 살다가 양로원 가는 거지 무슨..무료양로원 가야지 뭐. (아 양로원에) 우리는 기대 같은 게 없어요. 내 삶을 포기하고 사니까.(사례8)

- 사례10은 동거남과 헤어진 후 일을 하며 어린자녀와 생활하면서 자녀가 너무 어려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보육시설에 맡긴 후 1인가구가 된 경우임. 보육시설에 어린 자녀를 맡기며 1인가구로 사는 여성가장의 경우 자녀가 혼자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냥 1인가구로 살아야하는 비자발적 1인가구가 됨을 알 수 있음

그래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둘 다 같은 데 있어요(도평에 있는 보육시설에?) 예예...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혼자 키우는 게...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가야되게 되면 뭐 애기들 혼자만 집에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애기들 맡기려고 하면 그 비용도 진짜 만만치 않고~ 또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긴 했어요. (아이 맡긴 지는 한 지금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아 한 2년 넘었어요...뭐 성격 안 맞아서 헤어진 건데 그럼 어떻게 사냐고. 요즘에는 이혼하는 게 흔한 일이니까...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없어도: 그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하는데(사례10)

## 마. 필요한 지원

- 여성 1인가구들은 주거안정과 안전에 대한 지원,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1인가구 동아리활동지원, 아플 때 도우미지원, 반려동물지원, 인식개선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조함

### 1) 저소득층에 주거안정 우선지원

가) 임대아파트 때문에 지금까지 버팀

- 사례7은 40대에 여성 1인가구가 되어 60대 현재까지 장사를 하고 실패도하고 대출을 내고 또 장사해 실패한 후 신용불량자가 되었음. 그래서 현재는 관리비와 가스비를 못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여성 1인가구로서의 주거안정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하여튼 관리비도 잘 못 내고...이제 신용이 불량이 되는 바람에...가스비도 지금 밀려가있고...동사무소에서 요 이제 한번 찾아왔지. (아 어떻게 알고 오셨지..?) 그냥 이렇게.. 그때 이제 방문 같은 것 하다가 보니까 가스가 공급이 정지가 되어있는 걸로 뭐. 그거를 보고 와가지고...계속 빛이 시달리니까 살 수가 없는 기라. 살 수가 없어...제 3금융 그런데다가 대출 내서하다가 못 갚으니까 그게 이제, 신용이 이제 카드고 머시고 싹 정지되는 바람에.. 그 뒤로 어려워가지고. 사채, 사채도 내 쓰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한 4년을 지금 계속 이레 고생을 하는 기라...그때 제일 첫 분양할 때. 첫 입주. (아아 첫 분양은 한 몇 년 전입니까?) 10년...이제 이번에 재계약 들어가면 10년인데, 또 마련해야지. (어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지금..지금도 계속 지금 아파트 부금하고 관리비가 밀려가지고 계속 갖고 내라고 지금 연락이 오는데...그래 그때 당시에 받은 게 내 한테는 억수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때는 참 어떻게 이거를 받아져가지고 지금 까지 이거라도 있었으니까 살았지. 안 그러면 뭐 월세야 집세야 못살지. (그니까.. 여기는 그러면 한 관리비나 임대료는 어느 정도..?) 관리비, 임대료도 한 10 한 20만원 가까이해요(사례7)

## 나) 주거비지원 필요

- 심층면접결과 높은 임대료 때문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원하지만 저렴한 임대주택일수록 소음, 안전 등 주거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저소득 1인가구와 저소득 가정의 청년들은 더욱 주거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음. 사례2는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어렵다면 주거비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안전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아 돈을 지원해줘서 하는거나(행복주택들을 좀 많이 지어서...) 저희 입장에서선 둘다 상관없는데 행복주택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막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따지면...어쨌든 돈을 누가 조금 보태준다면 자기가 원하는 아무데나 살 수 있잖아요?(사례2)

#### 다) 셰어하우스<sup>17)</sup>보다 세대별 독립주거공간 선호

- 사례8은 여성끼리 함께 생활하며 방은 따로 쓰지만 주방과 거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셰어하우스는 서로 부딪히고 불편하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겠다고 말함. 오히려 원룸과 아파트처럼 세대별 독립주거공간이 확보되고 교류공간이 따로 있는 주거지는 들어가서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혹시 이제 여성들끼리...집을 하나...빌려서 서로 이렇게 방만 나누고 거실이나 부엌은 같이 쓰는 그런 곳이 있다면 혹시 들어가실 생각 있으세요?) 아 안 들어갈래요. (왜요?) 불편해서요 (이제 1층은 같이 이렇게 모임 할 수 있는 곳이고, 운동도 하고 그런 곳이고. 2층, 3층은 그냥 원룸처럼 자기 그냥 단독 방. 이제 뭐 자기 부엌 있고, 그 다음에 욕실 있고...아파트처럼 되어있고.) 그게 어디 있는데요?...그런 곳 있으면 좋죠. 아 근데 나는 임대주택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아파트 그런 거 들어가고 싶는데(그거를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편할 것 같아서요. (어떤 점이 편하실 것 같아요?) 깨끗하고 편안하고...사람들 별로 부딪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귀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사례8, 50대)

-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노인 1인가구인 사례5도 육지에서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사는 세대교류형 셰어하우스가 서로 조심해야하는 등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에 도움을 준다면이라도 임대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함

(육지 할머니들이 외로우니까 그 청년들 20대 30대 그 직장나가는 사람들 서울에 집값이 비싸니까 자기 집에서 인제 싸게 임대를 해주고 나는 급할 때 그 친구들이 나를 좀 돌봐주고 말 벗도 해주고 어 손자 손녀처럼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그런식으로 임대를 싸게 놓을 생각이 있으세요?) 없어요. (왜?) 혼자살아나니까 그렇고. 또 애들이 자주 왔다갔다해서 잤다가도 가고. 그리고 저기도 방이 두칸데 마루하고 두칸데 뭐 빌리라고 자주 와요. 와도 저는 안빌려줘요. (그 이유가?) 혼자 살아나니까 좋고. 또 아이들이라도 오면은 거기에 잘 수도 있고 짐이라도 있으면 갖다 놓을 수도 있게끔, 나가 그래요.(그러면 돈은 인제 많이 생길텐데?) 아이고 아이고 나 그 월세받아서 안살겠어요. 아이 나도 편안하고 아이들 당겨가도 편안할 정도가 되야지.(인제 다른사람하고 살면 많이 불편한가요?) 불편하지 아무래도. 조심성도 있어야하고. 조심하는데도 더 조심해야되고 서로간에, 혼자만 조심해선 안되고 서로간에(사례5, 80대)

17) 셰어하우스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공간이나 시설 따위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같이 사는 집. 각자 자신의 방은 따로 쓰며 거실이나 주방 따위를 함께 사용함(DAUM어학사전)

## 2) 주거지 및 주택안전 지원

### 가) 가로등 조도를 높이고 골목·다세대 입구에 CCTV 설치

- 사례6은 주거지 안전과 주택안전을 위해 가로등의 밝기를 지금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CCTV가 없는 골목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외부 출입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저는 가로등은 일단 다 켜져 있었으면 좋겠구요. CCTV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CCTV있는 거리가, 골목에는 많지 않더라고요...(조명의 밝기가) 밝았으면 좋겠어요(조금 많이 어둡죠?) 그 화장실 보다 좀 더 어두운 그 주황색 빛 그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되죠 그 그림자를 극대화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CCTV가 일단 현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관에?) 아니 아니 그 현관 말고, 주택 들어오는 그 메인현관 (아 메인현관에 있으면 누구를 보기 위해서?) 그 드나듦을 보기 위한 거죠. (아 저기 외부인들?) 네 (그리고 길 주변은?) 어 환했으면 좋겠어요. (주택 주변은?) 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좀 경찰들이 순찰하는 걸 본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사례6)

- 사례1의 경우도 여성 1인가구가 사는 지역주변과 골목에 CCTV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받고 싶어함

근데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은 만약에 여자 1인가구가 산다하면 그 주변에는 cctv 카메라 같은 것을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복도? 어디?) 골목같은 데라도 좀 더 한대라도 더 설치를~제주도는 더 취약: 없는 것 같아요(사례1)

### 나) 집수리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

- 관리실이 없는 다세대나 단독주택의 경우 사례3과 같은 어려움에 여성들은 노출되어 있음. 사례3은 공구질과 천장에 있는 전등교환, 나무집수리 등 주택관리에 대한 기술과 정보가 부족해 관련 집수리에 대한 도움과 잘하는 집수리 업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공구질 할때나, 좀 약간 뭐 집안에 이렇게 높은데 해가지고, 불이 가거나 이랬을 땐 조금 이렇게 남성들의 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2층이 거

의 높이도, 천장 높이도 이거에 2배이니까 그렇기도하고... 또 집도 이제 좀 나무 집이다 보니까 수리도 하고 그럴 때는 좀 그럴 때에 좀 약간 그 뭐지 물론 전화만 하면 좀 이렇게 얼마든지 뭐 하지마는 좀 뭐라해야되지 정보가 그런데는 좀 정보가 잘하는데 안 잘하는데를 그렇게 좀 판단을 못하더라고요(사례3)

#### 다) 보안업체 지원과 방충망지원 필요

- 사례6은 집안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부담 비용이 들어도 보안업체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선택으로 집안에 비상벨을 설치하기 보다는 각 방문에 비상벨방충망을 설치해 외부의 침입을 알려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어어 다른 시도에는 뭐가 있냐면, 보안업체 있잖아요. SECOM(세콤)하고 이렇게 우리 집을 연결해서) 차라리 그게 (대신에 50대 50으로) 부담을요? (부담을 나눠주는 거지) 그게 훨씬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전 할 것 같아요...또 방충망에 하는 그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방충망?) 그 요즘 저희도, 저도 선생님들이 알려줘서 혼자 산다고 하니깐 방충망에 그 락 걸어놓고 밖에서 누가 열려고 하면 뺨뺨 하는 게 있대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배부해주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혹시 급한 일 생길 때 집에 비상벨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요... 실용성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요즘 그런 것보단 휴대폰이 더 빠르거든요(사례6)

### 3) 경제활동 지원

#### 가)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 사례4는 창업을 하는 여성 1인가구들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는 바이오상당에 대한 발굴지원과 여성창업자의 경우 신용보다는 사업아이템에 대한 심사로 투자를 결정해야 여성 1인가구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봄

우리 1인가구들이 개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개인사업자들한테는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바이오상당을 할 수 있게끔...그 사람의 신용을 보기보다는 이 사람의 아이템을 봐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참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나 혼자라도 지금 그런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어 여기서 2, 3명의 직원들을 선출해가지고 잘 꾸며갈 수 있는데 그게 안되면 오더를 따지 못하는데, 오더가 없는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니까(사례4)

## 나) 노인일자리 기간 연장

- 사례5는 노인일자리 경우 노인일자리 기간이 현재 9개월인데 12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여성노인 1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라고 생각함

(이렇게 무릎 수술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물질하고 생활비하고 지금은 물질 못하니까) 또 수협에서 보조가 좀 나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10만원. 그러면 국민연금같은건 이복이 들어났던 거고. 그러면 총하면 수입이 한 50만원 정도. 그러면 이 노인 일자리가 또 일년 단위. 9개월. 9개월 하어서 또 내년 3월 나아만이 또 되고 그래요(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어요?) 그거 노인 일자리. 뭐 일년만 줬으면은 좋겠어요 1년만(사례5)

## 4) 1인가구 동아리 활동 지원

- 심층면접결과 여성 1인가구들의 이웃관계개선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례6은 1인가구를 위한 동아리모임시 진행비에 대한 지원과 사례2는 공동주택에 소셜다이닝 모임장소 확보 그리고 사례6은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시 직장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시간과 연계해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1인가구가 어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어떤 모임에 대한) 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1인가구인 게 확실하다면. (확실하다면.. 마치 우리 동아리 모임하게 되면 지원해주듯이, 뭐 창업 동아리 지원해주듯이 이렇게 1인가구를 위해 어떤 토픽으로 만나서 그거 하면 음 지원해주는 거) 네. 그런 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6)

뭔가 이렇게 같이 자기 것을 가지고 가서 같이 먹으면은 좋을 것 같다고 했었어요. (주거 공간에 대한...) 어느 집에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 아파트 안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만나서(사례2)

차라리 진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회사에서도 가끔 그 교육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교육이수들이. 그거를 이렇게 채우면, 저도 1인가구들도 증가하고 그 그런 교육 참여율도 높고 같이 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있어요(사례6)

## 5) 아플 때 도우미 지원필요

- 사례9처럼 1급~3급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뇌전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도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사례9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여성 1인가구들에게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줄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건강이 특히 많이 안 좋으세요?) 내가 지금 가슴도 답답하고 머리로 어지럽고 그러거든요. 지금(여성1인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우미가 와 가지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어떨 때는 밥도 같이 먹어주고...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그리고 저기 이런 저기 집안일도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먹을거리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고, 지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사례9)

## 6)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 가) 부과세 폐지와 반려동물카페 이용권 지원

- 심층면접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성 1인가구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의지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사례1처럼 소득이 낮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의 치료비와 반려동물 동행 카페사용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되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1은 치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단비에 부과된 부과세를 폐지하고 저소득의 경우 애완동물 카페사용 시 할인쿠폰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우선 전국적으로도 왜 부과세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부과세? 반려동물을 키우면 부과세를 내야 되나요?) 예 애완동물 병원갔을 때 처음에는 부과세가 없었는데 이런 정권들이 바뀌면서 의료진단비에 부과세가 붙게 되어있어요 (아 동물에 대한 진단비에는? 의료보험이 안된다) 의료보험이 안되는데 거기다가 부과세 까지 붙어서 비용이 너무 커요...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저 혼자~애견카페 같은 데서는 할인쿠폰같은 것이라든가 할인권같은것이라도 적용시켜 줘 으면(사례1)

### 나) 출장시 맡길 곳 지원

-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가구들이 휴가나 여행시 애완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여성 1인가구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사례1은 출장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어려우며 사례3은 늘 어머니에게 부탁하

는 것도 힘들어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함. 여성 1인가구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출장시 마음놓고 맡길 반려동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저 같은 경우에는 출장같은데 가게 되면 정말 강아지가 처치곤란이거든요 그런것들 맡겼을 때 비용을 좀 맡길수 있는 곳(사례1)

처음에는 개를 키웠었어요...개밥 주는 것도 조금 이렇게 내가 출장갔을 때 또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해야 되고 뭐 이런것들 있어 부니깐 자동적으로...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사례3)

## 6) 인식개선 필요

- 사례6은 이웃들이 여성 1인가구에 대해 결혼을 못해서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다고 봄. 사례6은 이웃들은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인식개선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여성을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분화하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비자발적 여성 1인가구보다 자발적 여성 1인가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도 혼자 살 수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가장 좀 필요한 정책은 어떤 거 같아요?) 인식개선. (인식개선? 인식개선 어떤 부분?) 1인가구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그니까 자발적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찰았으면 좋겠어요. (응응) 그니까 요즘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을 못해서 혼자 산다, 그런 것들도 별로 내키지 않구요. 그니까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이 들었을 때 혼자 살 수 있고 그런 건데. (응응) 그런 인식개선? 그니까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꼭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들로 구분 짓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사례6)

## 3. 요약 및 시사점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형성배경 및 생활, 어려움, 미래계획, 정책욕구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여성 1인가구로서 자유라는 장점도 있지만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임

### 가. 중첩된 어려움: 낮은 소득과 건강문제

- 심층면접 결과 여성으로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부모와 남편으로부터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이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부분에서는 큰 장점으로 나타남
- 그 외 1인가구로서의 어려움은 소득활동이 필요하지만 취업이 안 되거나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을 때이며 여성 1인가구의 소득이 낮은 이유로 구직의 실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학업, 고향이 제주가 아닌 경우 비자발적 1인가구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1인가구가 되어 더욱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증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들은 식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대체로 소득이 없어 또는 건강하지 못해 활동량이 없어 1끼 또는 2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아플 때는 옆에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병원을 가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40대 후반 이후부터 갱년기를 경험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서야 갱년기임을 인식하며 그 시기를 우울하고, 화나며, 아프며, 무력하며 더 나아가 자살충동까지 느낀다고 토로함
- 40대이상 여성 1인을 대상으로 한 갱년기치료 지원과 건강이 나쁜 1인가구는 집안 일과 식사, 병원을 같이 갈 도우미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제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판로개척지원 및 사업아이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노인일자리 발굴뿐 아니라 현재 노인에게만 9개월인 공공일자리를 12개월로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 나. 낮은 주거의 질과 안전문제

- 월세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여성 1인가구는 친구, 형제 등 지인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높은 연세와 월세 때문에 주거의 질이 낮은 쪽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룸과 쪽방,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변 가로등이 어두우며, 출입구에 CCTV, 집에 방범창이 없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쪽방의 경우 협소한 방, 소음, 공동화장실사용 등 주거의 질과 안전의 질이 낮았음

- 또한 여성 1인가구들은 혼자 집안에 있기 때문에 현관, 집안에서도 범죄로 부터의 공포를 느끼며 안전을 위해 주변이웃에게 자신이 혼자인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의 취약은 여성 1인가구의 고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필요하며 주거질 개선을 위해 소음과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주거비를 지원해 낮은 주거의 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세어하우스의 경우 서로 부딪히고 조심해야하며 불편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지만 세대별 독립공간이 주어지면 세어하우스에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거지 및 주택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주거지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고 골목에 CCTV설치 및 다세대주택의 출입구에 CCTV설치 등 안전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집수리와 관련해 다세대나 단독주택의 경우 여성 혼자 공구질, 전등교환, 집수리 등이 어려워 집수리를 잘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집안에서의 외부의 침입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업체비용지원 및 비상벨방충망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 사회관계의 어려움과 인식개선

- 여성 1인가구는 이웃으로부터 혼자산다는 무시로 인해 상처의 경험이 있고 지인은 많지만 친구는 없어 마음을 위로받고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반려동물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의 이웃관계개선과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해 동아리모임지원과 직장인 1인가구의 프로그램참석을 위해 교육이수시간과 연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여성 1인가구들 중 학업과 취업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는 원가족으로 복귀하길 원하며 복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혼을 하고 싶어함. 대체로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는 향후 2인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자발적 1인가구들은

비혼으로 살기를 원하며 이혼/별거로 가족이 해체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인가구로서의 생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발적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를 결혼을 못해 혼자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결론 및 정책지원방안

1. 종합적 논의 및 정책방향도출
2. 정책방향에 따른 지원방안



## 1. 종합적 논의 및 정책방향 도출

- 전국 및 제주지역 1인가구의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1인가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정부 및 타 지자체는 1인가구 및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연구추진과 관련 조례제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청년세대의 결혼관 변화, 비혼의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대도시중심의 취업 기회, 가족재생산비용의 증가, 이혼·별거·사별의 증가,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독거가구 증가 등 1인가구의 구성이 다양하며 여성 1인가구의 구성 또한 이질적임
- 문제는 1인가구 관련 정책 및 조례가 특정 노인과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양한 배경 속에서 형성된 1인가구의 이질적이며 다양성한 특징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보다 빈곤하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여성 또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특정 나이 또는 특정 분야만 지원하는 등 사회경제적 전반적인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별, 계층별 이들의 경제적 실태, 주거실태, 안전실태, 건강실태, 여가실태,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노후 및 미래대책, 정책욕구를 조사했음
-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생활 특징, 세대별 특징, 계층별 특징을 정리한 후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가.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특징

#### 1) 여성 1인가구의 증가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형성배경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이 55.5%로 가장 많지만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20.5%)도 많아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서귀포지역 2030의 경우 대학과 직장이 제주시에 많기 때문에 20대에 학업을 위해 제주시로 이주해 취업준비 또는 취업이후 지속적으로 1인가구로 남아있을 가

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됨

- 제주지역은 특히 60세이상 여성 1인가구가 많으며 고령화로 인해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증가할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2)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결정하는 건강문제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월평균근로 소득은 '근로소득 없음'(34.5%)과 100만원미만(13.0%)이 47.5%로 소득이 낮지만 경제적 상황은 일반가구가 80.9%로 나타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임. 문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신체적 건강평가가 평균 2.2점으로 건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이 나빠 소득 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보임. 거주기간도 길어질수록 건강도 나빠졌음.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중 일하지 않는 이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58.1%로 많아 여성 1인가구의 자립지원정책은 건강관리지원사업과 맞물려 추진되어야함을 알 수 있음
- 사회활동 또한 활동하는 사회단체나 모임에 대한 조사결과 없음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단체나 모임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 거주기간이 긴 여성 1인가구는 사회관계의 고립을 경험할 수 있음. 그러나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건강상태 또한 신체적 건강은 평균 2.9점, 정신건강은 평균 3.5점으로 신체적 건강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함.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3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 4050세대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 조사결과 4050세대는 건강과 주거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31.9%는 가족부양과 가족돌봄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4050세대는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평균 3.1점이지만 건강하지 않음이 31.3%로 나타남. 특히, 근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는 상태는 평균 2.8이하로 저소득층의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40대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가 27.0%로 가장 많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로 연립/다세대주택 거주로 안전에 취약한(거주지안전도 평균 3.2점)

것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들은 혼자 생활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부양의 의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해 더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30세대와 65세이상 노인 대상 1인가구 지원정책은 발굴되어 있지만 4050세대들은 지원정책이 없어 이들이 사각지대로 나타남

#### 4) 취미 및 건강관련 프로그램 선호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취미 관련 교육'이며 60세 이상은 '건강, 보건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30세대는 학교 또는 부설평생교육기관, 학원사업장 부설 문화센터에서 교육 참여가 높고, 40대와 50대, 60세이상은 복지관련 기관, 종교시설이 높아 관련 교육 및 복지, 종교관련 기관에 세대와 성별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5) 주변지역 및 집안에서의 안전문제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주거지안전(주변지역 폭력·범죄, 소음, 보안·도둑침입)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평균 3.3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지만 세대별로 2030세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평균 3.0점으로 더 낮게 나타나 2030세대들이 주거지에 불안을 느낀다고 볼 수 있음
- 심층면접결과 주거지 불안의 요소로는 주변지역 가로등의 밝기가 어두워 불안하며 원룸과 다세대, 쪽방 출입구에 CCTV가 없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어 안전에 위협을 느낌
- 문제는 여성 1인가구는 집안에서도 외부의 범죄로부터 공포를 느껴 안전을 위해 주변이웃에게도 자신이 혼자인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6)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주택공급 정책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책은 주택공급정책(54.2%)이었으며 그 다음이 건강증진관련 정책 15.6%, 여성안전정책 13.8%, 경제적 여건 개선정책 13.5%, 여성 1인가구 인식개선 1.2%,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정책 1.0%, 가족내 관계망 지원 정책 0.7%순이었음
- 특히, 주택공급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 공급(45.7%)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그 다음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임대 주택 입주 조건완화와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23.6%), 1인 가구를 위한 공유형 공동주택 공급(12.2%), 1인 가구 지원서비스 시설 복합형 대규모 집합 주택 (6.5%)순이었음
- 경제상황별로는 기초생활가구는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과 공동주택 공급을, 차상위는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일반가구는 임대주택 입주조건의 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별로 서로 다른 주거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나. 세대별 여성 1인가구 특징

### 1) 2030세대

- 2030세대는 결혼에 대해 향후 56.2%가 결혼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대 (70.5%)에서 30대가 되면 44.3%로 떨어져 청년들의 일자리 및 주거문제, 육아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지역에서도 향후 2030대의 결혼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 2030세대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책은 주택공급정책으로 나타났으며 2030세대들은 '1인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집합주택 공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에 거주할 2030세대들이 많을 것으로 보임
- 여성안전정책으로는 주택주변 환경개선을 선호해 주변지역 가로등 개선 및 CCTV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정책으로는 사회보장제도개선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건강지원정책에서는 여성 질환조기검진서비스를 선호해 여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함
-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2030세대는 청년일자리정책 중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일자리정책에 대해 '취업성공패키지' 19.7%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청년여성의 경우 일자리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2) 4050세대

- 제주지역 4050세대의 31.9%는 '결혼, 임신, 양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으며 가족돌봄이 여성 1인가구의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050세대 여성 1인가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4050세대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책은 주택공급정책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집합주택 공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임대주택입주조건의 완화도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함. 장기적 관점에서 4050세대를 위한 주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안전정책으로는 주택주변 환경개선을 선호했으며 주택 개·보수에 대한 지원(88.5%)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정책으로는 사회보장제도개선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40대는 구직활동 중 한시적 생계비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적 관점에서 4050세대를 위한 1인가구 지원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건강지원정책에서는 여성 질환조기검진서비스를 선호했으며 갱년기 여성 의료지원 서비스(89.6%)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4050세대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갱년기 지원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40대는 '가족돌봄 및 개인역량강화프로그램마련', 50대는 '1인가구 친목모임지원'을 선호해 1인가구를 위한 돌봄 및 가정관리, 가사

- 등 교육프로그램과 1인가구 동아리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4050세대의 구직시 어려움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28.3%)로 나타났으며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함(평균 2.9 점). 제주지역 여성 4050세대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지역 여성 4050세대는 중장년일자리 정책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장년 취업인턴 25.1%, 창업지원 20.3%를 가장 많이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4050세대들의 취업인턴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3) 6080세대

- 제주지역 여성 6080세대들은 현재 30.5%가 근로를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은퇴자 혹은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42.8%로 나타나 특히 고령 여성 인구가 많은 제주지역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및 고령자에 대한 여성 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심층면접에 여성노인들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만 사업기간이 9개월이어서 소득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6080세대는 의료보건기관이용 시 같이 갈 사람이 없어(21.0%)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활동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59.6%)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심층면접에서도 건강이 나쁜 여성 1인가구를 위해 집안일과 식사, 병원을 동행할 도우미지원을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남
- 6080세대는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교실(91.2%), 노인대학(87.1%), 노인복지관(58.5%), 경로당(37.5%)순으로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은 여가프로그램으로 '건강, 보건관련 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기 때문에 노인교실, 노인대학에 건강 및 보건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여성안전정책으로는 주택주변 환경개선을 선호했으며 60세이상은 위급상황시 사회적 보호장치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한 응급상황시 보호장치제공을 60세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 계층별 여성 1인가구 특징

- 조사결과 계층별로 형성배경, 공동주거에 대한 생각, 이웃에 대한 생각, 주택공급에  
서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형성배경은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이 많았으며 혼자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  
며 좋겠다고(평균 3.9점)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동주거에 대해서도 '주택을 소유  
한 어른신과 청/장년이 함께 사는 주택'(13.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수  
급자를 대상으로 세대교류형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택공급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 공급과 1  
인 가구를 위한 공유형 공동주택 공급을 기초생활가구(46.8%, 22.5%)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 차상위가구

- 차상위가구의 형성배경도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지만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10.5%로 다른 계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동주거에 대해서는 이들 가구는 '여성들만 거주하는 공동주택'(25.2%)을 다른  
계층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가구는 주택공급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  
주택 공급(45.3%)을 가장 선호하지만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24.3%)도  
다른 계층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원정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3) 일반가구

- 일반가구의 형성배경도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

- 만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도 25.0%로 다른 계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일반가구는 공동주거에 대해 ‘원룸과 오피스텔 형태로 1층에는 친교 및 운동/여가를 위한 공동 공간 있는 주택’(28.4%)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가구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임대 주택 입주 조건완화(24.2%)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라. 정책방향

### 1)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주택관련 제도적 지원강화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지안전(주변지역 폭력·범죄, 소음, 보안·도둑침입)에 대한 인식(평균 3.3점)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도(평균 2.2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세대별로 2030세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평균 1.9점으로 여성 1인가구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음
- 심층면접에서도 원룸과 쪽방은 출입구에 CCTV가 없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어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소음, 공동화장실 등 협소한 주거환경이 불안요소임. 따라서 여성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과 쪽방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및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범죄예방지원이 필요함

### 2) 4050대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건강, 주거, 가족돌봄 지원

- 심층면접결과 40대 후반부터 여성들이 겪는 갱년기는 혼자일 때 더 위험할 수 있어 40대이상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갱년기치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갱년기때 여성들은 더욱 우울하고, 화나며, 아프며, 무력하며 더 나아가 자살충동까지 느낀다함
-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갱년기 여성 의료지원 서비스(89.6%)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050세대를 위한 갱년기치료 지원사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4050세대는 6080세대보다 자가비율이 낮고 월세비율이 높아 주택마련이 부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4050세대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

가 있음

- 일을 하고 있는 4050세대 여성 1인가구 중 가족돌봄으로 경력을 단절한 경우도 다른 세대보다 높아 이들이 직업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3)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는 연령별로, 거주기간별로 나이가 들수록,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남. 일을 하지 않는 이유도 건강이 나빠서가 가장 많아 여성 1인가구의 건강이 이들의 소득활동과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 1인가구에 대한 건강관리가 20대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4) 취약계층과 6080세대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필요

- 세대별로 2030세대는 이웃의 필요성이 4050세대와 6080세대보다 낮았으며 2030세대는 안전을 위해 이웃에게 1인가구임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그러나 6080세대와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이웃의 도움과 왕래하며 협동할 수 있는 이웃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2030세대보다 6080세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웃만들기'사업이 필요함

### 5)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

- 여성 1인가구들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를 제외하고는 부모형제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상황은 기초생활가구 14.3%, 차상위가구 4.8%, 일반가구 80.9%로 이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평균 114만원으로 나타남. 통계청 2017년 도시근로자가구당 1인가구 월평균소득은 228만원 정도로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대별로 2030세대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4050세대는 중장년취업인턴제도를, 6080세대는 은퇴자 또는 고령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조사

결과 나타나 세대별 차별화된 일자리발굴 및 지원사업이 필요함

## 2. 정책방향에 따른 지원방안

- 본 절에서는 본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세대별 특징과 계층별 특징을 반영한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자함

### 가. 1인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1) 원룸 및 연립/다세대주택 건축규제강화

- 본 연구결과 2030세대는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1인가구가 되어 원룸과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음. 4050세대 또한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주택안전과 주거 안전도가 낮으며 소음, CCTV부재, 방범창부재 등 안전에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음
- 건축허가시 원룸과 연립/다세대주택에 안전, 방음, 출입구 CCTV설치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과 범죄예방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물 관련법과 연계해 원룸 및 연립/다세대주택의 안전을 강화해야함
- 기존 원룸 및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집주인이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 관련 개보수를 원할 때 개보수 및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2) 소형주택공급 확대

- 여성 1가구들은 소규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20·30·40대들은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사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또한 주택공급정책을 가장 많이 선호했음. 특히 1인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 집합주택공급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대상의 행복주택공급의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포함해 건축하도록 건축물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빌라 및 연립/다세대주택, 여관, 여인숙의 경우 집주인이 소형주택으로 리모

텔링을 원할 경우 5년 또는 10년 등 장기임대 한다는 조건하에 집주인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음

- 특히, 동읍면지역의 빈집활용, 마을회관 및 경로당 증축을 통해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한 후 4050세대와 6080세대 여성 1인가구를 우선배치 해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3) 여성 1인가구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범죄예방도시조성사업 간 연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부터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도시조성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과 여성안전 마을 조성을 위해 범죄발생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CCTV설치, 파출소, 여경배치 등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범죄예방도시조성사업이 여성 1인가구뿐 아니라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4) 가족돌봄미사업 추진 및 1인가구 세액공제 고려

- 조사결과 여성 1인가구의 19.6%는 가족돌봄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4050세대는 30%이상이 가족돌봄으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1인가구들의 가족돌봄대상으로는 (시)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조카 등으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의 경력단절과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방문하는 '가족돌봄미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돌봄미사업을 1인가구로 한정하기보다는 1인가구 신청시 우선권을 준다는 전제하에 한부모, 맞벌이 가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족돌봄미사업을 중장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함
- 또한 조사결과 가족을 돌보는 여성 1인가구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93.5%로 나타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에 1인가구를 지원하는 세금정책으로 제안할 필요성이 있음

## 5) 중장년층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1인가구 조례 제정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50세이상 64세이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복지서비스 지원, 장년층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구축,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조사결과 장년층뿐 아니라 40대 여성 1인가구도 스스로 신체적 건강이 정신건강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건강문제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들에 대한 신체적 건강지원이 중요하게 대두됨.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40대를 포함한 중장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층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로의 이주, 비혼의 증가, 고령화로 인해 1인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후 1인가구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 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1인가구의 종합적 복지와 가장 기본적인 가족단위로서 이들이 공동체내 통합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음

## 나.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 1) 2030세대를 위한 여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조사결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도(평균 2.2점)가 낮고 2030세대의 범죄예방 및 대처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에 대한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성평등교육센터를 설립해 성평등 및 여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관련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임. 여성 1인가구의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대상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하고 있음.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교육'은 민간대상의 사업으로 관련 기관에서는 2030세대 남녀 1인가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 가족·개인 돌봄 및 문화/예술/스포츠 등 취미 관련 교육

-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야함
- 조사결과 2030세대와 4050세대 여성 1인가구들은 '문화/예술/스포츠'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6080세대는 가족과 개인돌봄관련 교육지원을 원했음.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 여성 1인가구 뿐 아니라 남성 1인가구도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개설 및 확대가 필요함
- 특히 여성 1인가구들의 노후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정보에 취약한 4050세대와 6080세대를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의 여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중위소득 100%이하인 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문화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이들의 교육 및 여가활동을 지원할 필요도 있음

## 다.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건강관리지원 및 사회적네트워크 지원

### 1) 갱년기 여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확대

- 조사결과 여성 1인가구의 건강은 여성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강하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으며 사회활동 또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1인가구의 건강관리지원은 가장 중요함
-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여성 1인가구의 전입신고 시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여성질환, 심리상담, 골다공증 관리, 우울증, 치매사업을 보건소 및 광역정신건강센터, 광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건강상담 및 심리치료 등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2) 취약계층 및 6080세대 대상 이웃만들기사업 추진

- 조사결과 6080세대와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이웃의 도움과 왕래 그리고 협동 등 이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6080세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웃’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세대와의 이웃만들기를 위해 여성 1인가구대상으로 ‘건강과 여행 그리고 소통, 친구’라는 세대별 모임을 만들어 보건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주 지역의 올레길, 오름, 산책 등 걷는 여행프로그램을 개설해 건강증진 및 세대별 소통과 친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성으로 구성된 안전요원과 동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여성 1인가구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연계할 필요도 있음

## 라.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주거지원

### 1) 방범서비스 지원 및 여성안전도우미지원 사업 실시

- 조사결과 2030세대와 4050세대는 방범체계강화에 대한 정책욕구가 높게 나타남. 원룸, 연립/다세대주택, 쪽방 등의 주거지출입문, 창문 등 외부에서의 침입시 CCTV녹화, 경보음발생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와 인천시처럼 보안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예산지원사업 등 협약을 원하는 저소득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여성 1인가구의 밤늦은 귀가길 안전을 위해 서울시처럼 여성안전도우미사업을 외각 지역부터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음. 조사결과 여성 1인가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1인가구임을 노출시키길 꺼려함. 따라서 여성안전도우미사업의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고 귀가길 안전도우미 신청시 여성 1인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안전도우미제도를 노인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함

### 2) 주택개보수 지원

- 여성 1인가구는 집수리와 관련해 다세대나 단독주택의 경우 여성 혼자 공구질, 전등교환, 집수리 등이 어려워 집수리를 잘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남
-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정보뿐 아니라 집수리업체와 여성 1인가구의 주택개보수를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고지영. 2017. 「2017제주특별자치도 선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김영정·김연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시간활용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현진·김학민·안옥희. 2000. 「단독가구 고령자가 거주하는 독립주택의 주거환경 실측」.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표논문집. 11:91-95
- 김행신·이영호. 1998.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8):59-67
- 문정희·이재정·김형균 외. 2 17.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산복지개발원·부산발전연구원
- 박건·김연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노후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정주·김예구. 2017. 「2017 한국인 1인 가구 보고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이민홍·전용호·김영선·강은나. 201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보건복지부·동의대학교
- 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집 제1호 229-253
- 이준우·정미선. 2014. 「1인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변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여봉. 2017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 이연화·정여진. 2015. 「제주지역 1인가구 현황」 이슈브리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주원·김광석. 2015 「싱글족(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통권 654호 현대경제연구원
- 주혜진·손정혁. 2014.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분석」. 대전발전연구원
- 하정화·김현희·박진아. 2014. 「부산지역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하지경·이성림. 2017. 「1인가구의 건강관련 습관적 소비, 생활시간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비1인가구와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5. No2. 141-152
-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욱·김수진. 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진희. 2018. 「서울거주 1인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장진희·김연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 불안전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7 「2017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017.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

통계청. 2017 「2006년 및 2016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홈페이지. 2018.9.5

Jo, H. J. & Jun, S. H. 2010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paradigm and the Korean economy: Seven major structural features of a domestic company”. Korea Economic Commentary(394) 1-20

Jung, K. H. Oh, Y. Lee, Y., Son, C., Park, B., Lee., S., et al. 2011 “Survey on the elderly in 20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oon, E. Y., Jang, H. Y., & Kwon, Y. H. 2013 “ A study on living conditions and policies of senior single women households in Seoul” Seoul Womens Family Foundation Research Report 8. 1-170

제주일보. 2018. 8.2

부 록

---

## 설문조사지





## I. 1인 가구의 삶과 경제상태

1. 귀하는 혼자 사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 )개월

2. 혼자 생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응답)

- ①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 ②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 ③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 ④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 ⑤ 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민(기러기 가족 포함), 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
- ⑥ 개인적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 ⑦ 결혼을 하지 않아서
- ⑧ 기타( )

3. 귀하는 현재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 ③ 보통임
- ④ 대체로 만족함
- ⑤ 매우 만족함

4. 현재 귀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취업, 창업
- ② 직장생활
- ③ 학업/진학
- ④ 건강
- ⑤ 가족·친구 등 인간관계
- ⑥ 이성 친구와의 교제
- ⑦ 여가생활
- ⑧ 연애, 결혼
- ⑨ 재테크
- ⑩ 내 집 마련
- ⑪ 기타( )

5. 귀하께서 혼자 생활하시면서 가장 곤란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경제적 불안감
- ② 외로움
- ③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 ④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 시선
- ⑤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 ⑥ 임종에 대한 불안감
- ⑦ 반려동물 키우기의 어려움
- ⑧ 주택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 ⑨ 기타( )

6. 귀하는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해 누구로부터 편견, 무시, 차별 등을 받았습니까? (복수응답)

- ① 가족
- ② 이웃주민
- ③ 관공서 공무원, 공공기관, 시설 직원
- ④ 직장동료
- ⑤ 모르는 사람(음식점, 상가 등)
- ⑥ 친구 등 주변사람
- 기타( )
- ⑧ 없음

7.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③ 사무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직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
- ⑩ 자영업
- ⑪ 학생
- ⑫ 기타( )
- ⑬ 일을 하고 있지 않음 ▶ 문7-1로 이동



문16. 귀하는 부채가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부채(대출)를 얻었습니까?

- ① 없다 ▶ 문17로 이동      ② 은행 대출      ③ 친구      ④ 사금융  
 ⑤ 부모나 친지      ⑥ 한국장학재단      ⑦ 기타(                    )

문16-1. 귀하께서 빚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응답)

- ① 주택마련(임차, 구입)      ② 교육비(본인, 자녀, 사교육비)  
 ③ 의료비      ④ 결혼, 장례비 등  
 ⑤ 재테크 자금마련(주식, 부동산 등)      ⑥ 사업자금(가족, 자녀사업, 영농자금 등)  
 ⑦ 생계비(식비, 수도 및 가스요금 등)      ⑧ 기타(                    )

문17. 귀하의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② 차상위가구      ③ 일반가구

## Ⅱ. 주거 환경 및 안

문18. 현재 귀하가 살고계신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문19로 이동      ② 전세 ▶ 문19로 이동      ③ 보증금 있는 연세  
 ④ 보증금 있는 월세      ⑤ 사글세(보증금 없는 월세)      ⑥ 공공임대주택 등  
 ⑦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⑧ 기타(                    )

문18-1. 현재 연세 또는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연세(                    만원)      또는      월세(                    만원)

문19. 현재 귀하가 살고계신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② 연립/다세대주택      ③ 아파트      ④ 원룸  
 ⑤ 오피스텔      ⑥ 여관      ⑦ 여인숙  
 ⑧ 셰어하우스(친척 혹은 여러 명과 공유하며 거주하는 주택)      ⑨ 기타(                    )

문20. 현재의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 비용이 저렴해서  
 ③ 원래 거주하던 동네여서  
 ④ 부모·자녀·친지·친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⑤ 거주지와 주변지역(CCTV, 방범창, 도어락, 파출소와의 거리 등)이 안전해서  
 ⑥ 주거환경(주거면적, 냉·난방, 방음, 거주 층 수 등)이 좋아서  
 ⑦ 교통이 편리해서  
 ⑧ 여가 및 교육시설이 가까워서  
 ⑨ 공원, 문화시설 등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⑩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⑪ 기타(                    )

문21. 귀하가 주택을 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개 응답)

- ① 좋은 집(냉·난방, 방음 등)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 부족  
 ②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③ 너무 높은 보증금/월세  
 ④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⑤ 기타(                    )



문30. 현재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                      ② 별로 건강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건강함                              ⑤ 매우 건강함

문31. 귀하는 건강을 위해 얼마나 운동(가벼운 걷기, 실내외운동 모두 포함)을 하십니까?

- ① 안 한다                                      ② 월 1-2회                                      ③ 주 1-2회  
 ④ 주 3-4회                                      ⑤ 거의 매일

문31-1. (문31 ① ② 선택 시) 귀하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하기 싫어서  
 ② 활동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③ 운동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일, 가사, 돌봄 등으로 인해)  
 ④ 활동하기 위한 장소가 없거나 멀어서  
 ⑤ 몸이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                      ⑥ 기타(                                      )

문32. 하루 세 번 식사를 기준으로 평소 식생활에 관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를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2)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3.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를 보내십니까?

- ① 가족    ② 친구 또는 이웃                                      ③ 동호회 등 단체 회원  
 ④ 직장동료                                      ⑤ 혼자    ⑥ 기타(                                      )

문34. (지난 3개월 간) 귀하의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

▶ 평일: 평균 (                      )시간 (                      )분                      ▶ 주말: 평균 (                      )시간 (                      )분

※ 여가생활은 소득을 목적으로 한 근로와 가사노동시간을 제외한 개인시간을 말합니다.(수면 제외)

문35. 귀하께서는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문35-1. (문35 ① ② ③ 선택 시) 여가활동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일이 너무 바빠서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③ 가족(자녀, 손자녀 등)을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④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어서                              ⑤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⑥ 여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서                              ⑦ 함께할 친구가 없어서  
 ⑧ 하기 싫어서/귀찮아서                              ⑨ 쉬고 싶어서  
 ⑩ 혼자서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⑪ 기타(                                      )

문36. 귀하는 지난 1년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6-1로 이동                              ② 없다 ▶ 문37로 이동

문36-1. 귀하는 지난 1년간 교육을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복지관련 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 ② 학교 또는 부설 평생교육기관
- ③ 노인대상 직업훈련/취업지원 기관(노인취업센터, 노인일자리센터 등)
- ④ 여성 대상 교육, 직업훈련 기관(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
- 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 ⑥ 기타 공공시설(도서관, 문화원, 평생학습관 등)
- ⑦ 종교시설
- ⑧ 학원,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백화점, 마트 등)
- ⑨ 기타( )

문37. 귀하가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학력인정 시설/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특수대학원포함)
- 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취미관련 교육
- ③ 외국어 , 인문교양 관련 교육
- ④ 직업 훈련
- ⑤ 노후설계 교육(노후설계, 직업설계 등)
- ⑥ 시민활동 교육(자원봉사교육 포함)
- ⑦ 귀농·귀어·귀촌 교육, 농업관련 교육(도시농부, 텃밭 가꾸기 포함)
- ⑧ 한글 교육
- ⑨ 컴퓨터 사용 교육
- ⑩ 건강, 보건관련 교육
- ⑪ 종교관련 교육
- ⑫ 가정관리 및 음식관련 교육
- ⑬ 기타(적을 것: )

#### IV. 관계망 및 노후 대책

문38. 현재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없음
- ② 있음 ( ) 명

문39. 귀하는 평소 고민이 있으면 주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

- ① 부모
- ② 형제자매
- ③ 자녀
- ④ 친구와 선후배
- ⑤ 직장동료
- ⑥ 이웃
- ⑦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⑧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등)
- ⑨ 기타(적을 것: )
- ⑩ 없음

문40. 귀하께서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 및 빈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구분	항목	월4회이상	월1회이상	월1회미만	없음	해당없음
직접만남	부모	①	②	③	④	⑤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자녀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전화 또는 문자 연락	부모	①	②	③	④	⑤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자녀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	②	③	④	⑤

문41. 귀하는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을 돌보는 역할(양육, 간병, 가사 등)을 하십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가끔 한다 ▶ 문41-1로 이동 ③ 거의 매일 한다 ▶ 문41-1로 이동



문47. 귀하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항	질문 내용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이다	대체로 어려움	매우 어려움
01)	경제적 상황	①	②	③	④	⑤
02)	정서적 상황	①	②	③	④	⑤
03)	건강 상태	①	②	③	④	⑤
04)	사회적 관계	①	②	③	④	⑤
05)	주거 상황	①	②	③	④	⑤

## V. 정책수요

문48. 여성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으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 주택공급 정책 : 1인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 ② 여성안전 정책 : 안전한 주거환경, 지역사회 등
- ③ 경제적 여건 개선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인·구직정보, 능력개발 등
- ④ 건강증진 관련 정책 :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 ⑤ 여성 1인가구 인식개선 :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⑥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정책 : 지역사회 공동체, 1인가구 연대 등 참여형 프로그램
- ⑦ 가족 내 관계망 지원 정책: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⑧ 기타( )

문49. 귀하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1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소규모집합주택 공급
- ② 1인가구를 위한 공유형 공동생활주택 공급
- ③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 ④ 주택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 ⑤ 1인가구 지원서비스시설 복합형 대규모 집합주택
- ⑥ 기타( )

문50. 귀하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여성안전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주택 주변 환경 개선 : 주택외부의 외진 곳, 골목길 등에 가로등, CCTV 증설
- ② 주택 내부 환경 개선 : 주택출입구 및 현관 도어락, 방범창 설치 지원
- ③ 위급상황 시 사회적 보호 장치 제공: 민간보안업체(CAPS 등)와 협력, 긴급대피소 제공
- ④ 늦은 시간 귀갓길을 함께 동행해줄 수 있는 도우미
- ⑤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태배함 설치
- ⑥ 기타( )

문51. 귀하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경제적(일자리 포함)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사회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개선
- ② 구직활동기간 중 한시적 생계비지원
- ③ 자신의 전공과 적합한 구인·구직정보 제공
- ④ 직업전환을 위한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제공
- ⑤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 ⑥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
- ⑦ 기타( )

문52. 귀하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한 건강지원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여성질환 조기검진 서비스
- ② 우울증 검진서비스 및 프로그램
- ③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지원(필라테스, 요가 등)
- ④ 건강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요청 가능한 시스템 마련
- ⑤ 기타( )

문53. 귀하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사회지지체계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1인 가구 친목모임 지원
- ②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
- ③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등
- ④ 결혼준비 프로그램 등 제공
- ⑤ 가족돌봄 및 개인역량 강화프로그램 마련
- ⑥ 기타( )

## VI 20-30세대만 응답

문54. 귀하께서는 1인가구로 독립하여 살다가 원래 가족(부모님이나 자녀)과 다시 함께 사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54-1로 이동
- ② 없다

문54-1. 만일 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 ① 생활비, 주거비 등 경제적인 문제
- ② 부모님을 돌봐야 해서
- ③ 자녀를 돌봐야 해서
- ④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 ⑤ 혼자 사는 것이 안전하지 못해서
- ⑥ 기타( )

문55.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56. 귀하께서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57. 현재 귀하께서 일하고 계신 직장(정규직/비정규직 포함)은 몇 번째 직장입니까?

- ① 일하고 있음 ▶ ( )번째
- ② 일하고 있지 않음

문58. 귀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일자리정책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취업성공패키지
- ② 청년취업인턴
-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 ④ 청년취업아카데미
- ⑤ 해외취업지원
- ⑥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⑦ 고용디딤돌
- ⑧ 창업지원
- ⑨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사회적 기업 등)
- ⑩ 직업훈련
- ⑪ 고용서비스
- ⑫ 기타( )

문59. 귀하는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정책에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주택정책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행복주택 공급
- ② 주택마련 대출
- ③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청·장년이 함께 사는 세대통합형 주택사업추진
- ④ 청년전세임대주택
- ⑤ 세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 ⑥ 청년을 위한 협동조합형 공동주택
- ⑦ 기타( )



문64-2. (문64의 ① ② 선택 시) 참여한 일자리 사업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혹은 만족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01)	경제적 도움 정도	①	②	③	④	⑤
02)	근무강도	①	②	③	④	⑤
03)	근무시간	①	②	③	④	⑤
04)	근무기간	①	②	③	④	⑤

문64-3. (문64의 ③ 선택 시) 참여하신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②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③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④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어서
- ⑤ 근로시간이 적당하지 않아서
- ⑥ 근로기간이 적당하지 않아서
- ⑦ 개인시간 활용이 수월하지 않아서
- ⑧ 나의 교육수준이나 기술수준과 맞지 않아서
- ⑨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 ⑩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⑪ 기타(적을 것: )

문65. 귀하는 중장년일자리 정책에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일자리정책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중장년취업인턴
- ②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 ③ 해외취업지원
- ④ 중장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⑤ 창업지원
- ⑥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 ⑦ 직업훈련
- ⑧ 고용서비스
- ⑨ 기타( )

문66. 다음 1인가구 지원정책입니다. 알고 계신정책과 이용경험을 말씀해주세요

문항	질문 내용	모른다	알고 있다	이용 경험	
				없다	있다
01)	저소득 대상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①	②	①	②
02)	중장년 건강음료지원사업	①	②	①	②

문67. 귀하는 건강을 위한 다음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질문 내용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	보통 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 하다
01)	혼자 사는 40대와 50대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주택 개·보수	①	②	③	④	⑤
02)	40대와 50대 여성의 갱년기 관련 의 료지원	①	②	③	④	⑤





연구보고서 2018-05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  
지원방안 연구

---

발행일 2018년 9월 30일

발행인 이 은 희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 064-710-3482, Fax.064-710-3489

www.jewfri.kr

인쇄처 드림에드출판(☎ 064-752-3631)

---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87026-29-7

#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 지원방안 연구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3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 jewfri@jewfri.kr    🌐 www.jewfri.kr



9 791187 026297  
ISBN 979-11-87026-29-7

93330